

藝 術 院 報



第 二 號

빈 면

빈 면

빈 면



藝術院報 第二號

빈 면

藝術院報 第二號 目次

題 字	孫 在 馨
裝 幀	盧 壽 鉉
扉 畫	都 相 鳳
目次畫	褰 濂

藝術院開院式紀念畫報.....(一)

하늘의 研究 (論文).....金 東 里.....(二)

文學的人生論 (論文).....趙 演 鉉.....(一九)

詩 悅 樂.....柳 致 環.....(三五)

雪 路 (東洋畫).....李 象 範.....(三六)

文化保護法 (改正法律) 公布.....(三七)

第二代一般會員選舉狀況.....(四〇)

映畫上映製作에 關한 倫理的 規程.....(四二)

公 演 物 許 可 規 準.....(四七)

會 議 錄.....(四八)

藝術院 賞 授 賞 者 및 畫 報.....(六三)

藝術院 事 業 計 劃.....(六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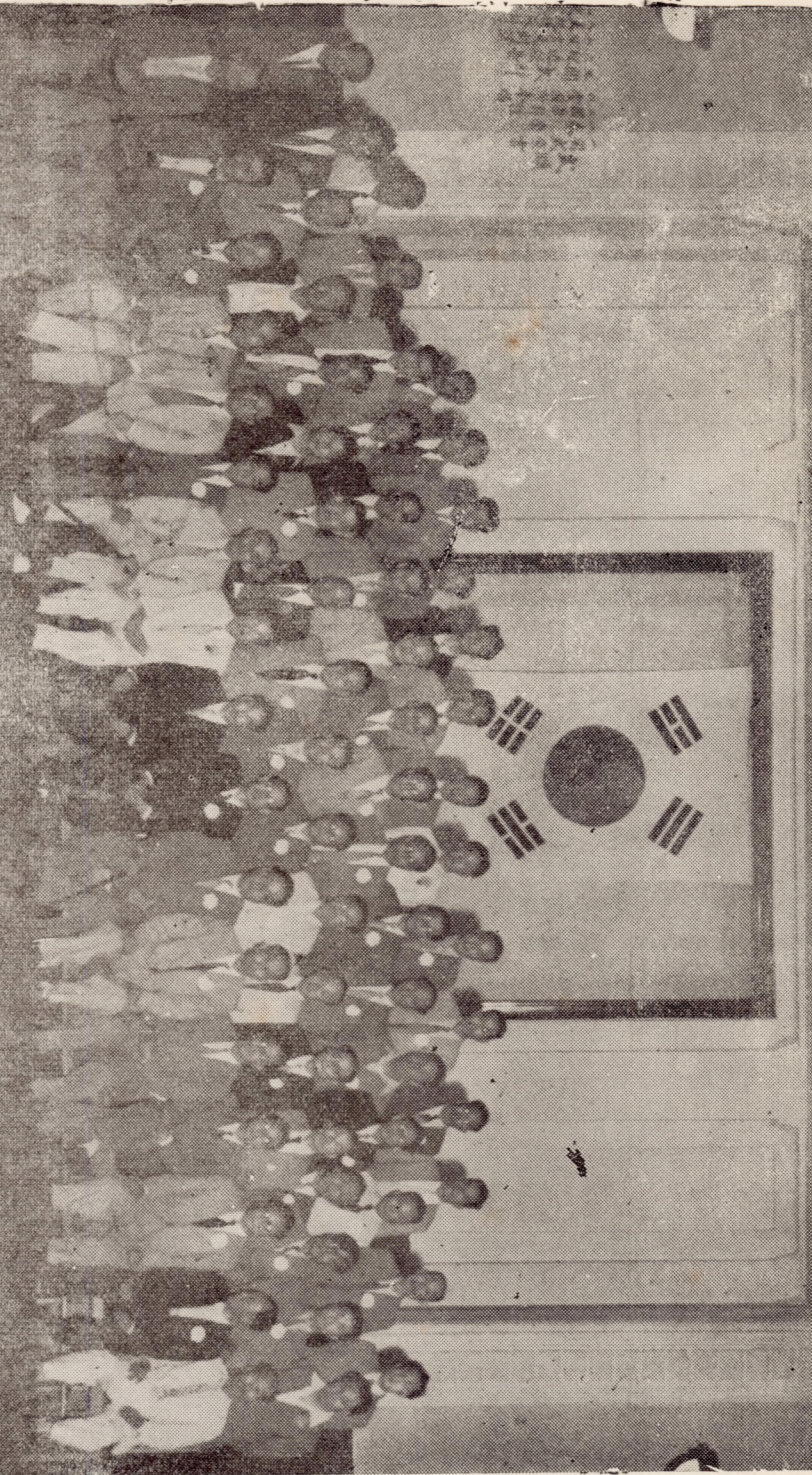
藝術院 會 員 紹 介.....(六五)

書 藝.....褰 吉 基.....(九〇)

詩 婆蘇斷章.....徐 廷 柱.....(九一)

隨 筆 남의 나라에서 부러웠던 몇 가지 事實들.....金 末 峰.....(九三)

創作 離 緣.....廉 想 涉.....(九九)



學術院・藝術院・開院式紀念

4287. 7. 17

學・藝術院開院式紀念畫報
 檀紀四二八七年七月十七日

빈 면

하늘의 연구

— 孔子의 天에 對하여 (東洋과 西洋에 關한 Essay 第二號) —

金 東 里

孔子는 오늘날의 述語로 말하면 形而上學 또는 純理學에 該當 되는 性命論 天道論 乃至 幽明 死生 鬼神之說에 대하여 說敎하지 않았다. 弟子 가운데 간혹 이에 대하여 묻는 이가 있으면 그는 결코 친절하지 않게 상대방의 입을 막아 버리곤 했다.

季路가 鬼神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는

「아직 능히 사람을 섬길줄 모른다면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리오。」

하고 대답 하였고, 또 다시,

「죽음에 대하여 감히 묻자올나。」

하였을 때도, 그는 역시

「살을 아직 모른다면 어찌 죽음을 아리오。」

하고 같은 論法으로 대답 하였다.

(季路 問事鬼神。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敢問死。曰 未知生 焉知死。——論語先進第十二之篇)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것을 배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문제와는 表裏關係에 있는,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왜 그것부터 먼저 알고 하느냐 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글렀다는 뜻이 대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程子(程伊川)가 말한 것 처럼, 人 사람 섬기는 일을 다하면 그것이 곧 鬼神 섬기는 길을 다함이요, 삶의 길을 알면 곧 죽음의 길

을 아는 것이다 V (盡事人之道則盡事鬼之道 知生之道則知死之道) 라고 一但은 前提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兩者는 각각 表裏와 같은 관계 (程子の 比喻를 빌리면 晝夜 V 와 같은 관계지만) 에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透徹하면 結果로 兩者에 通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兩者의 관계가 이미 이러한진대, 네(季路)가 卽해 있는 人 사람 V 와 人 삶 V 에 透徹 하는 것이 順序가 아니냐——하는 것이 孔子的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孔子的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도 아니요, 이해하지 못할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孔子的 그와 같은 대답으로써 季路가 鬼神 V 이나 人 죽음 V 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다. 季路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姿勢 뿐이다. 人 鬼神 V 에서 人 人間 V 으로, 人 죽음 V 에서 人 삶 V 으로 생각하는 姿勢를 고쳤을 뿐이다. 또는 人 삶 V 에 대하여 생각할 것을 斷念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땅을 아느냐。」

「바다가 무엇입니까」

「陸地를 아느냐」

果然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며 陸地에서 나는 물과 穀食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어찌란 말이나. 이 경우 우리에게 人 땅을 아느냐 V 또는 人 陸地를 아느냐 V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人 하늘 V 과 人 바다 V 를 알길은 永遠히 막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우의 人 땅 V 과 人 陸地 V 는 이 경우의 人 하늘 V 과 人 바다 V 와 꼭 같이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結果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人 하늘 V 에서 人 땅 V 으로 人 바다 V 에서 人 陸地 V 로 姿勢의 轉換이 있을 뿐이다.

孔子는 季路에게 人 鬼神 V 이나 人 죽음 V 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人 鬼神 V 보다도 人 사람 V 쪽으로, 人 죽음 V 보다도 人 삶 V 쪽으로, 생각하는 姿勢와 살아가는 姿勢를 바꾸라고 가르쳐 준 것 뿐이다. 따라서 程子の 이에 關한 註釋은 다만 그렇게 대답하는 孔子的 內心을 積極的으로 解釋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子貢이도

「선생님에게서 文章에 대한 말씀은 얻어 들었는데 人性和 天道에 대하여는 통 얻어들을 수 없었다。」

하고, 같은 所懷를 말 했다.

(子貢曰 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公治第五之篇)

여기서도 그가 人性이나 天道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는 說敎를 얻어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孔子가 怪力亂神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말에서도 증거가 된다.

(子不語 怪力亂神——述而第七之篇)

孔子는 왜 人性과 天道와 怪力亂說과 幽明死生鬼神之說에 대하여는 말하고자 하지 않았던가. 왜 그 문제에 대하여는 弟子들에게 說敎하기를 피했던가.

——이 문제는 일단 아대로 두기로 한다.

孔子는 오늘날의 純理學 또는 形而上學에 該當 될만한 人性과 天道와 怪力亂神과 幽明死生鬼神之說에 대하여는 弟子들에게 說敎를 피했다.

그러나 弟子들에게 說敎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그 自身이 모르고 있었다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거나, 實行하고 있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부하고 있었으며 實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늘 이 문제를 考究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그의 自白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나로 하여금 數年만 더 周易을 공부하게 한다면 크게 허물 될 것이 없으리라」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述而第七之篇)

여기서 그가 50보다 허물 될 것이 없으리라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謙遜해서 하는 말이다. 可以無大過矣란 말의 本意는 天道 地理 人事 宇宙 萬象에 대해서 맥힐 것이 없이 환하게 通曉 되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친히 易을 註釋한「繫辭傳」(「十翼」의 하나)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 그가 늘 이 문제(形而上學 또는 純理學에 該當하는)에 關心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 속으로實踐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다.

그가 病患으로 누어 있을 때, 子路가 와서 神明께 祈禱 드리기를 청하니, 孔子가 그러한 根據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子路가

「예에 있습니다. 옛날 堯에, 天地神明께 祈禱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는

「나도 祈禱 드려 온지 오래다」

하고 대답했다.

(子)疾病 子路請禱。子曰。有諸。子路對曰。有之。誄曰。禱爾于上下神祇。子曰。丘之禱久矣——述而第七之篇)

그러나 그가 여기서 〽나도 祈禱 드려 온지 오래다〽하는 이 〽祈禱〽란 말과 〽오래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在來의 해석대로 한다면, 祈禱란 것은 허물 있는 者가 그것(허물)을 뒤우치고 改過遷善하기 위하여 神祇의 도움을 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럴만한 까닭(즉 허물)이 없다면 祈禱 드릴 必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럴진대 孔子와 같은 聖人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허물이 없다면 悔改할 것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祈禱할 것도 없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그가 〽丘之禱久矣〽라 하것도 〽기도 드려온지 오래〽란 뜻이 아니고, 〽기도 드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聖인이 되기 전에, 아직 허물이 남아 있을 때 그 때 그 허물을 마저 없애기 위하여 祈禱를 드렸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解釋을 取하지 않는다. 이것은 孔子를 너무 偶像化시켜 놓고, 聖人이란 말과 祈禱란 말을 너무 觀念的으로 또는 機械的으로 解釋하는 데서 빚어낸 過誤인 것이다. 첫째 祈禱란 것을 반드시 허물 있는 者가 改過遷善하기 위하여 神祇에게 비는 行爲라고만 機械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行爲〽에까지 가지 않고 心的狀態에 머무를 수도 있다. 둘째 聖人이라고 해서 모든 瞬間이 다 完全無缺한 것은 아니다. 당장 자기 자신의 입으로도 〽나로 하여금 數年만 더 周易을 공부하

게 한다면 크게 허물 될 것이 없으리라 V 하고 自白하고 있지 않는가. A 크게 허물 될 것 V까지는 謙讓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不足한 面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에 A나로 하여금 몇해만 더 易을 공부하게 한다면 V하는 말로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A信而好古 V니 A學而不厭 V이니 하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好學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주 完全無缺하다면 왜 이렇게 자주 배우고자 하느냐 말이다.

그러므로 聖人이라고 해서 모든 瞬間이다 完全無缺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聖人에게도 약간의 不足이나 어떤 瞬間의인 허물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祈禱를 A허물 있는 者가 改過遷善하기 위하여 神祇의 도움을 비는 行爲 V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聖人에게는 該當되지 않는 것이라는 解釋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聖人에게도 改過遷善을 위한다는 意味의 祈禱가 있을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할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祈禱를 반드시 A허물 있는 者가 改過遷善하기 위하여 神祇의 도움을 비는 行爲 V라고만 解釋하는 것은 너무나 形式的이다. 祈禱가 A行爲 V의 形式에까지 이르지 않고 心的狀態 속 에 內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孔子가 여기서 A丘之禱久矣 V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過去の 儒學者들이 A丘之禱 V의 A禱 V를 A悔過遷善 以祈神之祐也 V라고만 解釋한 것은 祈禱의 對象을 어디까지나 A神祇 V에다 固着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勿論 形式的으로만 본다면 그것도 無理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形式面에만 붙잡히지 말고 孔子의 精神體系를 좀더 全體的으로 좀더 透徹히 考究한다면 A丘之禱 V의 A禱 V의 對象이 A神祇 V가 아니고 A天 V이란 것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은 直接的으로 이것을 證明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這間의 소식을 짐작하는데 參考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A죄를 하늘에 받으면 벌 곳이 없느니라 V

(獲罪於天 無所禱也——八佾第三之篇)

여기서 우리는 孔子가 오래전 부터 A하늘 V를 對象으로 祈禱 드려온 것을 間接적으로나마 于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孔子가 이것을 實踐하여 온 증거는 여러가지로 들 수 있다. 그가 친히 周易을 註釋한 「繫辭上傳」(第十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易에 聖人之道가 넷이 있다. 말에 있어서는 그 措辭를 崇尚하고, 음지간에 있어서는 그 變化를 崇尚하고, 制器에 있어서는 그 象을 崇尚하고, 卜筮에 있어서는 그 占을 崇尚한다 V

(易有聖人之道四焉、以言者尙其辭、以動者尙其變、以制器者尙其象、以卜筮者尙其占)

여기 △聖人 V 이라고 한 것은 勿論 自己自身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具象의 으로는 文王 乃至 周公을 指稱하는 것이요 抽象의 으로는 △君子 V 란 뜻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孔子 自身の 理想 乃至 標準의 人間、자기가 본받고 있는 人間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한 △聖人 V 또는 △君子 V 의 △道 V 로서 △以下 筮者尙其占 V 이라 했으니, 그가 △幽明 死生 鬼神之說 V 을 자기 生活 밖에서 두지 않았다는 것은 充分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孔子에 對하여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提出할 段階에 이르는 것이다.

첫째, 孔子는 왜 形而上學 또는 純理學에 該當되는 △人性 V 과 △天道 V 와 △怪力亂神 V 과 △幽明 死生 鬼神之說 V 따위에 대하여는 說教를 하지 않았던가.

둘째, 孔子가 이 문제에 대하여 弟子들에게 說教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서는 항상 考究와 實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 가장 中心이 되며 基本이 되는 △아이디아 V 는 무엇인가.

첫째의 첫은 孔子의, 聖人으로서, 哲人으로서, 또는 人生의 教師로서의 力量問題와 限界問題와 方針問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일단 이대로 두기로 한다. 다음의 문제를 먼저 檢討하기 위해서다.

△다음의 문제 V 즉, 둘째 문제에 대하여 나는 먼저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主題인 것이다.

孔子는 위에서도 보아온 바와 같이 △鬼神 V 을 물으면 △사람 V 을 아느냐 하고, △죽음 V 을 물으면 △삶 V 을 아느냐고 대답하였다. △鬼神 V 보다는 △사람 V 을, △죽음 V 보다는 △삶 V 을 각각 섬기고, 알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집 마룻간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朝廷에서 물러나와 자기 집 마룻간에 불이 났었다는

말을 듣자,

「사람이 상했느냐」

고만 묻고,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고는 묻지 않았다.

(既焚。子、退朝曰 傷人乎。不問馬。——鄉黨第十之篇)

누구나 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또 누구나 자기집의 말을 귀중히 생각하는 마음도 같을 것이다.

그가 특히 △사람이 상했느냐고만 묻고,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고는 묻지 않았다는데 意味가 있는 것이다. 말도 귀중하지만 사

람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사람에게 전주어서 말은 말할 건덕지도 못 되는 些少한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는

태도다.

이로써 볼때, △鬼神△도 △動物△도 △人間에 比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存在들이라는 생각이다. △天地之間萬物之中 唯人最貴△의

精神이다. Protagoras의 △人間은 萬物の 尺度△라는 말과 通하는 思想이다.

그리고 또 △죽음△보다 △삶△을 아는 것이 더 所重하고 급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子路가 묻는 △죽음△이란

△삶△의 끝을 意味하는 것이기 보다 △삶△의 反對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삶△을 明界라 한다면 幽界를 묻는 것이다. △이

승△에 대한 △저승△, △此岸△에 대한 △彼岸△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孔子는, △이승△에 있는 우리가 △이승△도 모르면서 △저승△을 묻느냐, △저승△은 그만 뒤라,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孔子는 徹頭徹尾 △人間 本位△요 △現世本位△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人生的 教師로서의 平常時의

態度요, 姿勢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非常時라든가 非正常的인 切迫한 事態에 이르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늘△을 찾는다.

宋나라 司馬 桓魋가 孔子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치셨거늘 桓魋가 나를 어찌 하리요。」

하고 △하늘△을 찾았던 것이다.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述而第七之篇)

또 匡人들이 孔子를 에워 싸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弟子들에게

「文王이 이미 죽고 道(文)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하늘이 장차 이 道를 없앨려고 했을진댄 나(後死者)에게 이 道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요, 하늘이 장차 이 道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匡人이 나를 어찌 하리요」

하고、前者의 경우와 비슷한 所懷를 披瀝했던 것이다. 桓魋의 경우에는 〆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치셨거늘 桓魋가 나를 어찌 하리요 〆 하였고、匡人의 경우에는 〆하늘이 나에게 道를 끼치셨거늘 匡人이 나를 어찌 하리요 〆 했던 것이다. 〆德 〆과 〆文 〆이 바뀌어졌을 뿐이다. 죽음의 威脅 앞에서 〆하늘 〆을 찾은 것은 매한가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衛나라에 있을 때 衛靈公의 夫人 南子가 그를 보고자 해서 謁見한 일이 있었는데, 이 南子は 當時에 淫婦로 알려져 있던 터이라 子路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말 했더니、그때도 孔子는

「내가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하고、亦是 〆하늘 〆을 두고 맹세를 했던 것이다.

(子見南子。子路不說。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天厭之。——雍也第六之篇)

또 孔子가 제일 사랑하던 弟子 顏淵이 죽었을때도 그는

「오오, 하늘이 나를 망치셨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셨구나。」

하고 통곡을 했던 것이다.

(顏淵死。子曰 噫天喪予。天喪豫。——先進第十一之篇)

이와 같이 孔子는 자기의 生命이 威脅을 받았을 때라든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弟子를 잃었을 때라든가, 자기의 行動이 안타깝게 誤解를 사게 되었을 때엔 번번히 하늘을 찾았던 것이다. 〆하늘 〆에 의지하며, 〆하늘 〆에 맹세하며, 〆하늘 〆에 호소했던 것이다.

—— 〆하늘 〆이야말로 孔子의 究竟的인 據點이었으며 그가 平常時엔 내어 놓지 않던 形而上學이나 實在論의 本質이요、本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孔子가 생각하던 〆하늘V의 理念은 무엇이며 그 性格은 어떠한가. 이것(天)이 〆人間V과 〆鬼神V에 대하여 갖는 關係는 어떠한가, 〆살V과 〆죽음V에 대하여 갖는 差異는 무엇인가.

孔子는 〆天V을 대개 다음의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썼다. 즉, 天地의 〆天V이 그 하나요, 天命의 〆天V이 그 둘이요, 天道의 〆天V이 그 셋이다.

〆天尊地卑 乾坤定矣V (周易繫辭上傳第一章)의 〆天V이 天地의 〆天V이요, 〆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V (繫辭上傳第六章)의 〆天V이 天地의 〆天V이요, 〆天一地二 天三地四V (繫辭上傳第九章)의 〆天V이 天地의 〆天V이다. 周易에서 말하는 〆天V이란 대개가 이 天地의 〆天V이다. 그다음, 〆五十而知天命V (爲政第二之篇)의 〆天V이 天命의 〆天V이요, 〆死生有命 富貴在天——子夏V (夏顔淵第十二之篇)의 〆天V이 天命的 〆天V이요, 〆顔淵死 子曰 噫天喪予 天喪豫V (先進第十一之篇)의 〆天V이 天命의 〆天V이다.

그리고 〆夫子之言 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子貢V (公冶長第五之篇)의 〆天V이 天道的 〆天V이요, 〆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V (陽貨第十七之篇)의 〆天V이 天道的 〆天V이다.

이와 같이 天地의 〆天V은 대개 周易(十翼)에 많이 나오고, 天命의 〆天V과 天道的 〆天V은 대개 論語에 많이 나온다. 周易 속에도 天命 또는 天道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周易)서는 좀더 天地의 〆天V에 가까운 概念으로 써 어저 있다. 그와 反面에 論語에는 天命의 〆天V이 大部分이요 天地의 〆天V은 稀貴하다.

周易 속에 나오는 〆天V은 大部分 天地의 〆天V에 가까운 概念이요, 論語 속에 나오는 〆天V은 대개 天命의 〆天V에 가깝다는 事實은 무엇을意味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〆孔子의 天V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至極히 重要な 問題가 안 될 수 없다. 왜 그러나 하면 孔子의 哲學思想은 全的으로 周易에 基盤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論語 속에서는 主로 天命의 〆天V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天命의 〆天V의 基盤은 역시 天地의 〆天V乃至 天道的 〆天V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볼진대 孔子가 使用한 세가지 〆天V의 概念 가운데 가장 原型的이며 가장 母胎的인 것이 天地의 〆天V이 있음을

집작할 수 있다. 이 天地의 ㄸ天V에서 天命의 ㄸ天V과 天道的 ㄸ天V으로 發展해 나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孔子가 天命의 ㄸ天V이나 ㄸ天道的 天V을 처음 말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以前부터 天命이란 말과 天道란 말이 얼마든지 나와 있는 이상 孔子가 그 概念을 처음으로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意味를 많이 擴充시키고 發展시킨 것은 孔子라 보겠다. 孔子 以前의 天命이나 天道的 ㄸ天V은 ㄸ上帝V 또는 ㄸ昊天V의 ㄸ天V에 連結된 것이며, ㄸ上帝V나 ㄸ昊天V의 ㄸ天V은 곧 ㄸ天地V 또는 ㄸ昊天V의 ㄸ天V에 連結된 것이기 때문에 天命의 ㄸ天V이나 天道的 ㄸ天V은亦是 天地의 ㄸ天V에서 멀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孔子에게 와서는 좀더 獨立된 概念으로 나아갔으며, 그리고 ㄸ좀더 獨立된 概念V으로 比重이 기울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天地의 ㄸ天V이 가장 原始的인 概念의 ㄸ天V이라면, 거기서 보더 觀念的으로 또는 理念的으로 나아가간 것이 天命의 ㄸ天V이요 天道的 ㄸ天V이라 볼 것이다.

그러면 周易의 「十翼」도 孔子의 文章이요, 論語 또한 孔子의 言行錄이라면 ㄸ天V에 對한 이러한 差異는 어디에 基因하는가. 이것을 完全히 解明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十翼」은 周易에 對한 註釋書에 가까운 文章이요, 論語는 自己가 直接 弟子를 가르친 言語란 點이다. 따라서 「十翼」에서는 易이 가지고 있는 原義를 밝히기에 忠實하려고 하니 주로 天地의 ㄸ天V으로 풀이 된 것이요, 論語에서는 주로 ㄸ人道V를 中心으로 가르치려니까 天命의 ㄸ天V으로 置重된 것이라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天地의 ㄸ天V을 보다더 宇宙自然的 ㄸ天V이라고 한다면, 天命의 ㄸ天V은 보다더 人生에 關係되는 面的 ㄸ天V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孔子는 어디까지나 ㄸ人間本位V요 ㄸ現世本位V였기 때문에 天理에 關해서도 人間生活에 直接的으로 關聯 되는 性格面을 爲주로 가르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孔子가 抱懷 했던 ㄸ天V의 理念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本質的인 것은 역시 天道的 ㄸ天V이라 하겠다. 天命의 ㄸ天V과 天道的 ㄸ天V을 體用的 關係해서 본다면 天道的 ㄸ天V이 體요 天命의 ㄸ天V을 用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天命에 있어서의 ㄸ天V의 用은 天道的 ㄸ天V에 比하여 相當히 制限的인 것이 있다.

이런 意味에 있어 孔子가 抱懷했던 ㄸ天V의 理念의 가장 本質的인 것은亦是 天道的 ㄸ天V이라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天地의 ㄸ天V이나 天命의 ㄸ天V은 어떤 相對나 對象者를 前提하는 概念이지만 天道的 ㄸ天V은 그러한

相對나 對象者를 前提로 하지 않는 自然 自在의 絕對的인 存在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一但 다음의 글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이 易이라는 글 됨이 넓고 크고 完備해서, 天道 있으며, 人道 있으며, 地道가 各各 있는 것이다. 三材를 兼하고 이를 둘로 하니 그래서 여섯이나. 여섯(六)이란 보편 것이 아니고 三材之道를 일으는 것이다. V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材而兩之. 故六. 六者非它也 三材之道也——繫辭下傳第十章)

여기서는 天道와 人道와 地道가 셋으로 노와져 있다. 이로써 볼진댄 天道의 △天V도 人道나 地道를 다 包攝하지 못한 어떤 對比的인 存在지 어디 △自然自在의 絕對的인 存在V라 할 수 있느냐 하는 疑問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孔子의 △天V에 對한 思想이 「十翼」에서 보다 論語에 이르러서 더 擴充되고 發展된 點이다. 「十翼」에서는 어디까지나 易에 對한 原義를 忠實히 叙述하려 했지만 論語에서는 좀더 自己流의 思想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論語에서 孔子가 말하려는 天道의 △天V이야말로 좀더 孔子 自身の 思想을 代辯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늘은 말을 하더냐. 묵묵한 가운데 春夏秋冬 四時는 돌아가고, 萬物을 낳지 않느냐. 하늘이 말을 하더냐.」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陽貨第十七之篇)

여기서 말하는 △四時V란 비단 春夏秋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V의 現象 全部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百物V이란 一百가지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全部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경우의 △天V은 地와 人의 對比者로서의 △天V이 아니요 그 모든것의 原動力이며 攝理者이며 統治者로서의 △天V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天V이야말로 孔子가 抱懷했던 天道의 △天V으로서, 唯一無二한 究意的인 存在(實在)이며, 그가 體得한 △道V의 本源이요, 萬物生成의 原動力이며 攝理者이며 主宰者인 것이다.

大體로 以上과 같은 前提에서 孔子가 抱懷했던 △天V의 性格을 整理해 보기로 한다.

一、△天V은 生命的 根源이요 그 主宰者이다.

二、△天V은 安心立命의 樂之道다.

三、△天道△는 健而無息의 大德의 實行者다.

以上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는 △天道△의 性格을 條項別로 檢討해 보기로 하자.

△天道△는 性命의 根源이요 그 主宰者이다 △

孔子는 個人의 禍福이나 國家의 消長盛衰나 道의 興廢가 모두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五十而知天命△(爲政第二之篇)이라고 한 △天命△이 곧 그것이였다. 그는 △天道△가 人間(人道)이나 事物(地道)에 끼치는 影響力을 가리켜서 △天命△이라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러면 △天道△는 어떻게 하여 人間(人道)이나 事物(地道)에 그 影響力을 끼칠 수 있는가 이點에 대하여 孔子는 △天道△의 攝理能力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증거는 그의 著書(十翼)와 言行(論語)에 나타나 있다. △天의 攝理△ 그 自體가 곧 △天道△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天道△의 影響力은 △天道△ 그 自體의 原因으로써 끼쳐지기도 하고 人間(人道)이나 事物(地道)의 原因으로써 끼쳐지기도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령 孔子가 衛靈公의 夫人 「南子」를 보았다고 해서 子路가 좋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와, 또 죄를 하늘에 지었을 때엔 빌 곳이 없느니라.」

했을 경우는 모두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機能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天道△의 影響力이 人間(人道)에의 原因으로써 끼쳐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 顏淵이 죽고 나서

「오오, 하늘이 나를 망치셨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셨구나」

했을 경우와, 또 宋나라에서 桓魋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치셨거늘……」

했을 경우와, 또 匡人에게 包圍되어 죽을뻔 했을 때

「하늘이 장차 이 道를 없앨 것이라면……」

했을 경우와, 또 子夏가

「죽고 삶은 命에 있고, 가멸과 귀함은 하늘에 있다」

고 했을 경우의, 天道V의 影響力은 天道V 自體의 原因으로써 끼쳐진 것이다. 이 경우 어찌서 하늘이 나를 망치셨는지 하늘이 나에게 德을 부치셨는지, 하늘이 장차 道를 없앨 것인지, 하늘이 가멸과 귀함이 하늘에 있V는지,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 그 原因은 天道V 自體에 있기 때문이다.

二, 天道V은 安心立命의 樂之道다.

孔子가 匡人에게 包圍되어 生命의 威脅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도 失望하지 않고 도리어 노래를 부르며 天命을 즐기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命(天命)을 알고 天(天道)을 즐긴다는 말은 여러군데 나온다. 天命을 알고 天道를 즐긴다는 것이다. 天道를 알고 天命을 즐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즐거움도 天道V의 즐거움에 전출 것이 없다는 것이다. 天道V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里仁第四之篇)고 했는데 天道V 가운데서도 天道V 以上이 없을진대, 天道V의 즐거움, 天道V의 귀중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疑問이 생긴다. 앞에 天은 性命的 根源이며 그 主宰者V라 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늘V은 곧 우리의 運命이 그로부터 오는 곳ियो, 그것(運命)을 支配하는 者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運命論 乃至 宿命論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경우 우리가 天道V을 즐긴다는 말은 곧 자기의 運命 乃至 宿命을 즐긴다는 말이 되는데 사람이 運命이나 宿命을 즐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러나 하면 運命이나 宿命이란 것은 天稟으로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것이 된다.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依하여 固定되어 버리고 意志의 自由性을 못가진다는 말이 되니 그 위에 더 不幸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運命論者나 宿命論者라고 하면 그는 곧 絕望論者나 厭世論者와 같은 뜻으로 取하게 된다. 그렇거늘 孔子는 어찌하여 天命을 알고 天道를 즐긴다고 하며,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가.

△易은 天地와 더불어 準한다。그러므로 능히 天地之道를 널리 거둘 수 있다。

우러러 써 天文을 보고, 굽어 써 地理를 살피니, 이터므로 幽明之故事(幽明의 故事)를 안다。비릇음을 물어서 마침에 이터니 이터므로 死生之說을 안다。精氣가 物을 이루고 (陰精陽氣 聚而成物 神之伸也)、遊魂이 變을 지으니 (遊魂魄降 散而爲變 鬼之歸也)、이 터므로 鬼神의 情狀을 안다。

天地와 더불어 서로 準하므로 어긋나지 않는다。知는 萬物에 널리 미치고 道는 天下를 건지니 그르치지 않는다。널리 행하여 머므르지 않고 天道를 즐기며 天命을 알므로 근심하지 않는다。홀에 安立하고 仁에 敦篤하니 이터므로 能히 사랑한다。▽

(易與天地準。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是故知幽明之故。原始及終 故知死生之說。精氣爲物。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與天地相似 故不違。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 故不過。旁行而不流 樂天安命 故不憂。安土敦乎仁 故能愛。——繫辭上傳第四章)

이로써 본다면 君子가 하늘을 즐기는 까닭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같은 뜻을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君子 居하여 편안 함은 易의 象이요, 기꺼우며 즐기(玩)는 자는 爻辭다。이러므로 君子 居할 때는 곧 그象을 보고 그辭를 즐기(玩)며 움직일 때는 곧 그變化를 보고 그 占을 즐긴(玩)다。이러므로써 하늘로부터 도우니 吉하며 좋지 않음이 없다。▽

(是故 君子所居而安者 易之象也。所樂而玩者 爻之辭也。是故 君子居則 觀其象而玩其辭、動則 觀其變而玩其占、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繫辭上傳第二章)

이 두 대목을 끌어 오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다。

이 두 대목을 緻密히 檢討해 볼때 △君子▽(또는 聖人)가 △天▽을 즐기는 이유로써 다음의 두가지 條件을 찾아 볼수 있게 된다。

一 △君子▽가 △하늘▽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知는 萬物에 널리 미치고 道는 天下

를 건진다 V (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 고 했다. 萬物을 널리 아는 것과 道가 天下를 건지는 것과는 不可分離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면 〆안다 V (知)는 것은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 하는가. 〆우려려 天文을 보고, 굽어 地理를 살피니 이로써 幽明之故를 안다. 시작을 찾아 마침에 이르니 이로써 死生之說을 안다. 陰精陽氣가 모여서 物아 되고, 遊魂降魄이 흩어져서 變化를 지으니 이로써 鬼神之情狀을 안다.

勿論 이것은 易을 두고 하는 말이다. 易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살피고, 그렇게 〆안다 V는 것이다. 즉 위에서 〆君子 居하여 편안 함은 易의 象이요, 기꺼우며 즐기(玩)는 것은 爻의辭다 V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二 〆君子 V가 〆天 V를 즐기는 것은 觀象玩辭하고 觀變玩占하여 天理에 順應함으로써 天祐를 입는데 있다.

〆天 V를 아는 것이 어찌서 즐거우나 하면, 天理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〆天道 V에 參與하여 天祐를 입는데 있다는 것이다.

〆變化를 陰陽에서 보고 卦를 세우며, 剛柔를發揮하여 爻를 남으며, 道德에 和順하여 義를 다스리며, 理와 性을 다하여 命에 이른다 V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周易說卦傳第十一章)

이와 같이 〆命에 이른 V 뒤, 〆장차 性命之理에 順應코자 한다 V (將以順性命之理——說卦傳十二章) 고 하였다.

위의 〆窮理盡性以至於命 V이나 다음의 〆將以順性命之理 V나 本意는 같은 말이다. 모다 〆天道 V에 和順코자 하는 것이다.

〆窮理盡性以至於命 V은 〆窮天下之理하고 盡人物之性하여 天道에 합하고자 한다 V (本義)는 뜻이요, 〆將以順性命之理 V 역시 天命乃至 天道에 和順코자 하니 마찬가지 뜻인 것이다.

이 경우의 〆天 V의 즐거움은 그냥 아는데서 그치지 않고, 觀象玩辭하고 觀變玩占 하여 自己의 生을 天理에 맞추며, 天道에 順應 시킴으로써 天祐를 입는데 있는 것이다. 〆天理에 맞추며 天道에 順應시킴 V은 어찌하여 天祐를 입는 所以가 되는나. 이에 대하여 孔子가 直接的으로 說明한 데는 없다. 그러나 「十翼」에 나타나 있는 孔子의 天命觀 乃至 天道觀을 積極적으로 解釋할 때 다음과 같은 解釋을 나릴 수 있게 된다.

① 性命은 個個이나 天道는 하나다. 性命엔 善惡과 禍福과 長短이 있으나 天道는 完全無缺한 德이며 生成의 本源이다.

② 小人(無知者)에게 있어 性命은 움직일 수 없는 不可抗力の 것이나, 君子(聖人・大人)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君子는 (易

을 通하여) 觀象玩辭하고 觀變玩占하여, 天理에 參與할 수 있으므로 自己의 生을 天道에 맞추어 順應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努力할 수 있다.

③ 天道는 完全無缺한 德이며 生成의 本源이기 때문에 君子가 生을 이에 順應시키면 그는 天道의 도움을 입는다. 天道는 完全無缺한 德이며 生成의 本源이기 때문에 天祐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吉이 있고 不利가 없다. 이것은 天의 觀象玩辭하고 觀變玩占하면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周易繫辭上傳第二章)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君子는 運命이나 宿命에 完全히 拘束되지 않고, 天道에 順應함으로써 다시 天祐를 입을 수 있으니 天理를 알고 天道에 和順하는 일이 모다 지극히 즐겁다는 것이다.

三、天은 健而無息하는 大德의 實行者이다.

孔子는 乾卦(三三)의 「象傳」(十翼의 하나)에서 天行이 健하니 君子 自強하여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고 하였다.

程伊川の 「易傳」에 依하면 天의 性情이라 하고, 乾은 健也나 健而無息之謂乾이라 했다.

다시 말하자면 周易의 乾卦(三三)가 가리키는 바 天의 性情은 健而無息인 것이니, 君子는 이를 본받아 自強不息인 德을 養하여 여러 나라를 歷訪한 것같이 알고 있고, 知覺 있다는 사람들도 그의 轍環下天의 目的인 天道를 펴고자 한데 있다고만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表面으로 내세운 目的이 아닌 바도 아니지만, 그 裏面의 그 보다 더 깊은 目的은, 眞實로 이 健而無息하는 天의 德을 實踐코자 한 데 있었던 것이다. 自己의 生을 天道에 順應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 裏面의 보다 더 깊은 意圖를 모르는 사람들은 甚至於 孔子를 이리석다고까지 했다. 後世의 匹夫들은 물을 것도 없지만 當時의 哲人(隱士)이던 接輿까지 「그만 두라, 그만 두라, 이런 세상에 벼슬할려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微子第十八之篇)

하고 타일렀고, 같은 隱士들이던 長沮와 桀溺도

「天下가 滔滔하고 어지러운데 누가 이것을 고친단 말이나」

(滔滔者 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微子第十八之篇)

하고 부질없는 수고는 그만 두라는 뜻이 많았다.

그러나 孔子에게 있어서는 어느 諸侯의 知遇를 받아서 바른 政事를 베풀어 보느냐 못해 보느냐 하는 結果가 重要的인 目的이 아니고, 그보다도 끝까지 그렇게 轍環天下를 하는 것이 自强不息하는 君子的 取할마요 同時에 그것이 健而不息하는 天道에 맞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以上으로써 나는 孔子가 抱懷했던 形而上學的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天의 理念과 性格을 대강 이야기 한 것이 된다. 요셋 말로 하면 宇宙觀이요 世界觀이요 人生觀의 本質을 밝혀본 셈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또 한가지 問題가 남아 있다. 그것은 위에서 提出해 둔 첫째 문제, 卽 孔子는 왜 形而上學 또는 實在論에 該當되는 性命論 天道論 幽明死生 鬼神之說 따위에 對해서는 弟子들에게 說教하기를 피했는가 하는 問題다.

나는 이 問題에 對한 一般的인 結論만 기록하기로 한다.

一、弟子들에게 現實的으로 實踐할 수 있는 面만 가르치기 爲하여 抽象的인 理論이나 一般論은 모두 迴避하였다. 이것은 같은 問題를 두고서도 묻는 사람에 따라 그 對答이 各各 달랐던 것만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가령 顏淵이 仁을 물었을 때는 克己復禮爲仁이라 대답하고, 司馬牛가 仁을 물었을 때는 仁者言也 諷이라 대답 하였고, 樊遲가 仁을 물었을 때는 愛人이라고 對答한 것이 그것이다.

二、孔子는 아직 그 方面(形而上學 또는 純理學)에 對해서는 完全히 透徹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위에서도 引用한 바와 같이 八자로 하여금 數年만 더 周易을 공부하게 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라고 述懷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는 일이다.

三、人과 生과 明에 最善을 다하면 天과 死와 幽에도 通할 수 있는 일이고, 順序的으로 우리가 人과 生과 明에 卽해 있으니 우리가 卽해 있는 이면에 精進을 다하자—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끝으로 本稿는 나의 『하늘의 研究』의 第一部에 該當하는 것을 밝혀둔다.

戊戌 十一月 二十 日

文學的人生論

趙 演 鉉

1. 時間의 思想

시간적 관념에는 두개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 시간이용. 다른 하나는 역사적 시간이다. 전자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허무의 흐름이며, 후자는 과거와 미래를 가진 유한한 창조적 과정이다.

○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이며, 이미 경험한 기지(既知)의 세계며, 그러므로 해서 하나의 종결된 세계다. 미래는 장래에 실현될 사실이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며, 그러므로 해서 하나의 새로이 시작될 세계다.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는 영원히 또한번 되풀이될수 없는 지난날의 삶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새로이 살아볼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애석히 추모하기도 하고, 미래를 열렬히 희망하기도 한다. 미지의 불안한 세계에 투입하기보다는 기지의 안정된 세계속에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지의 종결된 세계에 안주하기보다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에 돌진해 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자는 과거의 추억속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요, 후자는 미래의 희망속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다. 문학상에 나타난 고전주의적인 경향은 전자에 기초된 것이며, 낭만주의적인 경향은 후자에 기초된 것이다. 그러나 정말 과거는 그와같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세계며, 새로이 시작될 미래의 삶일까.

○
우리가 과거를 애석히 추모하고, 미래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과거와 미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세계거나, 아직 오지 않은 세계는 아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애석과 희망이 있는 이상,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 된다.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슬픔은 남아있고, 지난날의 사

랑 때문에 아직도 즐거움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과거는 벌써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에 살아있는 것이
며,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 때문에 현재가 즐겁고 유쾌하다면, 이와는 반대로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현재가 어둡고
초조하다면 이것은 아직 오지않은 미래가 이미 현재와 있는것이 된다. 한번 살아지면 다시 되풀이 될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현재에 살아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가 현재에 이미 와 있다는 이러한 시간의 초월과 비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
해 질수 있었던 것일까.

○
과거나 미래가 아무리 자연적시간이 아닌 역사적시간이라 할찌라도 과거를 추억할수 있는 기억력과, 미래를 전망할수 있는
상상력이 없다면, 과거도 미래도 실질적으로는 존재할수 없다.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세계로서 형성시키고 있는 것은 지나간 실
제의 사실도 아니며, 장래에 실현될 세계도 아니다. 과거가 존재하는 것은 지나간 실제의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하지
않은 기억력 때문이며, 미래가 존재할수 있는 것은 명일(明日)을 구성해 낼수 있는 상상력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기능이 없
는 사람에겐 과거는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상상상의 기능이 없는 사람에겐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은 과거란 사실이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기억의 세계」이며, 미래란 장래에 실현될 사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상상의 세계」라는 말이된다.
기억력이 풍부한 사람에겐 풍부한 과거와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겐 풍부한 미래가 있다고 말할수 있는 것은 결코 그
못된 말이 아니다.

○
과거가 「기억에 의존된 세계」요, 미래가 「상상에 의존된 세계」라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기억에 의존된 과거」는 「정
확한 과거」가 아니며, 「상상에 의존된 과거」는 「정확히 실현될 장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이 사실 그대로가 아닌것은 기
억의 세계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선택된 사실이며 또한 기억은 때로 사실을 개변(改變)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
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회상해 보라. 자기의 전 생애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알것이다.
그렇게 기억된 자기의 생애가 자기가 살아온 실제의 생애와 얼마만치 다른가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일이다. 흔히 아름답고, 즐
겁고, 괴롭고, 슬펐던 일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일들보다 더 분명히 남아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남아

있는 여러가지 일들도 실제의 그것과는 달리 기억되고 있는 경우는 누나가 다 체험하고 있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상은 대개의 경우 그대로 실현되기보다는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상상적기능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상이란 그 실현보다도 실현의 가능성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는 그것이 사실과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의 문제임을 말 하는 것이 된다.

○
과거나 미래가 지나간 정확한 사실이거나 앞으로 정확히 실현될 사실이거나 또는 하나의 의미의 세계라면 그 의미를 창조해 내는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정신이다. 현재의 정신만이 기억과 상상의 기능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낼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은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순간순간에 과거가 된다. 현재란 단지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일 순간일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러한 기계적인 구분위에서 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과거는 그것이 미래이기도 하고, 미래는 그것이 과거이기도 하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점이거나 그 연속점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한꺼번에 와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현재의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시간속에서 과거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
우리는 흔히 전통과 이념을 말한다. 그리고 전통은 과거의 문제이며, 이념은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일 전통이 과거의 문제라면 전통은 이념이 될수없다. 만일 이념(理念)이 미래의 문제라면 이념은 또한 전통이 될수없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것은 전통은 항상 이념의 문제였고, 이념은 언제나 전통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족생성기의 신화는 대체로 그 민족의 전통을 구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신화는 그것이 어떠한 신화이든 과거의 사실로서가 아니라 미래에의 이념으로서 창작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은 이념에 의해서 발전된 것임을 말한다. 또한 어떠한 미래에의 이념도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두지 않은 이념이 아니라 환상이거나 공상이다. 이념은 그 실현의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환상과는 다른 현실적 체계이다. 이것은 이념은 전통에 의해서 창조된 것임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과 이념의 구체적인발현이 우

리의 생활이라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의 동시적인 시간위에 있는 것이 된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라는 시간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질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지나가버린 것에 대한, 다시는 또 한번 되푸리될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나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간 과거의 세계로 달리게 한다. 또한 새로이 시작될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 오지않은 미래의 세계로 달리게 한다.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두개의 심리적 방향은 더욱 강렬히 발휘된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개의 심리적 심정적 자세는 그 외형적 방법적 방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이념의 관계처럼 서로 동일한 창조적기능을 달성한다. 그렇다면 가장 깊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가장 높이 미래로 향하는 것이며, 가장 높이 미래를 갈망하는 길은 가장 깊이 과거로 향해가는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라는 유령의 포로가 되어 있다.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여론에 의해서 사고하는 생활이 그것이다. 습관은 결코 전통이 아니며 여론은 반드시 이념이 아니다. 우충(愚衆)은 이것을 모른다.

2. 눈의思想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그 얼굴이다. 우리는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곧 알아낸다. 손이나 발이나 그밖에 육체의 어느 부분도 사람마다 제가끔 다르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얼굴 이외의 육체의 다른 부분을 보지는 않는다. 그만큼 얼굴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그의 육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다. 그사람의 개성과 운명(運命)까지도 그의 얼굴에서 판단해온 동양의 고래로부터의 관습은 결코 까닭 없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

얼굴이 그사람의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눈은 그 얼굴을 대표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그 사람의 육체 전체를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얼굴을 본 것이며,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았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그 눈이다. 마의상서(麻衣相書)에 「天地之大도 託日月하여 以爲光일새 日月이 爲萬物之鑑하니 眼乃爲人 一身元日月」이라 적혀 있고

우리의 옛말에도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말이 있었던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얼굴로써 그 사람의 운명전체를 판단해온 관상학(觀相學)에 있어서도 눈을 육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시 되어 왔다. 눈은 코나 입과 마찬가지로 얼굴의 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적 기능(機能)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얼굴의 다른 여러 부분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그 사람의 운명전체를 지배하고 그의 한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눈뿐이다. 눈의 운명적 역량(力量)은 거의 八〇%나 보고 있는 것도 눈이 인간의 전체적 상징임을 말하는 것이 된다.

○
육체의 모든 부분은 그것이 어떤 기능의 기관이든 인간의 의지의 표현 아닌 것은 없다. 손발의 활동은 그러한 것의 대표적 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은 눈뿐이다. 입도 인간의 희미해락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기관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결코 눈의 그것처럼 미묘한 것은 아니다. 말(言語)은 인간의 가장 정확한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눈의 그것처럼 진실한 것은 못된다. 웃으면서도 눈은 슬픔을 말해 주기도 하고, 울면서도 눈은 즐거움을 말해 주기도 한다. 또한 눈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무한한 의미를 표현하며 조그만 변화로써 중대한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신비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一例로 되어 있지만 항상 그 이외의 미묘한 신비적 표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누구나의 일상(日常)의 눈이다. 고래(古來)로 많은 시인들이 그 애인의 눈의 비밀을 그 무엇 보다도 더 많이 노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눈은 무언(無言)의 언어이며 그 무언의 언어가 항상 설명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언어이기도 하다.

○
눈은 인간이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혼(靈魂)의 창문이다. 눈은 외부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넘어서다 보게 하는 유일한 창문인 동시에 자기의 영혼이 모든 외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기도 하다. 자기와 외부와의 일체의 교류는 이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눈은 항상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알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이 항상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알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

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나 눈은 항상 그 무엇을 호소하려고 애쓰고, 그 무엇을 찾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사람은 눈이 밝아야 한다. 광명속에서도 암흑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암흑속에서도 광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것과 한가지로 먼곳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눈처럼 그 시력(視力)의 성질에 차이가 많은 것도 없다. 보지 못한 수천년의 지난 역사를 투시(透視)하는 것도 사람의 눈이며,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눈이다.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利害關係)밖에는 보지 못하는가 하면 천년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눈이다. 동물의 눈엔 이와같은 차이가 없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동물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인간은 가진 때문일까.

이 지상(地上)에는 수억만의 사람이 살고 있다. 아니 제가끔 다른 수억만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이 많은 눈들은 제가끔 공통의 어둠과 대낮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의 어둠과 대낮이 아니라 이 수억의 눈들이 제가끔의 어둠과 대낮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억의 하나 하나의 눈은 그것은 모두 하나 하나의 별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제가끔의 어둠과 대낮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언어(言語)나 문자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문학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수한 언어(言語)와 문자가 새로 발명 되고 새로 조직 되고 그리고 가단(間斷)없이 사용 되어도 어떠한 문자도 언어도 눈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눈 물 의 思 想

보 의과대학 안과(眼科) 학년말 시험에 눈물에 대해서 논술(論述)하라는 것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의과대학의 시험문제에 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눈물은 확실한 학적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눈물을 소재(素材)로 한 수많은 작품을 창작(創作)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눈물은 또한 가장 보편적(普遍的)인 문학적 대상이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눈물이 의학적 대상이 되는 것은 눈물이 병적현상(病的現象)으로서 취급되는 경우요, 눈물이

문학적 대상이 되는 것은 눈물이 인생문제(人生問題)로서 취급되는 경우이다.

전문적인 의학적 견지(見地)에서는 눈물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모르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눈알위에 있는 누선(淚線)에서 나오는 물. 알카리성의 반응으로 또는 정신의 감동으로 심한 자극을 받아서 생김」이라고 적혀 있다. 순진한 물질적 입장에서 본다면 눈물이란 인체(人體)에서 나오는 액체(液體)의 일종일 뿐이다. 그러나 이 액체가 의학적이든 문학적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가지에 있다. 즉 그 하나는 누선을 자극하는 원인의 성질이요, 그 또 하나는 그 원인의 성질은 무엇이든 눈물이 정상적(正常的)인 것인가, 이상적(異常的)인 것인가 하는데 있다.

○

인체에서 생겨나는 액체의 일종인 눈물이 의학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눈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見解)에서이다. 그 하나는 모든 눈물을 병적현상으로 보는 견해요, 그 또 하나는 이례적(異例的)인 눈물만을 병적으로 보는 견해다. 전자에 있어서는 눈물이란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다. 슬프거나 반가움거나 해서 흘리는 눈물도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는 전자와 같은 경우의 눈물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눈물은 병적 현상이 아니다. 아무런 감정적 충동이 없어도 눈물이 흐른다는지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함부로 눈물이 흐른다는지 하는 경우만이 병적현상으로 취급된다. 의학적 견지에서 눈물을 병적현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이 후자의 경우를 말할이다. 경우를 말할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많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하면 대개 인생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눈물이라고 하면 대개 인생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동안 눈물은 늘 문학적인 대상으로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

눈물의 원인이 정신적인 충격에 있는동안 그것이 의학적 대상이기 보다는 문학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견해다. 그러나 현대의 학은 그러한 눈물까지도 결코 문학분야에 양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정신적 충동의 결과인 이상 정신적 충동도 의학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특징의 하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精神分析學)은 바로 이 방면의 의학은 아니었던가. 물질적 입장에서 보면 한방울의 액체에 지나지 않는 눈물이 정신적 충격의 결과라면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정신의 충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문학이든 의학이든 다 같은 과제(課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신적 충격이 바로 인생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면 의학은 육체나 정신의 병만이 아니라 인생문제 까지도 치료해 줄수있는 과학이어야 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발달은 의학이 인간의 육체에 갇혀있지 않는 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 갇혀있지 않는 병까지도 치료하는데 크게 성공시키고 있다. 각종의 정신병과 노이로제환자들이 정신분석학의 적용으로 정상으로 회복한 일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학의 능력(能力)과 인생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는 그 성질(性質)이 전혀 다른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행할수 있는 것은 인생문제 자체가 아니라 인생문제에 처한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에 관한 부분일 뿐이다. 아무리 발달된 정신분석학도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수는 없다. 현대의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인간의 역사(歷史)나 사회나 운명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과 심리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정신치료의 방면으로 아무리 발전되어도 눈물의 직접적인 원인인 인생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눈물은 아무래도 문학적대상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눈물이 문학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눈물을 홀리게한 여러가지 문제가 문학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보편적인 재료며 주제(主題)인 文壇에서 이다. 그러면 눈물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상징해 주고 있는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동기와 원인은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구체적인 확실한 이유 없이 흘리는 감상적(感傷的)인 소녀의 눈물이나 젖을 요구하는 어린 아이의 눈물로 부터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눈물, 슬픔으로 인한 눈물, 지나친 즐거움으로 인한 눈물, 너무 많이 웃었기 때문에 또는 하품으로 인한 눈물등에 이르기 까지 실로形形色색의 눈물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눈물중에서 눈물의 인생적 의미를 대표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다. 소설이나 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할때 그 문학적 수사용어(修辭用語)로서 항상 눈물이 이용되는 것은 실제의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슬픔과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슬픔과 즐거움, 이 두개의 감정적 심리적 충격은 그 성질에 있어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다. 전혀 그 성질이 반대되는 이

두개의 감정적 심리적 충격이 눈물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이것은 그것이 슬픈이든 즐거움이든 눈물은 정신적 충격의 산물(產物)인 까닭에서이다. 평범한 슬픔이나 기쁨보다는 심한 슬픔이나 기쁨이 더 많이 눈물을 자아내게 되는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눈물은 인간의 심한 슬픔과 심한 기쁨을 상징 또는 대표하는 것인가. 동일한 한개의 물질이나 현상이 물론 여러가지 의미를 상징해 줄수는 있지만 정반대 되는 두개의 의미를 꼭 같이 상징해 줄수는 없다. 눈물은 심한 슬픔이거나 심한 기쁨이거나 그 어느 하나를 대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볼수 있는 유행가(流行歌)의 한구절이 영화(映畵) 또는 연극(演劇)의 선전문속에 「눈물의 주인공」 「눈물의 사랑」 「눈물의 천리길」 등으로 나올때 이런 경우의 눈물이 비극 또는 불행을 상징해 주는 용어라는 것을 본다면 눈물은 심한 기쁨이 아니라 심한 슬픔을 상징 및 대표하는 정신의 슬어(述語)임을 알수 있다. 눈물은 심한 기쁨과 심한 슬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심한 슬픔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는가. 이것은 눈물이라는 액체의 죄(罪)가 아니라 심한 즐거움보다는 심한 슬픔이 더 많은 인생자체에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

눈물이 인생의 심한 슬픔을 상징하는 정신의 신호라면 그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가지가지의 슬픔을 겪는 일이라고 한다면 눈물은 남녀노소(男女老少)를 초월한 인간의 누구나의 속성(屬性)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눈물을 흘리는 일이 적은 것은 무슨 까닭에서일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슬픔은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슬픔이 적은 까닭에서일까.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더 슬픔이 많은 것은 인생에 대한 경험(經驗)의 범위(範圍)와 책임의 한계(限界)가 나이 어린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넓고 무거운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슬픔이 적을 나이 어린 사람이나 여성이, 슬픔이 더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남성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

눈물이 시나 소설에 있어 문학적인 수사로서 많이 이용되는 것처럼 눈물은 정신의 「수사인」 경우도 있다. 첫울음을 우는 어

린 아이들의 눈물, 초상난 집안에서 흔히 볼수있는 상주(喪主)들의 눈물, 이러한 눈물은 절실한 슬픔에서 보나도 절실한 슬픔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눈물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이와 같은 수사적인 눈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사적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어쩔수 없는 절실한 감정에서만 눈물은 흘러진다. 그리고 수사적인 눈물이, 남성에겐 여성보다 훨씬 적다. 눈물로서 우는 것이 여성의 슬픔이라고 한다면 눈물없이 마음속으로 우는 것이 남성의 슬픔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눈물은 깊은 또는 절실한 슬픔 그 자체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표현적(表現的)인 상징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눈물의 통속성(通俗性)과 감상성(感傷性)이 있다. 인간의 슬픔을 상징하는 눈물이란 용어가 유행가나 통속소설의 가장 많은 어휘(語彙)가 되는 것을 보라.

눈물이 아무리 인간의 심한 슬픔의 표현이라해도 눈물을 흘릴수 있는 동안 그 슬픔은 치명적(致命的)인 것은 아니다. 치명적인 슬픔은 그것을 표현할수도 없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슬픔이다. 이러한 슬픔에는 눈물이 없다. 눈물을 흘릴수 있는 슬픔이란 아직도 해결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슬픔이다. 곧잘 우는 어린아이들의 눈물이나 조그만 일에도 곧잘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의 슬픔은 그다지 중대한 일이 못된다. 유행가나 통속소설의 주제 처럼. 그러나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다. 이러한 슬픔만이 항상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물로서 표현되는 인생의 슬픔은 곧잘 발견되어도 이러한 슬픔은 모든 개개인의 가슴속에 파묻힌 모든 개개인의 양심처럼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4、戀愛의 思想

서로 연애하는 부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또한 서로 연애 할수 없는 부부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연애는 가정의 형식으로서도 이루어질수 있고, 외도(外道)의 형식으로서도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반드시 행복하고 후자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전자가 반드시 정상적이며 후자가 반드시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떠난 순수한 사모의 정(情)이 연애의 한 형식일수 있다면 정신적인 것을 완전히 떠난 육체적의 음욕(淫欲)도 또한 연애의 한 형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연애란 푸라토넨한 소녀의 한 정서로부터 첼(妻)을 둔 五〇代의 정력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하고 광범한 여러가지 형식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배아도릿체에 대한 탄태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연애의 한 표본처럼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구(不具)의 애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창가(娼家)에서 하루밤의 육체를 매득(買得)하는 사람의 애정이 불구인 것과 같이…….

완전한 연애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한꺼번에 충족됨으로써 성립된다. 「나는 정신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보이지 않는 정신만을 믿는 것은 창부의 육체를 믿는 것과 꼭 같이 연애의 불구성(不具性)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처녀의 육체적인 순결을 미화하고 창부의 육체적인 오탁(汚濁)을 더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정조에 대한 봉건적인 관념에서가 아니라 정신의 미학사(美學者)들이 정조라는 위대한 이상을 육체에만 부여하고 정신에는 그것을 빠트린 중대한 과오의 결과에서이다.

불륜(不倫)을 범할수 있는 것은 언제나 육체이지 그 정신은 아니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 못된다. 정조라는 관념이 육체의 과오를 방지하는 미학이라면 이것은 정신의 과오를 방지하는 미학이기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정신처럼 그 산보가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창부의 불행은 그들이 육체가 상품화(商品化) 되었다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불행은 처녀의 정신적인 산보처럼 그들의 육체의 산보가 정당하게 이해되지 못한 곳에 있다. 「쑈ー니아」의 신성은 「도스도엠프스키」가 그의 육체의 오탁을 구원할 때문

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도스도엡스키」에게 정당하게 이해 되었던 결과일 뿐이다.

○ 불은 연애의 「코론타이」도 육체를 정신과 같이 해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정신의 미학을 거부하는 동시에 육체의 미학도 거부한 생리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연애란 동물적인 성교(性交)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해방이 정신의 무제한(無制限)한 간음(姦淫)과 함께 연애의 정당한 윤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 연애는 어떻게 보면 정신의 성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육의 형이상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애에서 어떤 윤리적인 것을 설정해 보려고 하는 것은 「코론타이」의 생리주의와 함께 인간의 또 하나의 다른 본능이다. 이 두개의 본능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다.

○ 연애란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모색(模索)의 과정이요 추구의 형식이다. 이것이 연애의 윤리학이다. 이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연애하는 인생은 시작된다.

○ 그의 사랑하는 대상이 그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경우! 그것이 정신적인 산보는 육체적인 산보는 이러한 연애처럼 아기가 기하고 위험한 불장난은 없다. 이러한 연애때문에 그의 의무와 책임을 잊어버려 보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남편을 속여 보지 못하고 손대서는 안될 공금(公金)을 유용(流用)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행복자는 없다.

○ 연애는 그것이 어떠한 형식의 연애이든 그것이 진실한 것일 때에는 언제든지 정당한 행위가 된다. 그것은 진실은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 旅行의 思想

여행은 즐겁다. 유람이나 탐승(探勝)의 여행이 즐거운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일정한 용무 때문에 떠나는 여행도 여행중의 피로나 용건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역시 즐거운 것은 있다. 이러한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의 목적이나 여행시간의 장단(長短)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통되는 여행에 대한 누구나의 일반적인 심리적경향이다.

○ 여행이 즐거운것은 대개 두가지의 심리적 방향에서 유발(誘發)된다. 하나는 일상의 자기의 생활로 부터 해방되는 기쁨이요, 그 또 하나는 미지의 다른 생활속에 들어가 보는 기쁨이다. 전자는 이를테면 일종의 의무로 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며 후자는 이를테면 일종의 모험에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인간은 항상 그러한 행방과 출발을 소망해온 탓에서 일까?

자기의 일상의 생활로 부터 또는 자기가 그것에 얽매어 있는 의무로 부터 해방되어 보고싶은 의욕이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부터 떠나보고 싶은 의욕이 아닐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에의 의지는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자기자신으로 부터의 해방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미지의 다른 생활에 대한 모험의 의욕이란 그것은 자기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기대가 아닐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에의 의지는 새로운 자기자신을 발견해 보려는 일종의 심리적 감정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개의 심리적 심정적 방향은 두개의 별개의 방향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방향이라는 점(點)이다. 즉 묵은 자기로 부터의 해방의 의욕이나 새로운 자기를 발견해 보려는 의욕이나 그것은 다같이 새로운 자기를 갖고 싶은 의욕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여행이란 새로운 자기를 찾아가는 행위는 아니었던가.

○ 여행엔 반드시 일정한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 그 출발점은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이요 그 도착점은 새로운 자기 자신이다. 적어도 여행의 심리적 심정적 동기에서 본다면 여행은 그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인들은 출발의 장소와 도착한 장소가 있을뿐 출발할 때의 지금까지의 자기나 도착한 때의 새로운 자기를 알지 못하고 만나. 이러한 여행은 진정한 여행의 경험

이 아니다. 케에테는 그의 이태리 기행에서 「내가 로마에서 본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행인들이 여행에서 자기 이외의 것만 견문(見聞)해 온데 비해서 케에테는 자기 이외의 것에서 자기들 보았던 것이다. 여행이 자기를 찾아가는 행위라면 항상 인생을 옮겨 보아온 케에테는 여행도 옮겨 할 줄 알았던 드문 사람이었다.

○ 흔히들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 목적의 수행이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고 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여행의 목적이나 혹은 그 목적지는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에 있어서는 단지 그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 할때의 기대와 감동! 여행 도중의 불안과 긴장! 그리고 돌아올때의 적막과 허탈(虛脫)! 이러한 각종 각색의 감정적 심리적 교착이야말로 여행의 즐거움을 구성해 주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출발할 때의 기대와 감동이 크면 클수록 돌아올 때의 적막과 허탈은 더하다. 왜 여행은 이와같은 기대와 감동 또는 적막과 허탈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것은 여행은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의 편력(遍歷)이었던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결코 진정으로 흥분하지 않는다) 편력(遍歷)은 그것이 항상 회의(懷疑)와 진행(進行)의 한 형식인 점에 있어 그것은 언제나 일종의 과정(過程)이다.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 그 과정속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 인간의 매일 매일의 생활은 그 감정적 심리적 방향에 있어서나 그 실제적 현실적 방향에 있어서나 여행의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활을 벗어나려는 의욕과 새로운 자기의 생활을 개척해 보려는 욕망은 누구나의 공통적인 심리적 심정적 요소이며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환경과 조건속에서 창외(窓外)에 전망되는 차층의 풍경과 같은 변화를 보고 있는 것도 누구나의 일상의 경험이다. 회비애락의 온갖 감정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조우(遭遇)되어 오는 것도 그러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여행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 자신과 조우(遭遇)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 여행의 목적이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보다도 그 과정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정한 목표보다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는 처음 부터 분명히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러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선 살아가는 일이었다. 계율규의 「제이의 기회」의 주인공 처럼 「내일 원자탄이 나의 머리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는 능글 나무를」 심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여행이든 그 여행의 과정을 마음껏 즐겨야 한다.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언제나 가장 옳은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리켜 줄 것이다.

6. 變節期の 思想

계절이 바뀌지는 한 기간을 우리는 계절기 또는 변절기라고 한다. 이 변절기라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이때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념이다.

○ 변절기의 특징은 그것이 무성격(無性格)한 계절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여름도 가을도 봄도 겨울도 아닌 계절이다. 계절의 성격이 춘하추동(春夏秋冬)에 있다면 변절기란 그것이 어느때의 변절기일지라도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는 데 있다. 여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하고 봄 같기도 한 그러한 애매한 성격이 변절기의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절기는 언제나 과도적(過渡的)인 잠정적(暫定的) 계절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가려는 중간적 계절이다. 그러나 이 중간적 계절은 그것이 무성격하고 또한 춘하추동처럼 일정한 기간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어느새 왔다가 어느새 가는지 알수 없. 리만큼 지극히 짧은 순간적인 시간이므로 변절기는 그것이 무성격한 계절인 동시에 또한 과도적인 잠정적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 변절기가 무성격한 잠정적 계절이라는 것은 변절기가 불안의 계절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안정이란 것이 대체로 성격화된 것 또는 고정화된 것을 기초로 하고 형성된 상태라면 불안이란 성격화되지 못한 부동적(浮動的)인 기초위에 형성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절기의 불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로서 우리 인간에게 표현된다. 그 하나는 질병이 유행하는 일이고 그 또 하나는 감정이 표류하는 일이다. 변절기가 되면 각종의 질병이 유행해온 일은 우리가 해마다 보아온 사실이며 변절기가 되면 누구나 조금씩은 그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은 성(性)과 연령을 초월한 누구나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전자는 변절기의 불안이 육체상으로 표현된 경우요 후자는 변절기의 불안이 정신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 변절기가 하나의 불안의 계절로서 육체상의 질병이나 정신상의 허황한 표류로서 나타나기 쉬운 것이라면 변절기는 또한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련(試鍊)의 계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익숙 되어온 모든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적응(適應)의 변화에 서 육체나 정신이 병들기 쉽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시련은 바로 변절기의 인간의 노력이어야 한다. 사라져가는 환경에 적응되어 온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새로이 울 환경에 적응시킬 것인가. 이 노력은 변절기의 추이과정(推移過程)이 미묘하고 복잡할수록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공정(工程)이 필요해질 것이다.

사라져가는 계절에 대한 애착이나 미움에서 새로이 울 계절을 빨리 독촉하거나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새로이 울 계절에 대한 기대와 공포 때문에 사라져가는 계절을 빨리 밀어내거나 붙잡아 두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코 운명에 대한 부종의 자세는 아니다. 현명한 것은 사라져 가는 계절의 사라지는 진도와 새로이 오는 계절의 다가오는 진도를 정확히 알고 조심성 있게 이에 적응하는 일이다. 이 조심성이 결핍되면 육체나 정신의 고장이 발생할 것이다.

○ 일년사계(一年四季)의 사이 사이에 빠짐없이 변절기가 개재되어 있듯이 인류의 모든 각 시대도 빠짐없이 변절기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과도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시대가 바로 그것이었다. 「現代」라는 시대는 어느편이나 하면 그러한 과도기의 일종이며 과도기가이기 때문에 현대는 일종의 변절기이기도 하다. 지금 全人類는 그러한 변절기에 있다. 우리 한국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세계사(世界史)적인 변절기와 일제(日帝)로 부터 독립된 민족적인 변절기와—— 이러한 이중의 변절기속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일은 다른 어느 사람의 그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 있다.

○ 변절기는 지나가는 계절의 청산의 시간이고, 닥쳐오는 계절의 준비의 시간이다. 청산이 잘못되면 후한이 있는 법이요, 준비가 잘못되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변절기를 잘 넘긴다는 것은 무성적한 잠정적인 계절을 무사히 넘긴다는 것 보다도 청산과 준비를 읊게하는 의미가 더 큰것이 된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이중의 변절기로 인하여 이중의 청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변절기마다 질병과 바람정이기 유행하는 것을 보면 변절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중의 위험의 계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변절기를 맞이하는 일이다.

詩

悅樂

柳致環

飢渴스러운 어울려 봄바대던 하루의 애달픈 人間 營爲가 落日의 寂막한 餘光과 더불어 否定
의 蜃樓으로 멀리 쓸쓸쳐 사위지고 나면 그 고독한 感想에 의로 남는 내 앞엔 하마한 壯嚴한 문이
열리나니.

그것은 청맹처럼 잊은채 해마다 돌아온 聖스런 大伽藍의 소리 없이 재껴진 소스라 높은 黑檀의 門扉!

알 수 없는 悔悟의 安堵와 畏敬의 祈願으로 여기 발 들이랴이면 四方 무거운 恫容단 장막으로 아늑
히 둘러 가린 심오한 殿堂, 우릴으면 深淵 같은 궁중에 찬란히 이루어 눈짓하는 權能의 영광인 역조의
별빛들—

보십시오, 내 결엔 나의 사랑한 伴侶가 그 그지없는 從順과 贈與로서 종지자리 함께 하고 있어— 아
아 아까 하루의 그 애달픈 삶의 영위가 실상인즉 이 정스럽고 장엄한 자리에 참네할 노자를 마련키에
드린 차라리 눈물겨운 치성이 아니던가?

지금이야 나는 나의 사랑한 반려와 더불어 나를 다스리는 알 수 없는 지존한 이의 無言한 祝福과
심원한 默約의 지킴 아래 한량 없는 열락의 도취와 고희 속 悲願의 영원애로 可滅한 曠身하는
絶頂!

아아 내 귀엔 사방 萬千 청송의 讚歌소리가 나를 에워 낭랑히 울림하여 오는도다.

(東洋畫) 雪路. 李象範作



빈 면

文化保護法改正法律公布

檀紀四二八五年 八月七日 法律第二四八號로 公布된 文化保護法에는 條文上에 未備한 點이 있어 學・藝術院 運營上에 적지않은 支障을 招來하여 오든바 此를 改正하고자 改正案을 累次에 걸쳐서 國會에 上程하였던바 檀紀四二九〇年 十一月十三日 第三十六次 國會本會議에서 그 改正法律이 通過되어 同年 十二月二日자로 法律第四五九號로 政府에서 正式公布 하였 다。 그 改正法律의 要旨는 文敎部長官에게 登錄하는 文化人登錄制를 廢止하고 選舉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藝術院에서 制定하여 藏術院에 事務局을 두고 그 職制와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는것 등으로 되어있다。

文化保護法(改正法律)

(檀紀四二八五年 八月七日 法律第二四八號母法公布)
(檀紀四二九〇年 十二月二日 法律第四五九號改正公布)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法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科學者와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시킴으로써 民族文化의 創造發展에 功獻함을 目的으로한다。

第二條 本法에서 文化라함은 學問과 藝術을 말한다。

第二章 學 術 院

第三條 學問의 向上發展을 圖謀하고 科學者를 優遇하기 爲하여 學術院을 設置한다。

學術院은 文敎部長官이 管理한다。

第四條 學術院은 國內外에 對한 科學者의 代表機關으로서 科學의 發展 또는 그 活用に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科學研究의 振興助成에 關하여 政府의 諮問에 應하고 또는 政府에 建議한다。

第五條 學術院은 左의 八十人以內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一、第七條의 科學者에 依하여 選舉된者 五十人。

二、學術院의 會員에 依하여 推薦된者 二十人以內。

三、學術院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者 十人以內。

會員의 任期는 三年으로한다。但會員에 依하여 推薦된 會員의 任期는 六年 大統領이 任命한 會員의 任期는 終身으로한다。

第六條 會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 手當 또는 年金을 받는다。

第七條 科學者로서 左의 資格의 一을 가진者는 會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一、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를 卒

業한 者로서 三年以上 學術研究에 從事한者。

二、其他學術研究의 經歷 十年以上의者。

第八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選舉權이 있는 者는 學術院에 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資格이 認定되어야 選舉權을 行使할 수 있다。

選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學術院이 定한다。

第九條 學術院에 會長一人과 副會長二人을 둔다。

會長은 會員中에서 互選한다。

副會長은 人文科學部와 自然科學部에 屬하는 會員中에서 各

一人을 그 部の 會員이 互選한다。

會長 副會長의 任期는 一年으로한다。

但再選될수있다。

第十條 會長은 院務를 掌理하고 學術院을 代表한다。

副會長은 院務를 掌理하고 學術院을 代表한다。

命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一條 學術院에 左의 二部를 둔다。

第一部 人文科學部。

第二部 自然科學部。

會員은 兩部の 一에 分屬하고 各部의 定員은 各四十人 以內로한다。

第十二條 各部에 分科會를 둔다。

分科會의 區分과 定員은 各部가 定한다。

第十三條 各部에 部長一人 分科會에 分科會長 一人을 두고 部長과 分科會長은 그 部科에 屬하는 會員中에서 互選한다。 部長과 分科會長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再選될수 있다。

部長과 分科會長은 그 部와 分科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十四條 學術院의 會議는 總會 部會와 分科會로한다。 總會는 學術院의 最高議決機關이며 會長 또는 會員의 三分의 一以

상의 要求에 依하여 召集된다。 部會와 分科會는 部長 또는

分科會長이 召集한다。

總會의 議決은 會員의 三分의 一 以上の 出席과 出席會員의 多數決에 依하여 行한다。

部會와 分科會의 會議에 關하여서도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五條 學術院에 事務局은 둔다。

事務局의 職制와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十五條二 本法이 規定하는 外에 學術院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學術院이 定한다。

項은 學術院이 定한다。

第三章 藝術院

第十六條 藝術의 向上發展을 圖謀하고 藝術家를 優遇하기爲하여 藝術院을 設置한다。

藝術院은 文敎部長官이 管理한다.

第十七條 藝術院은 國內外에 對한 藝術家의 代表機關으로서 藝術의 研究와 發展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藝術作品의 製作과 研究助成에 關하여 政府의 諮問에 應하고 또는 政府에 建議한다.

第十八條 藝術院은 左의 四十人以內의 會員으로서 構成한다.

一、第十九條의 藝術家에 依하여 選舉된者 二十五人.

二、藝術院의 會員에 依하여 推薦된者 十人以內.

三、藝術院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者 五人以內.

會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바에 依한 手當 또는 年金을 받는다.

會員의 任期에 關하여서는 第五條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九條 藝術家로서 左의 資格의 一을 가진者는 會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一、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를 卒業

하고 三年以上 藝術의 經歷을 가진者.

二、其他 藝術經歷 十年以上の者.

藝術家の 選舉權行使와 選舉에 關하여서는 第八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二十條 藝術院에 會長一人과 副會長一人을 둔다.

會長과 副會長은 會員中에서 互選한다.

會長과 副會長의 任期는 一年으로한다. 但 再選될수 있다.

第二十一條 會長과 副會長의 職務에 關하여서는 第十條를 準用한다.

第二十二條 藝術院에 分科會를 둔다.

分科會의 區分및 定員은 藝術院이 定한다.

第二十三條 分科會에 分科會長一人을 둔다.

分科會長은 그 分科會에 屬하는 會員中에서 互選한다.

分科會長의 任期는 一年으로한다. 但再選될수있다.

分科會長은 分科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二十四條 藝術院의 會議는 總會와 分科會로한다.

會議에 關하여서는 第十四條 第二項과 第三項을 準用한다.

第二十五條 第十五條와 第十五條의 二의 規定은 藝術院에 準用한다.

第四章 文化的 推獎

第二十六條 學術院과 藝術院은 學問 또는 藝術에 關하여 優秀한 研究 또는 作品을 製作하였거나 또는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 授賞할수있다.

前項의 授賞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學術院과 藝術院에서 選定한다.

第二十七條 政府는 科學 되는 藝術에 關한 優秀한 研究 또는 作品을 完成한 者에 對하여 授賞表彰할 수 있다.

第二十八條 政府는 學術院 또는 藝術院의 建議에 따라 學問 또는 藝術에 盡力하는 科學者 藝術家 또는 그 團體에 依하여 獎勵金 補助金 또는 功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政府는 健全한 藝術發展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劇場의 運營 또는 藝術의 公演에 關하여 藝術院의 決議를 얻어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三十條 本法施行에 必要하는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附 則

本法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最初로 會員을 選出함에 있어서는 第五條 第一項 第二號와 第三號의 會員은 同條 第一項 第一號에 依하여 選出된 會員이 推薦 또는 提請하고 第十八條 第一項 第二號와 第三號의 會員은 同條 第一項 第一號에 依하여 選出된 會員이 推薦 또는 提請한다.

附 則

(檀紀四二九〇年十二月二日 法律第四五九號)

本法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二代一般會員選舉狀況

檀紀四二八七年 三月二十五일에 初代藝術院會員이 選舉된後 檀紀四二九〇年 四月五日로 會員中 三年制의 一般會員이 任期가 滿了된에 따라 文化保護法 第十五條에 依據하여 第二代 一般會員을 檀紀四二九〇年 四月一八일에 學・藝術院이 合同으로 全國十五個所에서 文化人에 登錄된 有權者들이 選舉를 하였다. 그 狀況은 大略 다음과 같다.

一、文化人登錄

文化保護法 第十九條에 該當한 藝術家로서 아직 登錄을 하지 않은 分들을 빠짐없이 登錄시키고자 檀紀四二九〇年 二月 一七日字로 新聞과 라디오를 通하여 널리 公告하여 文敎部 藝術課에서 申請書를 接受하였던바 그 申請者는 五十六名에 達하였다.

二、登錄申請者資格審査委員會囑

文化人登錄公告에 따라 그 登錄을 申請한 文化人의 資格을 審査하기 爲하여 藝術分野 各界의 權威者 七名을 審査委員으로 選定하여 文敎部長官이 委囑하였는데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朴鍾和、玄濟明、盧壽鉉、李鍾禹、李珠煥、朴珍、李軒求、

三、選舉委員會囑

全國 十五個所에서 實施되는 選舉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藝術院會員中 任命 및 推薦會員과 文教部와 서울市敎委 局課長
級職員 地方廳의 文教社會局長級 人士들을 三十五名 選舉委
員으로 檀紀四二九〇年 二月二十八日字로 委囑하였다.

四、選舉日公告

選舉規程 第二條의 依據하여 藝術院 第二代 一般會員 選
舉日을 四十日前인 四二九〇年 四月十八日(木) 自上午八時
至下午五時로 決定하였음을 各 新聞紙上에 公告하였다.

五、審查委員會召集

接受된 文化人登錄申請者 五一六名을 審査하고저 委囑된
審査委員 七名을 檀紀四二九〇年 三月十五日에 文教部次官室
에 召集하고 連二日間에 걸쳐서 慎重審査한 結果 五一六
名中 文化人에 登錄된者 二八八名 保留者 二二八名으로 約
五六%가 合格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審査하기 前에 이미 登錄된 文化人 登錄
者 四四三名과 새로된 二八八名을 加算하면 合計 七三一名

이 되고 이들이 會員을 選舉하는 有權者로 되나.

六、投票場所公告

四月十八일에 實施된 藝術院一般會員 選舉에 있어 選舉規程
第十一條에 依據하여 投票場所 公告를 投票日 三十日前인
三月十六日字로 全國十五個所 投票場所를 新聞紙上에 公告
하다.

七、選舉實施

檀紀四二九〇年 四月一八日를 期하여 全國十五個所 投票에
서는 選舉委員 立會人 參觀人 等이 參席한 가운데 第二代
一般會員 選舉를 無事히 完了하고 地方投票函은 即時로 서
울로 移送되어 서大學校에 保管되나.

八、開票結果

檀紀四二九〇年 四月二十三日 上午八時부터 서울大學校大講
堂에서 選舉委員 參觀人 立會人 等多數 參席한 가운데
十五個投票函을 點檢한後 開票한 結果에 새로 當選된 第二
代一般會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第二代一般會員當選者名單(二五名)

○文學分科 (七名)

徐延柱 柳致環 黃順元 金末峰 李軒求 郭鍾元 毛允淑

○美術分科 (七名)

盧壽鉉 都相鳳 裴潏 金煥基 裴吉基 金仁承 尹孝重

○音樂分科 (六名)

林元植 金元福 李珠煥 鄭勳謨 金永義 李興烈

○演藝分科 (五名)

李海浪 金東園 卞基鍾 李光來 徐恒錫

九、當選者公告 및 當選通知

開票한 結果 當選된 二五名의 藝術院會員(一般會員) 名單

을 新聞 및 라디오를 通하여 公告하고 當選者 個人에게 當

選通知書를 보내다.

映畫上 映製作에 關한 倫理的 規程

(文敎部諮問에 應하여
藝術院에서 採擇된案)

머리 말

娛樂으로서의 映畫의 價値는 이미 一般的으로 널리 認識되
여있다.

映畫의 易動性과 傳播普及의 容易性과 지이 無制限으로 作
成할수 있는 複製의 可能性은 映畫의 本質적인 具像性과 享受

方法의 簡易性과 함께 映畫를 短時日內에 가장 強力하고 廣
範圍하게 影響을 주는 大衆藝術도 成長發展시켰다.

映畫는 年齡의差異 教育의程度 文明과 未開의 區別없이 人
類社會의 各界各層으로 浸透하고 人間生活의 모든 面에 直接
的으로 參與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現狀에서 우리는 娛樂으로서의 映畫가 지닌 道德的
責任과 그 重大性을 再認識하지 않을수 없다.

娛樂施設이 不足하고 아직도 文盲이 적지않은 우리 國情에
비추어 우리는 映畫의 重大한 役割을 特히 強調하여 映畫에
對한 國民의 信賴感과 國民生活에 끼치는 道德的影響과 務義
를 背反하거나 또는 忘却하지 못할것이다.

國內의 映畫製作者와 輸入業者는 이런 意味에서 國民의 精
神的 道德的向上과 보다 높은 社會生活形式의 確保와 올바른
思考와 判斷을 爲한 直接的인 責任을 져야 하는것이다.

映畫는 또한 人間의 思想과 感情과 經驗을 表現하고 이것
을 通하여 心靈에 呼訴한다는 點에서 다른 部門의 藝術과 同
一한 구실을하고 同一한 目的을 가지고있다.

映畫는 단지 娛樂의 媒介로서 만으로 그 구실을 고칠것이
아니라 우리 國民에게 不動의 生活指針을 提示하고 아울러 우
리 憲法에 規定된바와 같이 自由에 基礎를 둔 國民의 基本的
權利와 福利를 確保하고 나아가서는 自由友邦과의 平和과 友誼

와 協同을 維持하기 爲하여 誠實한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것이다。

이 理想과 目的을 實現함에는 民主主義의 見解에 없나는 것은 映畫事業에 從事하는 者에게 있어서 不變의 信念일 것이 다。 이러한 見地에서 映畫人(製作配給業者)은 國民의 道德感을 低下시키거나 基本的인 人間權利에 違背되는 作品 또는 社會 秩序를 毀妨하거나 民主主義精神에 反對되는 思想을 作品內容 으로는 어떠한 映畫의 製作 및 輸入도 이를 勇敢히 拒否하여 야 할것이다。

이제 全體映畫製作者 및 事業家는 그들에게 負荷된 重大한 責任과 義務는 再確認하고 그들의 課題와 目的에 對한 一般 大衆과 指導層의 同情的理解와 協助精神을 獲得함으로써 映畫 를 보다 健全한 娛樂藝術로 發展시키고 結果적으로 全體國民 生活를 보다 높은 水準으로 向上시킬 機會를 얻었다。

本藝術院은 위에 敘述한바 映畫事業의 基本精神을 提高하는 同時에 이러한 稱極的인 目的達成을 爲한 努力을 阻害할 憂慮가 있는 모든 要素를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다음 各項에 進친 道德的인 規定을 關係當局과 業者에게 提案하는 바이다。

檀紀四二八九年八月 日

藝 術 院

總 則

- 一、國憲을 冒瀆하고 國家威信을 損傷하며、友邦과의 友誼를 毀損하는 作品은 禁止한다。
- 二、社會秩序를 紊亂케 하고 公安의 維持를 破壞하는 作品은 禁止한다。
- 三、法을 嘲弄冒瀆하거나 또는 이러한 感情을 挑發하는 作品은 禁止한다。
- 四、觀客의 道德的基準을 低下시키거나 또는 觀客으로 하여금 犯罪行爲와 罪惡에 對하여 同情과 共感을 惹起케 하는 作品을 禁止한다。
- 五、모든 作品은 健全한 娛樂을 通하여 人生生活의 올바른 指針을 提示하도록 留意 하여야 한다。

細 則

一、國家와 社會

1. 大韓民國의 憲法을 尊重 하여야 한다。
2. 大韓民國을 嘲弄하거나 그 民族性을 誹謗하여서는 아니된다。

3. 國旗와 國歌를 使用할 때에는 항상 敬虔하게 이를 取扱하여 한다.

4. 民主主義에 違背되는 思想을 作品內容으로 採擇할 수 없다.

5. 他民族의 慣習 및 民族感情은 이를 尊重하여 한다.

6. 어떤 民族과 國家를 莫論하고 그 權利 歷史 文物制度는 公正하게 取扱하여야 한다.

7. 大韓民國과 紛糾中에 있는 外國에게 有利한 宣傳을 內包한 것 또는 大韓民國과 友好關係에 있는 友邦에 對한 不利한 宣傳을 內容한 作品은 禁止한다.

8. 大規模의 暴動 또는 人間의 大量殺戮과 公安을 破壞할 明確한 危險性을 內包한 作品은 禁止한다.

二、宗教와 教育

1. 宗教의 自由는 어떤 境遇를 莫論하고 保障되어야 한다.

2. 宗教와 信仰이 故意的인 諷刺와 嘲弄과 또는 憎惡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故意로 聖職者를 嘲弄하기 爲하여 喜劇의 人物 또는 惡漢으로 取扱하여서는 아니된다.

4. 論爭中의 社會問題를 彈劾 또는 支持하기 爲하여 宗教를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

5. 類似宗教 또는 迷信을 除外한 一切의 宗教儀式은 注意깊고 敬虔하게 取扱하여야 한다.

6. 教育制度 및 教育者가 民主主義의인 境遇에는 이를 嘲弄하거나 冒瀆하여서는 아니된다.

7. 教育問題를 取扱함에 있어서는 그 描寫와 表現이 學童에게 주는 直接的인 影響을 慎重히 計量考慮하여야 한다.

三、法과 犯罪

1. 法과 正義를 尊重하여 法廷은 公平正當하게 表示되어야 한다.

2. 裁判 訴訟 및 其他 法的節次를 描寫함에 있어서는 正確을 期하여야 한다.

3. 法廷의 尊嚴性과 公正한 法執行이 嘲弄 또는 誹謗의 對象이 될 수 없다.

4. 編劇上 絕對로 必要하다고 認定되지 않는 限 法을 執行하는 公務員(公共建物の 守衛를 包含한)이 犯罪人에게 殺害되는 場面을 보여서는 아니된다.

5. 犯罪를 取扱할 때에는 格別한 注意를 要한다.

6. 法과 正義에 違反되는 犯罪人과 行爲가 觀客의 同情을 받거나 또는 觀客에게 이를 模倣코자 하는 衝動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 犯罪行爲가 그 方法과 技術을 觀客에게 가르키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8. 犯罪人을 正當化하거나 英雄化하여서는 아니된다.

現在 또는 最近까지 生存한 實際人物(惡人)의 生涯를 取扱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結局에 가서 犯罪人이 그 犯行때문에 處罰되는 境遇에는 許容될 수 있다.

9. 年少者가 犯罪에 加擔하거나 關聯됨으로써 年少觀客이 이를 模倣하여 그 道德性을 低下시킬 憂慮가 있다고 看倣되는 作品은 禁止한다.

10. 人命을 殺害하는 殘忍한 方法 및 場面은 探偵劇이나 미스터리(神秘)劇에 있어서도 最少限으로 制限한다.

11. 銃火器가 取扱되는 場面은 主題의 效果를 살리는데 以外에 不必要한 刺戟的 表現은 避하여야 한다.

12. 誘拐에 關한 스토리는 現代劇인 境遇 다음 條件下에서만 許容된다.

(가) 誘拐가 作品의 肯定的인 主題가 아닐것.

(나) 被誘拐者가 兒童이 아닐것.

(다) 誘拐의 經路와 方法을 細密하게 表示하지 않을것.

(라) 誘拐犯이 結果의 何等的 利益도 얻지 않을것.

(마) 誘拐犯이 結局에 가서는 處罰될것.

여기에서 「誘拐」라 함은 姦淫 또는 人質金을 目的으로

行하는 誘拐 不法拉致 및 不法抑留를 意味한다.

13. 竊盜 強盜 金庫破壞 鑛山 建物 交通機關의 爆破行爲 및 方法을 具體的으로 表示하여서는 아니된다.

14. 密輸方法 및 技術을 明示하여서는 아니된다.

15. 麻藥을 비롯한 不法藥品의 去來와 常習을 助長하는 方法을 示唆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劇發表와 性格描寫에 特히 必要한 境遇外에 酒類의 亂飲이 正當化 되어서는 아니된다.

17. 復讐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正當化되지 아니한다.

但 復讐行爲를 犯罪로 取扱하는 法的規定이 없는 地域을 舞臺로 하는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18. 自殺行爲는 劇의 性質上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正當化하거나 譽榮로운 行爲로 表現하여서는 아니된다.

四、性과 情慾

1. 性關係의 取扱은 結婚과 家庭 및 戀愛의 神聖을 冒瀆하지 않도록 格別히 留意하여야 한다.

2. 性交는 表示할 수 없다 近親間의 性交는 行動으로도 이를 暗示할 수 없다.

3. 三角關係를 取扱할 때에는 制度로서의 結婚을 反對하는 傾向으로 觀客의 心理를 誘導 하여서는 아니된다.

4、不義의 性交關係가 編劇上 必要한 材料인 境遇에도 이것을 具體的으로 表示하거나 또는 正當化하거나 魅惑的으로 取扱하여서는 아니된다.

5、強姦과 誘拐는 暗示以上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6、賣淫을 正當化하여서는 아니된다.

7、色情倒錯 變態性慾에 關聯되는 言動을 表示하거나 또는 含意하는 表現을 禁止한다.

8、情慾에 關한 場面을 取扱함에 있어서 다음의 事項을 留意하여야 한다.

(가) 劇進行上 決定的으로 必要하지 않은以上 表示하지 않을것.

(나) 過激하고 淫亂한 『키스』 抱擁 煽情的인 姿態와 몸짓을 보이지 않을것.

(다) 一般的으로 野卑하고 低俗한 感情을 挑發하는 言動을 表示하지 않을것.

9、墮胎 性衛生 性病은 人道的 또는 科學的 見地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以外에는 普通 作品의 題材로 採擇할수 없다.

10、解産場面는 實際로나 『셀루업』(影繪)을 莫論하고 보여서는 아니된다.

11、成人은 勿論 兒童의 性器를 露出하여 猥褻한 感을 주어서

는 아니된다.

五、低俗과 猥褻

1、低俗하고 唾棄할 性質의 不純한 事件 (반드시 惡은 아니지만)을 取扱하는 境遇에는 觀客의 高尚한 趣味와 良識과 銳敏한 感受性을 感觸刺戟함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2、猥褻한 言語 舉動 노래 弄談과 이것을 暗示하는 言動은 觀客의 一部分밖에 理解하지 못하는 境遇에도 이를 禁止한다.

3、戀愛場面에서 乳房 또는 性器를 撫磨하는 行動을 禁止한다.

4、性行爲와 淫亂한 情慾을 表示하거나 또는 暗示 象徵하는 舞踊은 猥褻行爲로 看做하고 이를 禁한다.

5、寢室場面는 觀客이 野卑한 衝動을 받지 않도록 取扱하여야 한다.

6、日常生活에서 使用되는 語句일지라도 지나치게 神聖冒瀆이며 卑賤野俗한 것은 使用를 禁止한다.

六、習俗과 衣裳

1、主題에 特別한 關聯 또는 必要性없이 良風美俗을 紊亂케

함으로서 故意的으로 觀客에게 低俗한 刺戟과 衝動을 주는 表現(畫面, 音響, 言語)은 이를 禁한다.

2、男女 混浴을 禁한다.

3、裸體는 禁한다 現實的인것은 勿論 透明體 半透明體를 通한 것 또는 『실루엣』(影繪)도 許容되지 않는다.

但 外地의 原始生活을 實際대로 現地 撮影한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4、良風美俗을 破壞한 憂慮가 있는 衣裳의 着用을 禁한다.

5、過度한 身體露出과 猥褻한 움직임을 強調하기 爲하여 調製한 舞踊衣裳의 使用을 禁한다.

6、脫衣場面을 劇進行上 不可缺少 境遇 以外에는 이를 避하여 한다.

七、其他

1、다음의 題材를 取扱할 때에는 觀客의 銳敏한 感取性を 刺

戟 激動하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가) 刑의 執行 絞首刑과 電氣執行.

(나) 拷問과 私刑.

(다) 殘忍과 凄慘相.

(라) 婦女와 兒童의 人身賣買.

(마) 婦女 兒童 動物에 對한 殘忍行爲와 虐待.

(바) 墮胎를 包含한 外科手術.

(사) 畸形 不具.

(附 則)

1、以上の 모든 規定은 作品內容 뿐 아니라 그 作品을 爲한 字幕 宣傳文 廣告에도 適用한다.

2、每 作品은 그 價置에 따라 判斷한 수 있는 餘地를 남 겨 두기로 한다.

公演物許可規準

(文教部諮問에應하여 藝術院에서採擇된案)

一、公演物의 許可는 左記(一)과 같은 內容의 公演物로서 左記

(二)의 檢閱規準에 抵觸되지 않아야 한다.

但 抵觸되는 部分을 削除 또는 變更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削除 또는 變更하여 그 該當部分을 許可할 수 있다

記 (一)

1、純粹한 藝術的感銘과 明朗한 娛樂을 通하여 自由世界 生活의 즐거움을 보여주는것.

2、愛國 正義 勇敢 義俠 開拓等の 精神을 強調한 作品.

3、宗教 또는 道德에 關한 健實한 「모티프」를 가진 作品 또는

人道主義를 基調로 하는 健全한 文藝作品.

4、歷史 또는 傳記에서 取材한 것으로서 過去나 現在의 偉人 또는 事件을 通하여 感動을 얻을 수 있는 作品。

5、健實하게 社會問題를 取扱한 作品。

6、教育 報導 宣傳 産業 其他 記錄等 內容을 가진 文化作品。

記(二)

1、國家의 威信을 損傷한 憂慮가 있는것。

2、國憲을 紊亂케하는 思想을 鼓吹한 憂慮가 있는것。

3、우리나라 國情에 惡影響을 끼친 憂慮가 있는것。

4、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國民教育面에 支障을 주고 公益上 損害를 끼친 憂慮가 있는것。

5、良風美俗을 紊亂케하고 國民道義를 頹廢케한 憂慮가 있는것。

6、違法破壞等을 爲主로 한것 또는 殘虐性을 描寫한것。

7、製作技術이 極히 拙劣하고 體係가 서지않은것 또는 製作年代가 過度히 經過한것

8、其他 國民文化의 進展을 阻害할 憂慮가 있는것。

二、本規準施行細則은 따로 定한다。

附則

本告示는 檀紀四二八九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會議錄 (第一號에서繼續)

第三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八年八月六日 下午三時。

一、場所 玄副會長宅 (市內新堂洞)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柳致眞 金東里 趙演鉉 朴泰俊 裴 濤
成慶麟 吳泳鎮 張 勃 李海浪 徐延柱 金煥基 金東振

(以上十四人)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會長 朴鍾和司會로 開會하다

먼저 前會議錄을 趙海山이 朗讀하고 經過報告로서 任員改

選以後의 藝術院賞授賞式 및 四二八八年度 豫算 廳舍問題藝

術院報發行 配付狀況 原稿料支拂件等の 經過를 朴琦遠이 報

告이다。

一、決議事項

(1)國會에 提出되어 있는 文化保護法 改正案을 早速히 通過시

켜 주도록 要請하자는 張勃會員의 動議에 對하여 金東里

會員의 學・藝術院의 會長團이 國會 文教分科委員長을 訪問

로 要請하는 것이 좋겠다는 添加動議가 滿場一致로 可決

되다.

(2)事務局職員二名을 採用할것을 可決하다.

(3)會員補選에 關하여는 次期總會에서 討議키로 合議하다.

(4)次期總會는 九月十日(土) 서울大學校 講堂에서 開催하자는 玄

副會長勳議에 添加하여 日時는 事務局에 一任하고 場所는

副會長이 斡旋토록 하자는 朴會長의 發言으로 可決하다.

閉會—下午五時十五分.

第四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八年 九月十六日(金)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本部會議堂.

一、參席會員

朴鍾和 安鍾和 金東里 孫在馨 張勃 玄濟明 裴瀾

朴泰俊 成慶麟 李珠煥 金東振 趙演鉉 徐延柱

事務局側 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司會로 開會하고 朴琦遠이 前會議錄을 朗讀한다음

經過報告로 文化人證再交付問題 原稿料問題 文教概觀에 原稿

실리는것 등을 報告한後 朴會長으로 부터 文教長官을 訪

問하여 事務局廳舍問題 職員採用問題 會員補選의件等 여러

가지 問題를 總務課長參席下에 相議하였는 바이나 職制가

없는 關係로 如意치 못하였다는 經過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會員補選에 關한件

여러가지 論議가 있은後 金東里會員의 文教長官을 만나서

補選을 인제쯤 해야되는가 다름을 받고서 해야 될것이니

그때까지 保留하자는 案이 合議可決되다.

(2)백지와 身分證圖案에 對하여 張勃會員의 說明이 있었고 그

製作에 있어서는 豫算備品費로 充當하기로 하되 材料는純

金으로하고 글자는 白金으로 할것에 合議하다.

閉會—下午四時十五分.

學·藝術院諸規定制定委員連席會議

一、日時 檀紀四二八八年十二月十四日 下午三時.

一、場所 文敎部會議室.

一、參席會員

藝術院—朴鍾和 高義東 玄濟明 吳泳鎭

學術院—尹日善 李丙燾 李根七 趙伯顯

尹 學術院會長의 司會로 文化保護法의 公布된後 近二年이나 지

나온 오늘날 까지 아직도 改正案의 通過를 못보았으므로

이자리에 制定委員이 모이여 再檢討 合議하여 文敎委員會

에 要請하기를 願한다는 開會辭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文化保護法改正案의件

朴鐘和會長의 要請으로 文教部總務課長이 臨席하고 改正案을 檢討한바 母法第七條 및 八條를 削除키로 하고 第十五條는 改正하였다. 따라서 第二十五條도 改正되어야만 藝術院도 第十五條를 準用하게 될것이므로 第十五條 改正案을 새로 記入하기로 하다.

以上の 改正案을 國會 文教分科委員會에 提出키로 合議하다 閉會—下午四時。

學・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 및

文教分科委員連席懇談會

一、日時 檀紀四二八八年 十二月十四日 下午五時。

一、場所 美莊크릴。

一、參席者

文教委員—金法麟 鄭重燮 李正熙 尹濟述 表良文 申幸用 李存華

金正皓 李宣教 李恒寧 鄭永謨

學・藝術院—朴鐘和 高義東 玄濟明 吳泳鎮 尹日善 李丙燾

趙伯顯

文教部側—曹文化局長 藝術課長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閔丙坤 朴性瑄 孫三植 洪官植

尹日善 學術院會長の 司會로 開會하다.

金法麟議員—우리가 오늘 이렇게 招請받은데 對하여는 文化保

護法 改正 때문에 招請된것이 아니고 議員들이 其間學藝院을 爲하여 勞苦가 많았다는 謝意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特히 學・藝術院의 發展에 關心이 많을니다 文化

保護改正案을 생각해서 現 國家實情에 맞게 해야 될줄 민

습니다 學藝術院이 運營上 困難에 逢着하고 있는點은 會

員選舉에 關한것과 事務局職制의 問題인데 이 事項은 文

化保護法 第十五條를 準用하면 모다 解決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一般이 法 解釋을 달리함으로 이에 學・

藝術院의 要請하는 案을 參酌하여서 文化保護法 第八條를

改正하고 學・藝術院自體에서 任意로 選舉를 行使할수 있게

하고 또한 第十五條의 二項과 三項을 新設하여 事務局을

두어야 하겠읍니다 이에 藝術院은 條文上으로 自然히 따르

게 됩니다.

이렇게 法 條文을 改正하지 않더라도 充分히 學・藝術院

을 運營할수 있을 것이나 政府의 豫算을 獲得하는데는 確

實한 法 條文이 없고서는 困難을 免치 못할것이니 必要

한 條文을 가추어 明年에는 學・藝術院이 豫算을 많이 確

保하여 名實共히 損色없는 機關이 되여주시를 바라 마지

않읍니다.

尹日善會長—文化保護法 改正案에 對한 條文과 그에 對한 說

明이 있었다.

金正暗議員—우리 國會議員은 學・藝術院에 對한것을 잘알았고

또한 過去로부터 關心을 많이 가지고 있음니다.

그러나 오늘 招待를 받은 이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重要

한 法案을 내어놓으면 困難하오니 可能하다면 다음 機會에

審議키로 미루시다.

議員一同 異議없이 次期로 미루기로 하다.

閉會—下午七時。

第五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二月八日 下午三時。

一、場所 文敎部會議室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高義東 李珠煥 成慶麟 徐延柱 李象範

安鍾和 金東里 柳致眞 吳相淳 金東振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文敎部側—文化局長 藝術課長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하고 前會議錄을 趙海山이 朗讀하고 朴

琦遠이 文化保護法 改正問題 유네스코 信任代表 選出의件

會員證및 뱃지 問題等에 對한 經過報告를 하다.

一、決議事項

(1) 유네스코信任代表를 選出하기 爲하여 銓衡委員回名 (安鍾和

柳致眞 李象範 金東里) 이 指名되어 推薦된 朴鍾和 高義

東 吳相淳의 三名을 投票한 結果에 吳相淳六票 朴鍾和六

票로 同點이 나와 再次 舉手可決한 結果 會長 朴鍾和會員

이 유네스코 韓國本部藝術院 信任代表로 選出되다.

(2) 會員證및 뱃지는 見續書를 받아서 審議製作하기로 하다.

閉會—午後五時。

第六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四月十日 不午二時。

一、場所 文敎部會議室。

一、參席會員

安鍾和 高義東 趙演鉉 成慶麟 李珠煥 朴鍾和 吳相淳

徐延柱 朴泰俊 裴 濂 金東里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司會로 開會하고 朴琦遠이 前會議錄을 朗讀한後

經過報告로 뱃지를 備品費로 製作할수 있다는것을 報告하다

一、決議事項

(1) 八八年度藝術院賞 授賞者內定の件

各分科會議에서 內定된 授賞對象者를 다음 臨時總會時까지

報告하기로 合議하다.

(2) 次期臨時總會 五月十日頃 召集키로 決議하다.

(3) 會員中에서 慶吊가有할時는 會員手當으로부더 各五百圓式捻出하여 이를 慰問하기로 決議하다.

(4) 嚙지製作은 經費關係로 當分間 保留할것에 台議하다.

閉會—下午四時。

第一回美術分科會議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四月二十日 下午二時。

一、場所 文敎部出入記者團室。

一、參席會員

朴鍾和 裴 濂 張 勃 李象範 高義東(朴鍾和會長에게 委任

狀)

朴鍾和會長의 司會로 開會하다.

一、決議事項

(1) 美術分科會長을 口頭公薦한바 李象範會員이 選出되다.

(2) 다음 美術分科會를 四月二十七日 下午二時 文敎部會議室에서

開催할것을 決定하고 李象範會員이 分科會長으로 選出되었

음을 公文上에 明示할것에 會議하다.

閉會—下午三時。

第二回美術分科會議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四月二十七日 下午二時。

一、場所 文敎部出入記者團室。

一、參席會員

李象範 高義東 裴 濂 張 勃 (裴 濂會員에게 委任狀)

李象範分科會長의 司會로 開會하다.

一、決議事項

(1) 張 勃會員의 書面에 依한 高義東會員을 美術分科 授賞候

補者로 勳議하는데 對하여 裴濂會員의 再請과 李象範會員

의 三請으로 高義東會員이 藝術院賞 授賞候補者로 內定決

議되다.

閉會—下午二時半。

第七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五月二十五日 下午三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音樂大學長室。

一、參席會員

吳相淳 玄濟明 柳致眞 李象範 朴泰俊 徐廷柱 張 勃

裴 濂 趙演鉉 李海浪 李珠煥 成慶麟 金東振 金東里

廉尙燮 吳泳鎮 朴鍾和 李圭煥

文敎部側—專文化局長 白事務官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玄副會長の 司會로 開會

會員點名이 있은後 朴琦遠이 前會議錄 朗讀과 經過를 報告하다.

一、決議事項

(1) 各分科會에서 內定提出된 八八年度 藝術院賞 授賞對象者 名

單을 다음과 같이 發表하다.

文學 (功勞賞) 吳相淳

美術 (") 高義東

音樂 (") 朴泰俊

演藝 (") 安鍾和

(2) 八八年度藝術院賞授賞者選定の件

各分科順으로 無記名投票한 結果 (委任投票도 行使함) 다

음과 같이 決定되다.

文學 (功勞賞) 吳相淳

美術 (") 高義東

(3) 授賞式은 例年과 같이 七月十七日로 하고 賞狀및 副賞은

昨年度와 同一하게 製作하기로 決定하다.

(4) 第三回 定期總會를 六月末頃 開催키로 決議하다.

閉會—下午四時半。

第三回定期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七月十四日(土)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本部會議室。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高義東 趙演鉉 柳致環 金聖泰 吳相淳
吳泳鎮 張 勃 李象範 朴泰俊 李珠煥 成慶麟 金東里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朴會長の 司會를 開會한다음 朴琦遠이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를 하다.

一、決議事項

(1) 任期滿了에 依한 正副會長選出에 關한件

(가) 張 勃會員 選出方法에 있어 無記名投票로 하되 出席會員

의 過半數以上으로 하자는 勳議에 趙演鉉會員의 添加再請

으로 萬一 過半數에 未達되는 境遇에는 二次 三次까지 投票

票하고 三次에서는 從多數로 하자는것이 決定되여 投票한

結果 第一次에는 過半數가 未達 第二次投票에 過半數得票로

서 朴鍾和會員이 會長에 選出되다.

(나) 다음 같은 方法에 依하여 副會長을 投票한 結果 第一次

投票에 있어 玄濟明會員이 過半數以上の 得票로 副會長에

選出되다.

(2) 各分科會長 選出의件

各分科會長은 各分科에서 互選하여 總會에 報告한 後 合議를 보아 文學 音樂의 兩分科는 卽席에서 分科會를 열

이 選出報告된 分科會長은 다음과 같다.

文學分科會長 吳相淳

音樂分科會長 金聖泰

(3) 其他事項

玄副會長의 意見으로서 會議가 開催된 때 會員의 參席率이 좋지 못한은 憶感된 일이다 公私로 多忙하여 그러한 結果가 오는을은 意料되나 앞으로는 各分科會員은 相互間에 勸告出席케 하여 會議出席에 더욱 誠意를 表示하여 줄것을 요청하다.

閉會—下午四時。

第八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八月三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音樂大學長室

一、參席會員

玄濟明 金聖泰 成慶麟 李珠煥 吳泳鎮 金東振 張勃

裴潏 朴鍾和 李象範 趙演鉉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된 다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

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演藝 美術兩分科 會員에게 分科會長의 提出報告를 督促키로 하다.

(2) 映畫上映製作에 關한 倫理的規定의件 文教部로 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草案한 吳泳鎮會員의 條文의 說明과 그 經緯를 聽取한後 會長의 司會로 草案을 檢討하고 修正을 加하여 그 修正案을 文教部에 回報키로 하다.
閉會—下午五時半。

第九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十一月十七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教務課長室。

一、參席會員

安鍾和 金聖泰 朴鍾和 高義東 吳泳鎮 裴潏 朴泰俊

金東振 孫在馨 李象範 張勃 趙演鉉 金東里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

告를 하다.

一、討議事項

朴會長—文化保護法 改正案이 國會에 正式上程되어 遺憾히도廢棄狀態에 이르기까지의 前後關係와 上程되기 前에 文教部長官室에서 李存華議員및 文教專門委員과 兩院會長이 連

席하여 改正案에 對한 懇談會를 가졌는 經過를 報告하다.

高義東會員—親知인 某議員에게서 드른바 이번 改正案이 廢棄된것은 民議員全體가 改正案에 對한 認識이 없어서 그리 된 마이나 次後에는 議員에게 充分히 改正案을 認識시킨 後에 再次上程한다면 希望을 갖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金聖泰會員—藝術院運營上에 있어 過去나 現在을 돌보아 이렇 게도 困難이 많다면 藝術院自體의 存續如何도 생각해볼 問題이니만큼 慎重論議하자고 主張하다.

趙演鉉會員—創設期인만치 그대로 이끌고 나가면서 文教部長官에게 建議文을 提出하기로하고 建議書作成委員은 金東里會員을 選定하다.

各部長官에게도 建議文을 내기로 合議하다.

閉會—下午三時半.

第一〇次臨時總會

二、日時 檀紀四二八九年 十二月二十二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音樂大學長室

一、參席會員

朴鍾和 趙演鉉 玄濟明 金聖泰 吳泳鎮 安鍾和 朴泰俊
金東振 成慶麟 李珠煥 裴潑 吳相淳 張勃 金東里

廉尙燮 高義東

文教部側—金文化局長 車藝術課長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다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國產映畫育成策 諮問에 關한件

車藝術課長으로 부터 諮問內容에 對한 說明이 있은後 各會員의 質疑로 이 行政法案이 決定됨으로 因하여 劇場運營者側과 藝術院과의 關係가 如何히 展開될것인지 好意的 意見을 交換한후 會長司會로 各條文을 修正作成하여 修正案을 文教部에 回報키로 하다.

(2) 藝術院會員選舉規程制定의件

朴會長이 選舉規程 制定의 意義를 簡單히 說明한後 起草委員으로 各分科에서 一名式 趙演鉉 張勃 金聖泰 吳泳鎮 等的 會員이 選出되고 이 起草委員은 會員選舉規程을 다음 總會時까지 成案提出키로 하다.

閉會—下午五時。

第十一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〇年 二月五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 音樂大學長室。

二、參席會員

玄濟明 吳相淳 成慶麟 張勃 徐廷柱 裴瀟 趙演鉉
金東振 孫在馨 吳泳鎮 金東里 李海浪 李泰俊 李象範

朴鍾和

文教部側—藝術課長 李事務官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會長의 遲參으로 玄副會長の 司會로 開會되고 朴琦遠이 前會議錄朗讀과 經過를 報報하다。

二、決議事項

(1) 藝術院會員選舉規程制定의件

起草委員으로 부터 提出된 同案을 檢討해나가는데 있어 投票方法에 있어서 有權者가 自己分科에 限하여 行使하느냐 또는 全分科에 걸쳐서 行使하느냐 하는 兩論에 舉手可決한 結果 第一次에 四對七 過半數未達로 第二次結果全

分科 行使案에 左席十四人에 過半數로서 全分科에 걸쳐서 投票行使하자는 案이 決定되고 다음 選舉日에 關하여는 正

副會長에게 一任하기로 하다。

(2) 選舉委員會 組織에 關한件

選舉規程에 依據하여 選舉委員長이 될 現會長에게 一任하기로 決議하다。

(3) 會員選舉 各分科別 配定의件

各分科別로 選舉된 會員配定은 다음과 같이 決定하다。

第一類 文學分科 七名

第二類 美術分科 七名

第三類 音樂分科 六名

第四類 演藝分科 五名

(以上二五名)

(4) 國產映畫育成策의 關한件

文教部로 부터 諮問해온 本件은 藝術課長의 要旨說明을 聽取한後 二個條의 修正을 加한다음 通過되다。

(5) 文教部의 外國留學生令에 關한件

玄副會長이 附議된 趣旨를 說明한後 起草委員으로 朴泰俊 張勃 李海浪 吳泳鎮의 四會員이 選出되고 草案을 다음總會時까지 提出 審議하기로 하다。

閉會—下午五時半。

第十二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〇年 六月八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

一、參席會員

高義東 玄濟明 吳相淳 朴鍾和 金東里 趙演鉉 張勃

李象範 孫在馨 金聖泰 成慶麟 黃順元 郭鍾元 盧壽鉉
都相鳳 裴 濂 裴吉基 金仁承 金元福 李珠煥 鄭勳謨

李興烈 李海浪 金東園 卞基鍾 李光來

事務局側—朴琦遠 趙海山

文教部 — 高文教部次官 車藝術課長 李事務官 會議는 朴琦遠司
會로 開會하고 朴鍾和會長의 開會辭가 있은다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在佛 金煥基會員에게 總會의 이름으로 再當選 祝電을 發送
키로 決定하다.

(2) 年次定期總會日字決定의件

七月十七日 藝術院授賞이 끝난 一週日以內에 開催하자는 金
聖泰會員의 動議에 裴吉基會員의 要請으로 可決되고 金東
里會員의 七月十七日 二週日 以後에 開催하자는 改議에
趙演鉉會員의 再請으로 可決되어 舉手로 可決한 結果 改
議十二名 動議九名으로 改議가 可決되다.

(3) 李軒九 毛允淑 兩會員辭表處理의件

正副會長이 兩氏를 만나 辭表撤回를 勸告하여분후 總會에
서 處理하자는 金聖泰會員의 動議로 李海浪會員의 再請으
로 決定하다.

(4) 藝術院賞授賞對象者選定의件

此件에 副隨되는 會議日字로 六月二十六日에 第十三次臨時
總會를 開催하여 授賞者를 選定하기로하고 六月二十九日에
第四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여 任員을 改選키로 決定하고 授
賞對象者는 六月二十일까지 各分科別로 그 內定된 名單을
事務局에 提出키로 하되、右期日까지 書類提出이 없을때는
그 分科에서는 該當者 없음을 認定키로 하다.

(5) 國展規程更正의件

美術分科會議에서 審議한후 二十六日 總會에서 再檢討키로
하다.

(6) 授賞規程 第十條에 「賞은 每年六月에 授與한다」라는 것을
「七月」로 改正하다.

第十三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〇年 六月二十二日(土)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金東里 成慶麟 李珠煥 孫在馨 裴 濂
張 勃 盧壽鉉 李象範 裴吉基 金聖泰 林元植 金元福
鄭勳謨 尹孝重 金東園 都相鳳 李海浪 金仁承 卞基鍾
金末峰 趙演鉉 吳相淳 黃順元 徐恒錫 徐廷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다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

고가 있다.

一、決議事項

(1) 國展規程審議의件

美術分科會議에서 審議完了되어 上程된 案에 있어 寫眞部新設에 關한 事項을 長時間 論議한 끝에 成慶麟會員의 票決 하자는 動議에 李海浪會員의 再請으로 投票한 結果 可十票 否十七票로서 寫眞部新設案은 不決되다.

(2) 國展審查委員選出의件

審查委員構成에 對하여 여러가지 意見交換이 있으나 玄副會長의 藝術院의 詮衡을 거쳐 審查委員會를 推薦하자는 動議에 金東里會員의 再請으로 異議없이 可決되다.

(3) 藝術院授賞對象者選定의件

朴會長으로부터 各分科會에서 提出된 候補者名單을 發表한 後 後候補者에 對한 各分科會長으로 부터 履歷및 經歷 紹介가 있으나 投票한 結果 다음과 같이 選出되다.

文學 功勞賞 廉尙燮

美術 功勞賞 李象範

閉會—下午六時。

第四回 定期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〇年 六月二九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郭鐘元 金仁承 裴濂 成慶麟 吳相淳

孫在馨 張勃 金聖泰 李象範 都相鳳 尹孝重 金元福

鄭勳謨 裴吉基 林元植 盧壽鉉 李光來 趙演鉉 金東里。

事務局側—朴珣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다음 朴珣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

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賞碑의 藝術賞이라는 文句를 可能的限 白金字로 製作하기로 決定하다.

(2) 授賞式에 使用된 授賞經歷作成은 各分科會長이 만드려 事務局에 提出키로 하다.

(3) 今年度 授賞式의 開會辭는 藝術院側에서 하되 이를 每年 學術院과 交代制로 함을 決議하다.

(4) 任期完了에 依한 任員改選의件

例年の 選出方法과 같이 投票를 實施한 結果 各其 다음과 같이 選定되다.

會長 朴鍾和

副會長 玄濟明

各分科會로 부터 選出報告된 各分科會長은 다음과 같다.

文學分科會長 吳相淳

美術 " 李象範

音樂 " 金聖泰

演藝 " 柳致眞

(5) 大韓產業美術協會에서 接受된 公翰의 件

圖案部獨立을 要請하는 同公翰에 對하여는 美術分科會에서 審

議하여 그 回信草案을 作成하여 事務局에 提出키로하다.

(6) 文化保護法改正案推進의 件

尹孝重會員의 動議와 都相鳳會員의 再請으로 文化保護法改

正案의 推進委員으로서 正副會長과 各分科會長이 되고 必要

時에는 各會員도 積極協調하여 學術院과 共同步調로 推進

키로하다.

閉會—下午四時。

第十四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〇年 十一月二十三日 下午三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

一、出席會員

玄濟明	趙演鉉	裴吉基	黃順元	李珠煥	郭鍾元	成慶麟
盧壽鉉	裴 潏	鄭勳謨	金聖泰	吳相淳	徐廷柱	金末峰
都相鳳	金仁承	徐恒錫	尹孝重	朴鐘和	柳致眞	李海浪

事務局側—朴瑜遠 趙海山

玄副會長の 司會로 開會한後 朴鐘和會長の 文庫授受 記念祝賀

會 開催의 趣旨을 說明하고 朴瑜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

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文化保護法改正案通過의 件

玄副會長으로부터 改正案通過에 對한 前後事務的 經過報告

가 있은後 그에 따르는 諸般準備에 關하여는 改正法律이

正式으로 政府에서 公布된後 學藝術院이 合議하여 職制및

會員選舉關係等の 規定을 앞으로 制定키로하다.

(2) 其他事項

都相鳳會員의 改正法律中에 있어서 「文敎部長官의 管理한다」

와 「管轄」한다에 關하여 質疑가 있어 이는 「管理」가 正이

요 管轄은 誤報임을 說明하다.

一、第十四次臨時總會는 下午四時半에 閉會를 宣言하고 이어 朴

會長의 文庫記念祝賀會를 開催하고 會員一同을 代表하여 尹

孝重會員으로부터 記念品贈呈이 있었다.

第十五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一年 六月七日(土)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鐘和 玄濟明 金聖泰 吳相淳 鄭勳謨 金元福 裴 瀾
裴吉基 盧壽鉉 李海浪 郭鐘元 李象範 金東里 林元植
都相鳳 尹孝重 黃順元 金仁承 趙演鉉 柳致眞
事務局側—朴踰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하고 文化保護法 改正法律公布와 職制案을

提出하기 까지의 經緯를 說明한 다음 朴踰遠의 前會議錄朗

讀과 經過報告가 있었고 新任柳藝術課長의 人事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政府樹立十週年記念慶祝行事諮問에件

여러가지 意見을 交換한 뒤 藝術院의 일로서는 藝術年鑑을
發行하고 編輯關係는 全會員이 分擔키로하고 主管는 文學
分科會에서 맡기로하다.

各分科會別의 計劃事項은 오는 六月九일까지 事務局에 書面
으로 提出하여 一括하여 文敎部에 提出키로하다.

(2) 第十四次國際音樂競演大會의件

文敎部에서 諮問한 本件에 對하여는 玄副會長의 說明이 있
은 다음 音樂會科會에 討議를 一任키로 하다.

(3) 藝術院賞授賞者選定の件

各分科會에서 授賞候補者를 內定하여 오는 二十一日 開催
되는 第十六次臨時總會에 提議하여 認准키로 하다.

(4) 藝術院制에 따르는 豫算은 柳藝術課長이 再次文敎部次官에

게 豫算確保의 要請을하고 그結果를 正副會長에게 連絡하
기로하다.

閉會—下午四時十五分

第十六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一年 六月二十一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館

一、參席會員

高義東 李象範 都相鳳 裴吉基 盧壽鉉 張 勃 裴 瀾
金仁承 尹孝重 孫在馨 朴鐘和 玄濟明 吳相淳 郭鐘元
黃順元 李海浪 金末峰 金東里 林元植 金聖泰 鄭勳謨
金元福 趙演鉉 柳致眞

文敎部側—柳藝術課長 金事務官

事務局—朴踰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後 朴踰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
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第七回國展審査委員會構成의件

文敎部로 부터 諮問해온 本件은 美術分科會議에서 委員會
를 內定하여 總會에서 認准받기로 하다.

(2) 第七回國展寫眞部新設에對한建議文의件

都相鳳會員 寫眞部新設에 對하여는 去年에도 總會에서 論議되어 否決된바 있었으나 아직도 時期尙早한 感이 있으니 今年도 昨年과 同一한 回信을 내자는 動議로 金聖泰會員의 再請과 尹孝重會員의 三請으로 保留키로 決議되다.

(3) 第六回音樂競演大會審査委員構成의件

文教部에서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音樂分科會에 委員選出을 一任하고 다음 總會에서 認準받기로 하다.

(4) 世界著作權條約加入의件

文教部에서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論議한 끝에 慎重을 期하기 爲하여 그修約內容을 좀더 研究檢討한 後에 加入與否를 決定通知 하기로 하다.

(5) 第四回藝術院賞授賞者選定の件

美術分科會에서만 推薦해온 張 勃氏에 對한 功勞賞을 總會에서 認準投票한 結果 在席全員得票로 四二四〇年度 藝術院賞 授賞者로 選出되다.

(6) 다음 第五回定期總會開催는 六月二十八日(土)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에서 열기로 決議하다.

閉會—下午五時四十分.

第五回定期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一年 六月二十八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

一、參席會員

金元福 金永義 金仁承 盧壽鉉 柳致眞 李珠煥 成慶麟
金聖泰 裴古基 都相鳳 吳相淳 裴 濂 孫在馨 趙演鉉
張 勃 玄濟明 李象範 郭鍾元 鄭勳謨 廉尙燮

文教部側—柳藝術課長 金事務官

事務局—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이 身病으로 不參하여 玄副會長의 開會辭로 開會 朴琦

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었다.

一、決議事項

(1) 任期完了로 因한 任員改選의件

趙演鉉會員의 昨年度의 任員全員을 留任케 하자는 動議에 金元福會員의 再請과 裴 濂會員의 三請으로 異議없이 可決되다.

(2) 大韓產業美術家協會로 부터 建議해온 國展圖案部獨立에

關한件

朴琦遠이 建議書內容을 朗讀한後 討議로 드러가 郭鍾元會員의 美術分科會에서 決定하여 總會에서 認準받기로 하자는 動議에 吳相淳會員의 再請과 金元福會員의 三請으로 決議되다.

(3) 第六回音樂競演大會審査委員選定の件

音樂分科會議에서 選出된 同審査委員名單을 分科會長 金聖泰 會員이 選出經過를 報告하고 總會에 提議한바 異議없이 通過되다.

閉會—下午三時二十分。

第十七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一年 九月九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校內 教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李象範 張勃 吳相淳 盧壽鉉 成慶麟
李珠煥 金東里 鄭勳謨 裴濂 裴吉基 金仁批 孫在馨
尹孝重 金聖泰 郭鍾元 趙演鉉

文教部側—柳藝術課長

事務局—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의 司會로 開會한후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다.

一、決議事項

(1)圖案部獨立에 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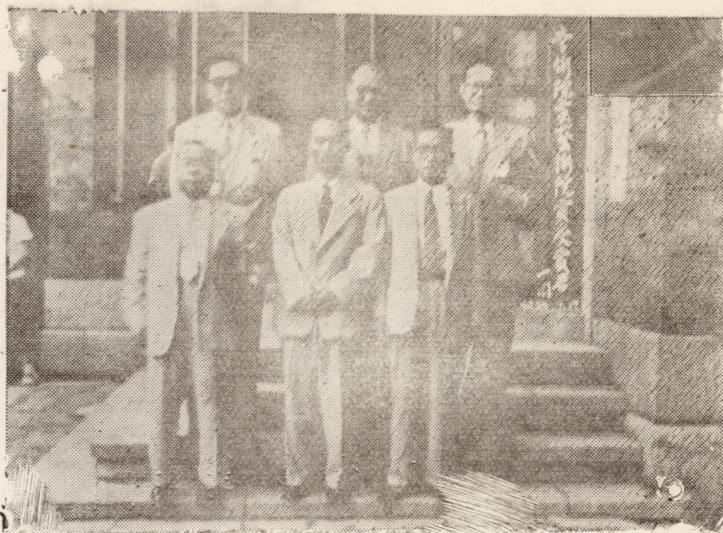
本件에 對하여는 美術分科會에서 決議하여 總會에 報告된 그네로 圖案部獨立을 保留할것을 可決하다.

(2)第七回國展審査委員構成的件

李美術分科會長이 分科會에서 審査委員名單을 總會에 報告한 다음 同美術分科會議錄을 趙海山이 朗讀하고 認準을 爲한 討議로 도러가다.

金東里會員—今年度は 政府樹立十週年記念行事의 國展이고 하니 만치 좀더 審査委員會를 增員하여 權威와 貫錄을 生覺하고 對外的으로도 널리 包攝을 期하자는 點과 一面美術界의 圓滑을 爲하여서도 過去の 審査委員會를 包攝하자고 主張하고 郭鍾元會員으로 부터 藝術院美術分科會員中 國展의 招待作家는 全員이 審査委員이 되어야 할것이라는 意見을 主張하고 金仁承 趙演鉉會員의 誠意있는 意見을 陳述하였다. 이런 點을 美術分科會에서 再考慮할것을 要請하기로 合議를 보아 會長은 總會의 休會를 宣言하고 美術分科會를 別室에서 召集하여 約三十分間 論議가 있는 結果에 다시 續開된 總會席上에 李象範美術分科會長은 많은 論議를 거듭하였으나 最終으로 分科會에서 決議된 事項을 變動시킬수 없다는 것에 合意되었다는 報告가 있었다.

趙演鉉會員—藝術院으로서 誠意를 表示하였으니 決議하기 爲하여 美術分科會案을 尊重하여 그대로 바다 드리자는 動議가 있어 郭鍾元會員의 再請으로 會長이 異議有無를 물은후 異議가 없음을 認定하고 同美術分科案을 原案대로 認準決定하다 閉會—下午五時半。



藝術院賞授賞者名單

第一回藝術院賞（四二八七年度賞）

日時 檀紀四二八八年七月十七日
場所 서울大學校 大講堂

文學 功勞賞	朴 鍾 和
音樂 功勞賞	玄 濟 明
演藝 功勞賞	柳 致 眞

第一回 藝術院賞授賞者紀念畫報

前列 左二	鍾 和氏（文學功勞賞）
後列中央二	玄 濟 明氏（音樂功勞賞）
後列 左一	柳 致 眞氏（演藝功勞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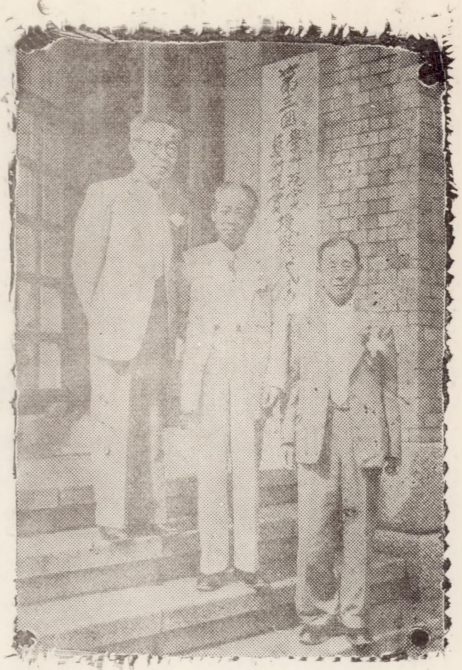
第二回 藝術院賞授賞者紀念畫報

第二回藝術院賞（四二八八年度賞）

日時 檀紀四二八九年七月十七日
場所 서울大學校 大講堂

文學 功勞賞	吳 相 淳
美術 功勞賞	高 義 東

第三回 藝術院賞授賞者紀念畫報



左 廉 尙 燮 (文學功勞賞)

中央 李 象 範 (美術功勞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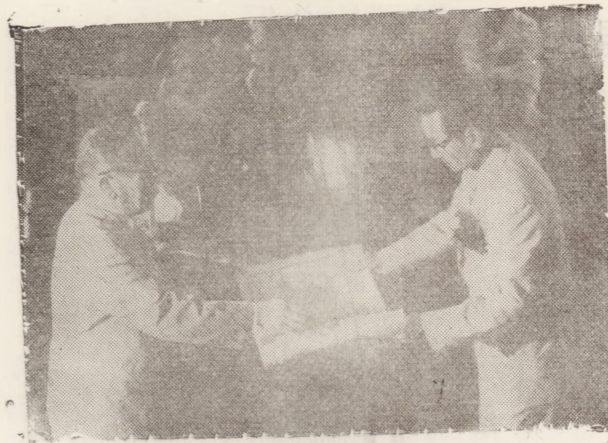
第三回 藝術院賞 (四二八九年度賞)

日時 檀紀四二九〇年七月十七日

場所 서울大學校 大講堂

文學 功勞賞 廉 尙 燮

美術 功勞賞 李 象 範



第四回 藝術院賞授賞式畫報

(美術功勞賞을 받는 張 勃氏) (右)
賞狀을授與하는 會長 朴 鍾 和博士(左)

第四回 藝術院賞 (四二九〇年度賞)

日時 檀紀四二九一年七月十七日

場所 서울大學校 大講堂

美術 功勞賞 張 勃

藝術院事業計劃

- 一、藝術創作에 關하여 優秀한 研究 또는 作品을 製作하였거나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 賞을 授與한다.
- 二、藝術研究 發展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한다.
- 三、藝術作品의 製作과 研究助成에 關한 政府諮問에 應하고 建議한다.
- 四、藝術家의 地位를 向上시키고 優遇하기 爲한 事業을 遂行한다.
- 五、藝術人 및 藝術團體의 相互協調를 圖謀한다.
- 六、藝術人의 海外進出 및 交關을 促進한다.
- 七、藝術家와 藝術團體에 對하여 獎勵金 補助金 功勞金을 支給한다.
- 八、外國藝術作品의 國內展示를 獎勵한다.
- 九、藝術使節團의 海外公演을 助成한다.
- 一〇、映畫演劇의 製作과 公演에 關한 向上 發展策을 樹立한다.
- 一一、民族藝術作品의 海外展示를 獎勵助成한다.
- 一二、國民歌謠의 向上 및 普及策을 樹立한다.
- 一三、藝術院機關紙 『藝術院報』 및 『藝術論文集』을 發刊한다.
- 一四、外國文藝作品의 翻譯을 普及한다.

- 一五、藝術作品 및 資料에 對한 統計를 作成한다.
- 一六、外國藝術院의 業績調査와 共同事業을 推進시킨다.
- 一七、各分科에 걸쳐 그 藝術的 行事を 助成하기 爲하여 研究發表會를 갖는다.

一八、各分科別로 地方巡廻講演會를 開催한다.

一九、地方藝術祭의 獎勵와 助成策을 樹立한다.

二〇、藝術院會員의 各種會議과 選舉에 關한것을 議決制定한다.

藝術院會員紹介



高 義 東 雅號 春谷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苑西洞十六
一、現住所 右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一九年三月十一日

一、職 業 東洋畫家

一、經 歷 及藝術經歷

自 七歲至十三歲 修學漢文家庭私塾

〃十四歲至十八歲 修學法語官立漢城法語學校

〃十九歲至二十四歲 舊韓國宮內部主事及禮式官歷任

〃二四歲至三十歲 日本東京美術學校西洋畫科卒業

〃三十歲至四十歲 私立中央、徵文、普成、中東等學校教員

〃其後至今日 東洋畫從事

檀紀四二五一年 書畫協會를組織하여四十餘年間總務及長에被選

檀紀四二八〇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組織會長四年間被選

〃 四二八二年 文教部創設藝術委員會委員長에被選

〃 四二八二年 美國親善使節團으로巡廻

〃 四二八六年 大韓美術協會會長被選

〃 四二八七年 藝術院任命會員被選

〃 四二八七年 藝術院會長被選

〃 四二八九年 藝術院藝術賞(功勞賞)受賞

檀紀四二八三年 서울市文化賞受賞

檀紀四二八二年 自第一回國展審査委員長被選至第七回

畫筆生活五十年에 남긴 作品數는 百數點있음



廉 尙 燮 雅號 想涉

一、本籍 서울特別市西大門區杏村洞三

六의四

一、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北阿峴洞一의二六七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〇年八月三十日

一、職業 서울美術大學長

一、經歷

檀紀四二五〇年 日本京都府立第二中學校卒業

〃 四二五〇年 日本慶應大學文科入學

〃 四二五二年 獨立運動當時投獄과함께 自然中退

〃 四二五三年 東亞日報創刊과함께 政治部記者로서歸國

〃 四二五二年 文藝同人誌「廢墟」同人으로서 新文藝運動에發足

〃 四二六九年 滿鮮日報主筆兼編輯局長

檀紀四二七八年 解放과同時에滿州安東朝鮮人會委員長被選

〃 四二七九年 京鄉新聞社創刊과함께編輯局長被選

〃 四二八七年 서울特別市文化賞受賞

〃 四二八七年 서울美術大學長被任

〃 四二八九年 亞細亞自由文學賞受賞

〃 四二九〇年 藝術院功勞賞受賞

一、藝術經歷

檀紀四二五四年 標本室의 靑개고리 中篇

檀紀四二五六年 新婦記(「해바라기」改題) 中篇

〃 四二五六年 萬歲前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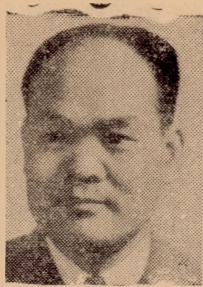
〃 四二五七年 사랑과죄 長

〃 四二五八年 金半指 短

〃 四二五八年 電話 短

〃	四二五八年	輪轉機	短〃
〃	四二六一年	二心	長〃
〃	四二六三年	狂奔	長〃
〃	四二六五年	三代	長〃
〃	四二六七年	牡丹꽃필때	長〃
檀紀四二六八年	不連續線		長篇
〃	四二七九年	解放의 아들	(短篇集)
〃	四二七九年	그初期	短篇
〃	四二八〇年	曉風	長〃
〃	四二八一年	臨終	短〃
〃	四二八一年	一代의遺業	短〃
〃	四二八一年	予破産	短〃
〃	四二八一年	굴레	短〃
〃	四二八一年	令監家僧와石劍	短〃
〃	四二八二年	採石場의少年	(少年小説)
檀紀四二八三年	暖流		長篇
〃	四二八四年	담내는 하꼬방	短〃
〃	四二八四年	비스켈과 手榴彈	短〃
〃	四二八五年	驟雨	長〃
〃	四二八五年	慾	短〃
〃	四二八六年	해지는보름자리의風景	短〃

〃	四二八六年	찾지않는개	短〃
〃	四二八六年	追悼	短〃
〃	四二八六年	紅焰 (未完成)	長〃
〃	四二八七年	未亡人	長〃
檀紀四二八八年	地平線 (未完成)		長〃
〃	四二八八年	夫婦	短〃
〃	四二八九年	威脅	短〃
〃	四二八九年	후덜덜	短〃
〃	四二八九年	宿命의女人	短〃
〃	四二八九年	出奔한 안해	短〃
〃	四二八九年	어머니	短〃
〃	四二八九年	父性愛	短〃
〃	四二九〇年	絶穀	短〃
〃	四二九〇年	돌아온 어머니	短〃
檀紀四二九〇年	死線 (未完成)		長篇
〃	四二九〇年	花冠	長〃
〃	四二九〇年	情炎에사른侮辱感	短〃
〃	四二九〇年	동서	短〃
〃	四二九〇年	그그들과 妓女	短〃
〃	四二九〇年	아내의 愛情	短〃
〃	四二九〇年	인플루엔자	短〃



一、本籍 서울特別市西大門區新村洞

玄 濟 明

檀紀四二九〇年	男子란것女子란것	短
檀紀四二九〇年	남은것도 설은데	短
檀紀四二九一年	純情의底邊	短
檀紀四二九一年	살	短篇
檀紀四二九一年	대목동리	短
檀紀四二九一年	두번재 홍역	短
檀紀四二九一年	動機	短
檀紀四二九一年	空襲	短
檀紀四二九一年	老炎뒤	短
檀紀四二九一年	守節내기	短
檀紀四二九一年	利害	短
檀紀四二九一年	宇宙時代前後의아들만	短
檀紀四二九一年	法없이도 사는사람	短
檀紀四二九一年	장가는 잘갔는데	短篇
檀紀四二九一年	漁父의 利	短篇
檀紀四二九一年	길에서 죽은 사랑	短篇

一、現住所 서울特別市城東區新堂洞山二〇四의一一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五年十二月八日

一、職業 서울大學校音樂大學長

一、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五六年 平壤崇實大學卒業

檀紀四二六〇年 美國시카고 "진" 音樂學校聲樂科入學

檀紀四二六〇年 右校聲樂科卒業學士學位受

檀紀四二六一年 右校碩士學位受

檀紀四二六二年 延禧專門學校講師被命

檀紀四二六四年 右校助教授被命

檀紀四二六五年 右校教授被命

檀紀四二六五年 朝鮮音樂家協會理事長被命

檀紀四二七〇年 美國시카고 "진" 音樂學校博士學位受領

檀紀四二七〇年 美國歐羅巴演奏旅行

檀紀四二七五年 레코이드 청반금 적반 藝術家被命

檀紀四二七六年 京城音樂學院長被命

檀紀四二七八年 社團法人高麗交響樂團理事長被命

檀紀四二七八年 京城音樂學校設立兼校長被命

檀紀四二七八年 任國立서울大學校教授 補藝術大學音樂部長被命

檀紀四二八一年 財團法人韓國音樂院設立者兼理事長被命

檀紀四二八三年 韓國音樂家協會委員長選任至現在

檀紀四二八四年 國立劇場運營委員任命至現在

檀紀四二八五年 서울市文化委員會副委員長選任

檀紀四二八六年 서울大學校音樂大學長被命

檀紀四二八六年 유네스코國際音樂會韓國首席代表로白耳義國派遣

檀紀四二八七年 유네스코韓國委員會執行委員選任至現在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任命會員被命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副會長選任至現在

檀紀四二八八年 東南亞細亞國際音樂家會議

檀紀四二八八年 韓國代表로參席

檀紀四二八八年 大韓民國藝術院藝術賞受賞

檀紀四二八九年 美國音樂教育聯合會創立五

十週年記念式에韓國代表로招請을받았음

檀紀四二八九年 韓國音樂教育聯合會議長選任至現在

檀紀四二八九年 유네스코第八次總會韓國代表로參加

檀紀四二九一年 國際音樂教育聯合會第三次總會韓國代表로「덴막」

國派遣

檀紀四二九一年 國際聯合音樂「카운실」傘下韓國音樂「카운실」理事

長被選

檀紀四二九一年 國際聯合音樂「카운실」傘下韓國音樂「카운실」理事



吳 相 淳 雅號 空超

一、本籍 서울特別市城東區下往十里五

九七

一、住所 서울特別市中區明洞(서라벌茶房)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二六年八月九日

一、職業 業 詩人

經 歷

檀紀四二四九年 日本同志社大學神學部宗教哲學科卒業

檀紀四二五〇年 朝鮮中央佛教學林 佛教學院의 敎員

檀紀四二六〇年 反日運動에 參加하여 大邱刑務所에서 服役

藝術經歷

檀紀四二五四年 文藝誌「廢墟」同人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任命會員被選

檀紀四二八九年 藝術院賞功勞賞授賞

作品『放浪의 마음』 『아시아의 밤』 『항아리』 『虛無魂의 宣言』 『한

잔술』 『生命의 秘密』 『幻像』 『첫날밤』 『해바라기』 『表流와 底流

의 交叉점』 『一塵』 『한마리 벌레』 『나의 스켓치』等 數百篇의 詩

와 其他에 散文 隨筆 評論等이 있음



朴 鍾 和 雅號 月灘

一、本籍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一街七

一의一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忠信洞五五의五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四四年十月二十九日

一、職業 教授・文學家

一、經歷 文學家

檀紀四二五三年 微文義塾卒業

一、藝術經歷

檀紀四二五三年 文學誌「文友」을創刊

檀紀四二五四年 詩誌「薔薇村」同人

檀紀四二五五年 文學誌「白潮」同人 爾來創作著述에四十余年間從事

함

檀紀四二五七年 詩集「黑房秘曲」著作

檀紀四二七一年 創作長篇「錦衫의피」著作

檀紀四二七二年 創作長篇「待春賦」著作

檀紀四二七五年 創作長篇「多情佛心」著作

檀紀四二七五年 隨筆集「青苔集」著作

檀紀四二七五年 創作長篇「前夜」著作

檀紀四二七七年 創作長篇「黎明」著作

檀紀四二七九年 解放後創設된 全朝鮮文筆家協會副會長被選

檀紀四二七九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副會長被選

檀紀四二七九年 詩集「青磁賦」著作

檀紀四二七九年 東國大學教授就任

檀紀四二八〇年 創作長篇「民族」著作

檀紀四二八〇年 創作長篇「青春勝利」著作

紀檀四二八〇年 延禧大學講師就任

檀紀四二八〇年 成均館大學教授就任

檀紀四二八〇年 서울市藝術委員會委員長

檀紀四二八一年 서울大學校 大學院講師就任

檀紀四二八一年 文教部藝術委員會 副委員長被選

檀紀四二八一年 創作長篇「洪景來」著作

檀紀四二八二年 서울文化委員會委員長被選

檀紀四二八二年 株式會社서울신문사社長就任

檀紀四二八二年 韓國文學家協會委員長被選

檀紀四二八三年 大統領選任에依하여 中央選舉委員會委囑

檀紀四二八四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委員長被選

檀紀四二八六年 高等考試委員

檀紀四二八七年 韓國유네스코委員被選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推薦會員被選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副會長被選

檀紀四二八七年

創作「임진왜란」執筆

檀紀四二八八年

藝術院會長被選

檀紀四二八九年

文教部國語審議委員

檀紀四二九〇年

長篇創作「임진왜란」을朝鮮日報에連載하여九百四十六回로四年에亶하여脫稿

檀紀四二九〇年

名譽文學博士學位授受

檀紀四二八八年

藝術院第一回文學功勞賞을受함



金 東 里

一、本 籍 慶尙南道泗川郡泗川面貞義洞

一、現住所 서울特別市城東區新堂洞一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六年十一月二十四日

一、職 業 小説家。教授、

一、經 歷

檀紀四二八二年

大韓民國文教部藝術委員

檀紀四二八二年

서울特別市文化委員

檀紀四二八七年

유네스코韓國委員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現)

檀年四二八七年

서라벌藝術大學教授(現)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六七年

「白鷺」(詩) 朝鮮日報 懸賞文藝에 入選

檀紀四二六八年

「花郎의後裔」(小説) 中央日報 懸賞에 當選

檀紀四二六九年

「山火」(小説) 東亞日報紙에當選

檀紀八二八〇年

「巫女圖」(小説集)刊行

檀紀四二八一年

「文學斗人間」(評論集)刊行

檀紀四二八二年

「黃土記」(小説集)刊行

檀紀四二八四年

「歸還壯丁」(小説集)刊行

檀紀四二八五年

「文學概論」刊行

檀紀四二九一年

「實存舞」(小説集)刊行

檀紀四二九一年

「사반의十字架」(長篇集)刊行



趙 演 鉉 雅號 石濟

一、本 籍 慶尙咸安郡咸安面鳳城洞

一、現住所 서울市鍾路區蓮建洞一三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五一年七月二十六日

一、職 業 文學評論家

一、經 歷

一、培材學校卒業

一、惠化專門中退

一、서울大學校 成均館大學校

首都女子師範大學講師

一、文藝社編輯長

一、韓國文學家協會評論隨筆分科委員長

一、東國大學校淑明女子大學校講師(現在)

一、現代文學社主筆(現在)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八二年 評論集「文學斗思想」[出刊]

檀紀四二八四年 隨筆集「文學的散步」[出刊]

檀紀四二八五年 評論集「韓國現代作家論」[出刊]

檀紀四二八六年 「文學概論」[出刊]

檀紀四二八七年 「文學入門」[出刊]

檀紀四二八九年 「韓國現代文學史」[出刊]

檀紀四二九〇年 評論集「休日の意匠」[出刊]

檀紀四二九一年 評論集「文學斗그周邊」[出刊]



張 勃 雅號 雨石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明倫洞三街

六一의八

一、現住所 右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四年四月三日

一、職 業 서울大學校美術大學長

一、經 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五二年 東京美術學校西洋畫科入學

檀紀四二五五年 美國留學次右校中退

檀紀四二五五年 뉴욕市내쉬날아키데미어브디사인入學

檀紀四二五六年 右校洋畫科修了

檀紀四二五八年 뉴욕市콜럼비아大學美術科修了

檀紀四二五九年 徽文高等學校教員被任

檀紀四二九〇年 新義州聖堂藏「聖神降臨」制作

檀紀四二六一年 東星商業學業講師

檀紀四二六二年 書藝美術協會協展「舞姬」[出品]

檀紀四二七七年 啓星女子商業專修校長被任

檀紀四二七八年 解放記念美術展覽會「青衣少女」[外一點出品]

檀紀四二七八年 京城府學務課長被任

檀紀四二八一年 羅馬國際美術展「勝利」[出品]

檀紀四二八二年 第一、二、三、五、七回の國展

檀紀四二九一年 審査委員

檀紀四二八二年 서울特別市文化賞受領

檀紀四二八三年 美國務省招請으로 워싱턴大學및 美國重要美術

機關研究視察

檀紀四二八六年 서울大學校美術大學長署理被命

檀紀四二八六年 의을大學校美術大學長被命

檀紀四二八六年 서울大學校大學院委員委囑

檀紀四二八七年 서울特別市文化委員會副會長被選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推薦會員當選

檀紀四二八九年 第五回國展에「悔恨」外一點出品

檀紀四二九〇年 教育功勞者表彰受領

檀紀四二九一年 藝術院賞美術功勞賞受賞



李 象 範 雅號 青田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樓下洞一三
一、現住所 " "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〇年九月二十一日

一、職 業 弘益大學教授

一、經歷 及 藝術經歷

檀紀四二五一年 書畫美術會東洋畫科卒業

自 檀紀四二四九年

至 " 四二五二年 故安心田先生門下東洋畫研究

檀紀四二五三年 昌德宮大造殿壁畫製作

自 檀紀四二五二年

至 " 四二七八年 書畫協會會員及幹事被選

自 檀紀四二五五年 朝鮮美術展覽會出品入選

至 " 四二五七年

自 檀紀四二五八年 朝鮮美術展覽會出品特選(連十回)

至 " 四二六七年

檀紀四二六二年 昌德宮賞拜受(朝鮮美術展出品作에)

檀紀四二六六年 青田畫塾設立東洋畫指導

檀紀四二六三年 李忠武公尊影謹寫(牙山李忠武公宗祠及閑山島에

奉安)

檀紀四二六八年 朝鮮美術展覽會推薦

自 檀紀四二七一年

至 檀紀四二七七年 朝鮮美術展覽會審查參與被任

檀紀四二七八年 大韓美術協會會員及委員被選

檀紀四二八〇年 綜合美術展審查委員被任(美軍政時文教部主催)

檀紀四二八二年 大韓民國第一回美術展覽會推薦出品

檀紀四二八六年 現代作家招請美展出品(國立博物館主催)

檀紀四二八七年 大韓民國藝術院會員被選

自 檀紀四二八六年

至 檀紀四二九一年 大韓民國美術展覽會審查委員被任

檀紀四二九〇年 大韓民國藝術院藝術賞(功勞賞)受領

檀紀四二八九年 大韓美術協會顧問被選



孫 在 馨 雅號 素荃

一、本 籍 서울特別市鐘路區孝子洞八二
一、現住所 右 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二五年四月二十八日

一、職 業 書藝家・民議員、

一、經歷 及 藝術經歷

檀紀四二五八年 養正高等普通學校卒業

檀紀四二六〇年 外國語學院卒業

檀紀四二六〇年 尙書會館入會書藝專攻

檀紀四二五七年 朝鮮美術展覽會自第三回至 第十回美術品入選受賞

檀紀四二七一年 書藝研究次、北京視察諸名家歷訪

檀紀四二七八年 解放後是 大韓書畫同研究會會長被選

檀紀四二七九年 第一回大韓書畫展覽會 審査委員篆書雙聯出品

檀紀四二八一年 서울大學校美術大學書藝專任講師

檀紀四二八二年 서울特別市文化委員會委員

檀紀四二八五年 國寶保存委員會委員

檀紀四二八六年 大韓美術協會委員

檀紀四二八六年 文總中央執行委員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推薦會員當選

檀紀四二九一年 民議院 議員被選



金 聖 泰

一、本 籍 서울特別市中區光熙洞一街八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鐘路區東崇洞一의一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三年十一月九日

一、職 業 서울大學校音樂大學教授

一、經歷 及 藝術經歷

檀紀四二六四年 京都兩洋中學校卒業

檀紀四二六八年 延禧專門學校商科卒業

檀紀四二七二年 東京高等音樂學院作曲部卒業

檀紀四二七二年 京城保育學校音樂主任就任

檀紀四二七四年 京城中央放送局合唱團指揮者就任

檀紀四二七五年 普成專門學校講師被囑

檀紀四二七七年 新京交響樂團作曲部員就任

檀紀四二七八年 高麗交響樂團作曲部員就任

檀紀四二七九年 京城音樂學校教務課長就任

檀紀四二七九年 任國立서울大學校副教授 補藝術大學音樂部教務課長

檀紀四二八〇年 命藝術大學音樂部長署理

檀紀四二八〇年 서울交響樂協會理事被命

檀紀四二八三年 韓國音樂家協會中央委員被任

檀紀四二八三年 서울市文化委員被任

檀紀四二八六年 音樂大學教務課長에補任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推薦會員被選

檀紀四二八八年 美國인디애나大學校에作曲學을研究次渡美

檀紀四二八九年 韓國教育聯合會事務局長被任至現在

檀紀四二九〇年 文教部獎學委員被任現在



成 慶 麟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新門路一街
八二의一

一、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松月洞三의一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四年九月十八日

一、職 業 國立國樂院樂士長

一、經 歷

檀紀四二六四年 雅樂部員養成所卒業

雅樂手、雅樂手長雅樂師陞任

檀紀四二八三年 國立國樂院樂士長에被命

一、藝術經歷

檀紀四二九一年 公報室長賞으로第々回放送文化賞(音樂)을授賞

著書로서 『朝鮮音樂讀本』 『朝鮮의雅樂』出刊



柳 致 眞 雅號 東朗

一、本 籍 慶南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龍山區葛月洞七의

二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八年十一月十九日

一、職 業 劇作家

一、經 歷

檀紀四二六四年 立教大學英文科卒業

檀紀四二六四年

檀紀四二七二年

檀紀四二七四年

檀紀四二七八年

現代劇場主宰

檀紀四二八〇年 劇藝術協會(新協前身)同人으로至現在

檀紀四二八〇年 韓國舞臺藝術院院長被選

檀紀四二八一年 韓國演劇學會會長被選至現在

檀紀四二八三年 中央國立劇場長

檀紀四二九一年 國際演劇協會韓國本部委員長被選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六六年 戲曲 土幕

二幕

檀紀四二六八年 同 三〇

檀紀四二六九年 戲曲 春香傳 五幕

檀紀四二七〇年 〃 麻衣太子 五〃

檀紀四二七一年 〃 姊妹(1) 三〃

檀紀四二八〇年 〃 自鳴鼓 五〃

檀紀四二八一年 〃 銀河水 三〃

檀紀四二八二年 〃 별 五〃

檀紀四二八三年 〃 어디로 四〃

檀紀四二八四年 〃 원슬랑 五〃

檀紀四二八五年 〃 痛哭 四〃

檀紀四二八六年 〃 處容의 노래 四〃

檀紀四二八七年 〃 加야琴의 由來 四幕

檀紀四二八八年 〃 나도人間이 되련다 四〃

檀紀四二八九年 〃 푸른聖人 四〃

檀紀四二九〇年 〃 姊妹(2) 五〃

檀紀四二九一年 〃 死六臣 四〃

檀紀四二九二年 〃 外씨와 四〃

檀紀四二九三年 〃 漢江은 흐른다 四〃

檀紀四二九四年 〃 其他 一幕으로써 「祖國」을 둘러싼 地軸 「가치의 중심」 「버드나무선洞」의 風景 「祭祀」 「당나귀」 「青春은 祖國과 더불어」 「障壁」 「貧民街」 「그리」

「누리」 「夫婦」 등의 演劇評論 研究論文 여러 나리오 多數有함。

李圭煥



一、本籍 慶北大邱市西也洞一三二

一、現住所 서울特別市中區三角洞五三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七年二月二十八日

一、職業 映畫監督

經歷

自 檀紀四二六一年

至 檀紀四二六三年

日本新興キネマ撮影所監督部에서修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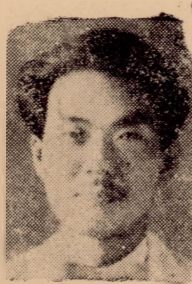
藝術經歷

監督製作한映畫

「임자없는나루배」 「밝아가는人生」 「바다여말하라」 「그後の李道令」 「무지개」 「나그네」 「새出發」 「돌쇠」 「돌돌이의冒險」 「그들의幸福」 「民族의 새벽」 「海燕(갈매기)」 「돌아온어머니」 「아름다운서울」 其他多數作品 監督製作함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推薦會員被選

徐廷柱 雅號 未堂



一、本籍 全北高敞郡富安面仙雲里五五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麻浦區孔德洞三〇一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七年五月十八日

一、職 業 教授、詩人

一、經 歷

檀紀四二六九年 中央佛教專門學校文科修業

檀紀四二六九年 「詩人部落」誌創刊編輯兼發行人

檀紀四二七九年 釜山東亞大學專任講師

檀紀四二八〇年 朝鮮青年文學家協會副會長

檀紀四二八〇年 「文藝」誌推薦新人審查委員

檀紀四二八一年 東亞日報文化部長

檀紀四二八一年 文教部藝術課長

檀紀四二八二年 韓國文學家協會詩部委員長

檀紀四二八三年 全國文化團體聯合會企劃委員長

檀紀四二八五年 光州朝鮮大學校副教授

檀紀四二八六年 시라벌藝術大學教授至現在

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被選

檀紀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再選

檀紀四二八九年 自由文學賞受賞

一、藝術經歷

檀紀四二七一年 詩集「花蛇」發行 特製表紙に刺繡文字定價五圓也

檀紀四二七七年 雜誌「春秋」에「玉樓夢」翻譯連載中廢刊。로中止

檀紀四二八〇年 詩集「歸蜀途」發行

檀紀四二八九年 詩集「徐廷柱詩選」發行

檀紀四二八九年 「新羅研究」喜中央日報에連載

檀紀四二九一年 詩集「新羅抄」發行準備中

「詩文學概論」發行準備中 其他雜著省略



柳 致 環 雅號 青馬

一、本 籍 慶尙南道統營郡統營邑文化洞

一八三

一、現住所 慶尙北道慶州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一年七月十四日

一、職 業 詩人、校長

經 歷

檀紀四二六〇年 東萊高等普通學校卒業

檀紀四二六一年 延禧專門文科二年中退

檀紀四二七二年 北滿洲濱沱省嘉信農場自由移民。로移住

檀紀四二七八年 歸國

檀紀四二七八年 統營女子中學校教師被命

檀紀四二八五年 咸陽郡安義中學校長被任

檀紀四二八五年 慶州高等學校長被命至現在

檀紀四二七九年 第一回朝鮮詩人賞受賞

檀紀四二八三年 서울特別市文化賞(文學部)受賞

藝術經歷

檀紀四二六四年 掃除夫
(詩同人誌)刊行

檀紀四二七〇年 青馬詩抄 (詩集)刊行

檀紀四一八〇年 生命의書 (") //

檀紀四二八一年 鬱陵島 (") "

檀紀四二八二年 서울特別市文化賞受賞

檀紀四二八二年 蜻蛉日記
(詩集)刊行

檀紀四二八四年 步兵과 더불어 (") "

檀紀四二八六年 에루살렘의탑 (隨想錄)

檀紀四二八八年 青馬詩集

檀紀四二九〇年 第九詩集

檀紀四二九一年 自由文學賞受賞

檀紀四二九一年 柳致環詩選



黃順元

一、本籍 平南大同郡在京面氷庄里一

七五

一、現住所 서울特別市中區會賢洞一街一〇〇의一六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八年三月二十六日

一、職業小說家、教授

一、經 歷

檀紀四一六七年 平壤崇實中學校卒業

檀紀四二七二年 日本早稻田大學英文科卒業

檀紀四二九一年 新興大學에서 創作論講義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六七年 詩集 「放歌」

檀紀四二六九年 詩集 「骨董品」

檀紀四二七三年「黃順元短篇集」

檀紀四二八一年 「목넘어마을의개」 短篇

檀紀四二八四年 「기려기」 短篇

檀紀四二八五年「曲藝師」短篇

檀經四二八九年一觀
短篇

檀紀四一九年 一 잃어버린 사람들 短篇

檀紀四二八三年 一 별과같이살다」 長篇

檀紀四一八七年—카인의後裔—長篇

檀紀四二九〇年「人間接木」長篇

檀紀四一八七年 自由文學賞受賞



金末峰

一、本籍慶南密陽郡下南面守山里

一、現住所 서울特別市中區東子洞一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四年四月三日

一、職業 小說家

經 歷

檀紀四二六〇年 日本同志社大學英文科卒業

檀紀四二六二年 中外日報社記者歷任

藝術經歷

檀紀四二六八年 密林

檀紀四二七〇年 질레꽃

檀紀四二七八年 화려한地獄

檀紀四二八三年 별들의 고향

檀紀四二八五年 太陽의眷屬

檀紀四二八五年 파도에부치는 노래

檀紀四二八六年 새를보라

檀紀四二八六年 바람의향연

檀紀四二八七年 푸른날개

檀紀四二八七年芭蕉의꿈

檀紀四二八七年 옥합을열고

檀紀四二八八年 찬란한독배

檀紀四二八九年 生命

檀紀四二八九年 길

(希望誌)

(朝鮮日報)

(국제신보)

(새가정誌)

(學園社)

(朝鮮日報)

(女性界誌)

(영남일보)

(서울신문)

(希望誌)

檀紀四二九〇年 方肖塔

檀紀四二九〇年 花冠의季節

檀紀四二九〇年 푸른장미

檀紀四二九一年 사슴

檀紀四二九一年 行路難

檀紀四二九一年 광명한아침

現在執筆中長篇

歡喜 (朝鮮日報)

제비야오림 (釜山日報)

장미의고향 (大邱每日新聞)

아담의후예 (保健世界誌)

其他短篇『苦行』『은밀녀』『편지』等 百餘篇



郭 鍾 元

一、本籍 慶北高靈郡雙林面平地
洞六七六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龍山區厚岩洞二五四의六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八年五月十三日

一、職業 教授、評論家

經 歷

檀紀四二七四年 日本大學文科卒業

檀紀四二七五年 中等學校에서 十三年間 大學에서 三年間 教鞭을 잡음

藝術經歷

檀紀四二八一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監査被選

檀紀四二八四年 同事務局長被選

檀紀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當選

評論集『新人間型의 探求』 外評論 多數있음



盧 壽 鉉 雅號 心汕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花洞八七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麻浦區新水洞

一一三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二年三月十六日

一、職 業 教授、畫家

經 歷及藝術經歷

檀紀四二四六年 普成中學校修了。

" 四二五〇年 書畫美術會東洋畫卒業。

" 四二五〇年 故安中植先生畫塾에서 研究。

" 四二五四年 東亞日報社入社

" 四二五六年 朝鮮日報社入社

" 四二五九年 第五回朝鮮美術展覽會入賞。

" 四二六二年 朝鮮博覽會入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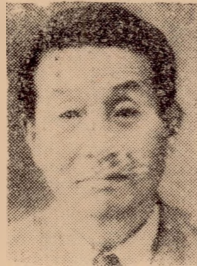
" 四二七三年 心汕畫塾設立東洋畫研究。

" 四二八二年 國立서울大學校教授。

" 四二八二年 第一回、二回、三回、五回、六回、七回、國展審査委員

" 四二八八年 서울市文化賞受領。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當選。



都 相 鳳 雅號 陶泉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明倫洞三

街八九의三

一、現住所 右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五年一月六日

一、職 業 西洋畫家

一、經 歷

檀紀四二五三年 普成高等普通學校卒業

" 四二六〇年 東京美術學校西洋畫科卒業

" 四二六一年 東京美術學校西洋畫科研究科修了

" 四二八五年 藝術院創立準備委員被任

" 四二八五年 國立劇場運營委員被任

" 四二八七年 文總最高委員被選至現在

" 四二八八年 大韓美術協會委員長被選至現在

" 四二九〇年 藝術會員被選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六二年 葱斗果實

" 四二六五年 婦人座像

" 四二六六年 風景(經學院)

" 四二六九年 꽃(다리아)

" 四二七二年 百合花

" 四二七五年 陶器斗果實

" 四二八二年 女人像

" 四二八四年 釜山風景

" 四二八五年 라이락

" 四二八五年 李朝時代

" 四二八六年 少女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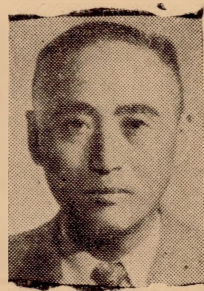
" 四二八七年 風景(서울의 폐허)

" 四二八八年 靜物

" 四二八九年 『새서울』風景

" 四二九〇年 뜰(庭)

" 四二九一年 牛耳洞風景。赤土의 斷面 明倫堂秋景。꽃(菊花)



裴 濂 雅號 霽堂

一、本 籍 慶尙北道金陵郡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安國洞

二番地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一年二月二日生

一、職 業 東洋畫家

經 歷

檀紀四二六八年 書畫協會正會員。

" 四二七二年 青田畫塾講師。

" 四二七八年 解放紀念美術展審查委員。

" 四二八〇年 培材高等學校講師。

" 四二八〇年 美協展審查委員。

" 四二八一年 淑明女子大學 文理學部美術科長。

" 四二八一年 文教部 藝術委員。

" 四二八二年 서울市 文化委員。

" 四二八二年 國展招待作家。

" 四二八六年 國展審查委員。

一、檀紀四二八七年 서울大學校 美術大學講師。

一、檀紀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當選。

藝術經歷

一、檀紀四二六一年 十月에서 四二七四年十月까지에 「協展」第五

回에서부터 第十九回에 걸쳐 걸쳐 「晚秋」「春郊」等 十五點出品。

一、檀紀四二六三年 五月에서 四二七六年五月까지에 「鮮展」第九

回에서부터 二十三回에 걸쳐 「朝霧」「蘆渚」等 十三點을 出品하여 同年間에 特選二回 無鑑査二回。

檀紀四二七八年 十月 解放紀念展에 『黎明의 鐘』 出品

檀紀四二七三年 個人展에 『內金剛』等 三十一點出品

檀紀四二八〇年 十月 綜合美術展에 『古洞春深』 出品

檀紀四二八〇年 四月에서 四二八八年 四月까지에 美協展 第

一回에서 부터 第六回에 걸쳐 『九龍淵』『雨後』等 五點出品。

檀紀四二八四年 個人展에 『山村』等 二十二點出品。

檀紀四二八五年 四月에서부터 四二八六年四月까지에 三一紀

念展에 『山寺迎春』等 五點出品。

檀紀四二二六六年 五月 現代作家招待展에 『秋山』『江邊』等出品

檀紀四二八二年 十月에서 四二九一年十月까지에 「國展」第一

回에서 年七回까지에 걸쳐 『瑞祥』『鄉』『谿

山』『山亭』『花月』『山月』『連峰白雲』『江』等 出品。

金 煥 基 雅號 樹話



一、本 籍 全南務安郡安坐面邑洞里九

五五

一、現月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上道洞四三의五〇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六年二月二十七日

一、職業 畫家

一、經歷

檀紀四二六六年 日本東京錦城中學三學年卒業

四二六九年 日本京都日本大學藝術學園美術部入學

四二七〇年 右校美術部研究科修了

四二六九年 日本大學藝術學園兒童美術實技指導

四二七一年 同美術部辭任歸國

四二七九年 國立서울大學美術部教授被任

四二八五年 弘益大學美術科教授被任

四二八五年 文教部藝術委員

四二八五年 서울特別市文化委員

四二八五年 第一回國展審査委員

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當選

四二八八年 渡佛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再當選



裴 吉 基 雅號 時菴

一、本 籍 釜山市瀛州洞七二二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三清洞三

五의一〇七

一、生年月日 四二五〇年九月八日

一、職 業 書藝家

一、經 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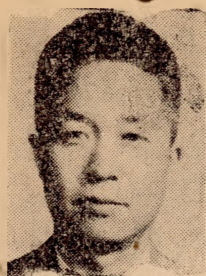
一、日大卒業後 教師

一、一時官吏

一、國展招待作家

一、藝術經歷

教科書 數出刊



金 仁 承

一、本 籍 京畿道開城市北安洞八三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明倫洞四

街一〇五

一、生年月日 四二四四年一月十九日

一、職 業 教授、畫家

一、經 歷及藝術經歷

四二七〇年 日本東京美術學校

四二七二年 同校西洋畫研究科一年修了

四二七三年 朝鮮美術展覽會無鑑查推薦

四二八〇年 梨花女子大學校美術科教授就任至現在美術學科長

四二八六年 第二・三・四・六・七 國展審查委員

四二八八年 第二・三・四・六・七 國展審查委員

四二九〇年 大韓民國文化團體總聯合會中央委員至現在

四二九〇年 大韓民國藝術院會員



尹 孝 重 雅號 佛齊

一、本 籍 京畿道長端郡長端面都羅山

里五四七

一、現住所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山二의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五〇年十二月五日

一、職 業 彫刻家、教授

經歷及藝術經歷

檀紀四二七〇年 培材中學校卒業

四二七三年 日本文部省美術展覽會入選

四二七四年 朝鮮美術展覽會三回特選

四二七六年 一回入賞無鑑査

四二七五年 日本東京美術學校彫刻科卒業

四二七五年 日本彫塑家聯盟會員

四二七七年 進明高等學校教諭

四二八〇年

四二八二年 梨花女子大學校美術學部講師

四二八四年 弘益大學美術科創設教授至現在

四二八五年 忠武公銅像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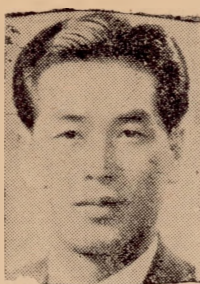
四二八五年 UNESCO 國際藝術家會議 韓國代表參席(伊太利)

四二八五年 大韓美術協會常任委員

四二八六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常任執行委員

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當選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再當選



林元植

一、本籍 서울特別市鍾路區弼雲洞一

七一三

一、現住所 右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五二年六月二十四日

一、職業 教授

經歷

檀紀四二七三年 韓仁音樂學校修業

檀紀四二七五年 東京日本高等音樂學校卒業

檀紀四二八二年 美國뉴욕市千리안音樂學校修業

藝術經歷

檀紀四二七七年 韓仁放送管絃樂團指揮者

檀紀四二七九年 서울高麗交響樂團指揮者

檀紀四二八二年 서울交響樂團常任指揮者

檀紀四二八六年 서울大學校音樂大學副教授

檀紀四二八六年 國際音樂會議韓國代表로白耳義國부랴셀에參席

檀紀四二八九年 서울放送局交響樂團常任指揮者就任

檀紀四二八九年 國際音樂學術會議韓國代表로奧地利國「원」에參席

檀紀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被選

檀紀四二九〇年 比律賓마나라交響樂團의指揮者로招請받음



金元福

一、本籍 서울特別市西大門區紅把洞

六八三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龍山區厚岩洞二七四의一四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一年七月二十五日

一、職業 서울大學校 音大教授

一、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六一年 梨花女子高等學校卒業

檀紀四二六五年 東京高等音樂學院피아노科卒業

檀紀四二七一年 梨花女子專門學校教授被任

檀紀四二七六年 京城厚生樂團피아노科主任被命

檀紀四二七八年 高麗交響樂團피아노主任被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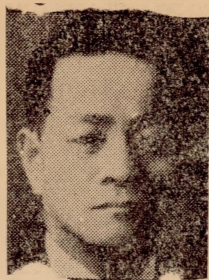
檀紀四二七九年 京城音樂學校教授被任

檀紀四二七九年 任國立서울大學校教授

檀紀四二八七年 音樂大學教授被任

檀紀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 被選

檀紀四二九一年 서울大學校音樂大學在職



李 珠 煥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觀水洞三

〇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唐珠洞二一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二年五月二十四日

一、職業 國立國樂院長

一、經歷

檀紀四二六四年 雅樂部員養成所卒業

雅樂手、雅樂手長、雅樂師、雅樂師長、陞任

檀紀四二八四年 國立國樂院長에被命 至現在職

一、藝術經歷

著書로서 『古今時調選』『時調樂譜』出刊

檀紀四二九一年 서울特別市文化賞(音樂)受賞

國樂研究에三十餘年間



鄭 勳 謨

一、本 籍 黃海道安岳郡安岳邑南岩里

一三〇

一、現住所 서울特別市鍾路區惠化洞一六三의四八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二年四月十九日

一、職業 서울大學校 音大教授

一、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六〇年 平壤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卒業

檀紀四二六四年 東京帝國音樂學校聲樂科卒業

檀紀四二六五年 서울에서 第一回音樂研究發表會開催

檀紀四二六六年 第二回 研究發表會

檀紀四二六七年 第三回 研究發表會

自檀紀四二六八年 東京에留學獨逸人네트케회

至 " 四二六九年 1 메門下에서音樂研究

檀紀四二六九年 歸國後第四回研究發表會

檀紀四二六九年 京城梨花女子專門學校教授被任

檀紀四二七〇年 黃海道안악에서個人教授高等女子學校教員就任

檀紀四二七一年 서울에서第五回研究發表會

自檀紀四二七二年 東京에서留學獨逸人네트케회

至檀紀四二七三年 1 메門下에서音樂研究

檀紀四二七四年 서울에서第六回研究發表會

檀紀四二七九年 任國立서울大學校教授

檀紀四二八〇年 第七回研究發表會

檀紀四二八八年 서울市文化功勞賞受賞

檀紀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被選

檀紀四二九一年 서울大學校音樂大學在職



金 永 義

一、本 籍 慶南宜寧郡嘉禮面嘉禮里

一、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新村洞

七〇二의二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一年一月十一日

一、職 業 教授

一、經 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六二年 梨花女子專門學校卒業

檀紀四二七二年 美國푸리아 1 3音樂學校卒業

檀紀四二七九年 同校에서研究一年

檀紀四二六二年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講師

檀紀四二六四年 梨花女子專門學校教員

檀紀四二六八年 右同

檀紀四二七二年 梨花女子專門學校教授

檀紀四二七八年 梨花女子大學校音樂科長

檀紀四二八三年 右同

檀紀四二八三年 梨花女子大學校藝林院長

檀紀四二八五年 梨花女子大學校藝術大學長



李 興 烈

一、本 籍 서울特別市西大區北阿峴洞

一의二七九

一、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北阿峴洞三의一〇三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〇年七月十七日

一、職 業 教授

一、經 歷

檀紀四二六四年 東洋音樂學校卒業以來

教育 演奏 作曲方面 活動三十年

檀紀四二九一年 梨花女子大學校 音樂部講師

檀紀四二九一年 高麗大學校 音樂部講師

檀紀四二九一年 시라비藝術大學 音樂課長

一、藝術經歷

一 檀紀四二六七年 李興烈作曲集 發刊

檀紀四二七〇年 『꽃동산』 "

檀紀四二八八年 李興烈歌曲集 出版



李 海 浪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臥龍洞二

七

一、現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濟洞文化村一〇八號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二二四年七月二十二日

一、職 業 演技者

經歷及藝術經歷

檀紀四二六九年 東京日本大學藝術科創作科本科卒業

" 四二六九年 東京學生藝術座創設同人

" 四二七二年 劇藝術研密會同人

" 四二七九年 劇團藝術協會創設同人

" 四二八〇年 서울特別市文化委員被命

" 四二八〇年 舞台藝術院理事被命

" 四二八一年 徐羅伐藝術大學講師

" 四二八三年 中央國立劇場專屬新劇協議會演技分科委員長被選

" 四二八〇年 第一回文教部主催全國演劇競演大會個人演技賞受賞

" 四二八七年 藝術院會員當選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再當選



金 東 園

一、本 籍 서울特別市中區陽洞七三

一、現住所 서울特別市中區筆洞三街五

五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九年十一月十四日

一、職 業 演技者

一、經 歷

檀紀四二七〇年 日本大學藝術科本科卒業

〃 四二六七年 東京學生藝術座創設同人

〃 四二七九年 劇團劇藝術協會創設同人

〃 四二八三年 劇團新協運營委員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當選

一、藝術經歷

檀紀四二八七年 文教部主催第二回會劇競演大會演技賞受賞

〃 四二八九年 서울特別市文化賞(演劇)受賞

演劇生活二十餘年(出演數百餘回)

映畫出演 四十餘篇



卞 基 鍾 雅號 南溪

一、本 籍 서울特別市鍾路區勸農洞一

八五

一、現住所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一九五一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二八年七月二十九日

一、職業 演劇

一、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四五年 劇團 唯一團 創立

〃 四二四七年 劇團 朝鮮文藝團 創立

〃 四二四九年 劇團 藝星座 創立

〃 四二五一年 劇團 新劇座 創立

〃 四二五五年 劇團 朝鮮劇友會 創立

〃 四二五七年 劇團 朝鮮研劇舍 創立

〃 四二六八年 東洋劇場直屬劇團 青春座 創立

〃 四二七八年 劇團 自由劇場 創立

〃 四二八四年 劇團 常綠劇會 創立

〃 四二八六年 劇團 劇協 創立

〃 四二八六年 劇團 自由劇會入團

〃 四二八八年 劇團 民劇 創立

〃 四二八九年 劇藝術協議會 創立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當選

〃 四二九〇年 國立劇團入團



李 光 來

一、本 籍 慶南馬山市中城洞六二

一、現 住 所 서울特別市鍾路區樓上洞

一六六の二三五

一、生年月日 檀紀四二四〇年九月二十九日

一、職業 戲曲作家

一、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六七年 早稻田大學英文科卒業。

〃 四二六八年 朝鮮日報記者。

〃 四二七〇年 劇藝術研究會入會。

〃 四二六九年 朝鮮中央日報記者。

〃 四二七〇年 劇團中央舞臺入團。

〃 四二七八年 劇團民藝組織。

〃 四二八二年 文教部文化委員會演劇部委員

〃 四二八二年 韓國演劇學會幹事長。

〃 四二八二年 시울藝術學院教授。

〃 四二八三年 新劇協議會幹事長。

〃 四二八四年 新劇協議會國立劇場新協代表。

〃 四二八三年 시울特別市文化委員。

〃 四二八五年 文總中央委員。

〃 四二八六年 시라벌藝術大學演劇映畫科長。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當選

一、生年月日 檀紀四二三三年三月十八日

一、職業 業 國立劇場長

經歷 及藝術經歷

檀紀四二五一年 中央中學校卒業

〃 四二五五年 日本青山學院中學部卒業

〃 四二六二年 日本東京帝國大學文學部獨逸文學科卒業

〃 四二六二年 東亞日報社政治部記者

〃 四二六六年 右社學藝部長

〃 四二六四年 劇藝術研究創立同人이 되어新劇運動着手함

〃 四二七四年 朝鮮演藝作家會의會長이 됨

〃 四二七五年 朝鮮演劇文化協會의理事가 됨

〃 四二八一年 民主日報社編輯局長이 됨

〃 四二八二年 東洋外國語專門學館教授兼教務處長

〃 四二八一年 韓國舞臺藝術院副院長이 되어現在에 겸

〃 四二八三年 國立劇場運營委員이 되어現在에 겸함

〃 四二八四年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副委員長에被選

〃 四二八六年 中央國立劇場長이 되어現在에 겸함

〃 四二九〇年 藝術院會員被選



徐 恒 錫

一、本 籍 咸南洪原郡龍源面中湖里一三

六

二、現 主 所 시울特別市城北區敦岩洞一六五의五

빈 면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丁酉黃花節時書於古墨

來聞酌酒幾明月
 竹窗題詩掃綠雲

빈 면

“詩”

婆蘇斷章

— 婆蘇山中書信斷片 —

徐 廷 柱

門을 밀고서 房으로 들어 가듯

門을 열고 나와서 여기 좀 보아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 좀 보아!

매(鷹)가 이끄는 마지막 골에 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 하였습니다——

『여기는 잊었던 내 살들이라』고。

맑은 봄날을 노고지던 풀라서

여기 날아 달아 목젖을 맞대고,

수리개의 때 金鑲脈 넘어 와서

숨을 바로해 힘 기르는 꿈——

여기는 잊었던 내 살들이라고。

보아。

보아

門을 열고서 房으로 들어 가듯

門을 열고 나와서 여기 좀 보아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 좀 보아!

예서부턴 毳絨은 綠金으로 빨리는것을!

사람과 짐승의 맨앞인 예서부턴

毳絨은 인제 綠金으로 빨려 永遠한것을!

註・婆蘇는 處女孕胎의 緣由로 世上에 있지 못하고 神仙修行을 갔던 新羅始祖 朴赫居世의 어머니。

남의나라에서부러웠던몇가지事實들

金 末 峰

외국생활에서 부러움을 느낀 몇가지가 있지만. 우리네 형편에서 그런것을 들쳐내는 것은 상말로 방아간에 앉아서 「더덕지」를 할는 거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부러움을 느껴 보는것은 마음속의 일이니, 마음속의 것, 약간 피력해보았자 별반 죄 될것도없을상 쉽다. 「하와이」에서 때 저리게 부러웠던 사실. 그것은 아쉽게도 SCHOOL이라는 간판을 부친 뻘스가 몇대든지 지내가는 일이다.

그 뻘스에는 보통 시민은 열신도못하고 오직 국민학교나 중고등 학생들이 타기로 마련이다.

정류소 처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을 모조리 실은 이 뻘스는, 학교 정문마다 가서 서고, 거기서 병아리 떼들같이 학동들이 쏠아져 나온다.

학동이 차값을 내는 일이없다.

이 뻘스는 시(市)에서 운영되고 시는 교육국으로 들어오는 세금에서 공제하니까 시당국의 산판에는 결단코 적자가 없다. 또 하나.

호노루루 시가는 우리 서울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도시는 동리의 모퉁이 모퉁이 소공원이 있다.

푸른 잔디가 있고 정갈스런 「벤취」가 있는가 하면 소복히 파란 상록수의 적은 수림이 있고, 그 주변 반드시 셋어가는 변소 있다.

휴지와 거울은 물론. 여인의 생리적 배출에서 생기는 처치까지 구비되어 있으니 알만한 일이다.

가또 한가지.

「뉴욕」서도 도심지에서 가끔 폭음이 들려 왔다.

『집을 헐어 내는거 랍니다.』

하고 동행 하는 분이 설명을했다.

『왜 멸망한 집을 헐어요?』

『여기는 건물이 삼십년만 되면 다 헐게 마련이랍니다. 개인의살림 집이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 아파트먼트는 삼십년 경과하면 꼭 꼭 헐려 나가니까요.』

십여층씩 높은건물로 한 팔락을 통이 차지하고 있는 큰 집이, 예사로 헐려 나가고 있다.

이유는 집이 오래되면 마루가 내려 앉기 쉽고. 그래서 인명에 피해가 있다는것.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이렇게 집들이 헐려 나가야 노동자의 일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헐고 짓고. 헐고 짓고, 그래서 되도록 실직자들을 없이 하고 미국 전국에는 굶주리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뜻한 비용은?』

하고 물으니까

『물론 은행에서 대부를 받지요. 아 나라에서는 결단코 은행의 돈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으니깐요.』

하고 설명 하는 이는 빙긋이 웃는다. 그런가 하면 국민은 세금을 아주 정확히 낸다는 것이다.

중간에서 행방 불명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놓고 세금을받힌다.

한가지 감탄 할 것은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 누구 하나 세금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은 없는 일이다.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를 들고, 시민들은 주옥 세무서 창구 앞에서 일렬로 늘어 서는 것이다.

만약에 기일 까지 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즉석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이 온다.

가령 수도세를 내지 못하면 수도가 끊기우고 전화 요금을 밀리게 되면 전화의 통화가 중지 되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 하고 있지만)

소득세 같은것은 개인이 직접내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병원이나 관청에서 월급을 받을 때. 벌써 일할을 공제해서 월급을 내놓기 때문에 쌀라리맨 이 세금 받히러 일부러 가는 일은 없다.

물건을 사는 때. 가령 편지지를 하나 산다면, 그 편지지에는 벌써 세금이 일전 내지 이전이 붙는다.

으레히 점원을 일전을 세금 박스에 넣는다.

이렇게 모이는 세금은 미 전국 각 도시 각 부문에서 국고로 들어가 쌓인다.

쌓인 돈은 그대로 국민의 산업에 결실에 대부분 자금으로 흘러 나가고 미국의 금융은 쉬지 않고 신진대사를 하고있다.

국민에게서 국고로 국고에서 국민에게로 또 국민에게서 국고로.

또 하나.

내가 본 도시들 중에 큰 도시로서는 뉴욕이 제일 추한 도시의 하나였다.

그것도 늘 그런것이 아니고, 아침 여섯시로 부터 일곱시 까지. 원 길바닥은 뚱으로 더러워 진다. 사람 뚱이 아닌 개뚱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아침 산보로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개들은 길바닥에 마음대로 뚱 오줌을 갈기고 간다.

그러나 개들의 산보가 끝나면, 이어 빗자루와 쓰레박을 든 흑인이 나온다. 길바닥은 뚱 한점없이 말짱히 소제가 된다.

이 소제 비용은 개를 기르는 사람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한다.

이상한 일은 이 개뚱은 별로 통행인의 지장이 되지 않는다.

개가 나오는시작 큰길로 다니는 사람은 대개가 우유를 배달 하거나 식빵을 나르는 사람으로 추력이나 「스리커타로 달리고.

그래서 (人道)위에 늘려있는 개뚱과는 상관이없다.

뉴욕은 아침 일찍히 배달 하러나오는 사람외에는 별로 길로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모두 간밤에 늦게 놀고, 새벽 까지 극장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침 잠이 늦은지도 모른다.

일요일 아침이면, 이 아침잠에 골아 떨어진 뉴욕 시가는 완전히 정적속에 파묻힌다.

일요일이 아닌 날 아침. 그들은 자동차가 끊여 내놓는 커피 한잔을 사탕도 치지 않고, 탄약처럼 주욱 마시고 뽕뽕히 직장으

로 가는것은 여사다.

(이런 광경은 별로 부럽지도 않다.)

또하나.

외국이라도 미국같은 큰나라를 들쳐내는것 보다 가까운 동양 일본 도오쿄에서 느낀 일을 하나 지적 하겠다.

내가 「페니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약육년전이다.

그때 일본은 길바닥이 이미 완전히 포장되어 있었다.

외국 사람의 눈에 잘 띄일수 있는 「도오쿄」역전이다, 「히비야」공원 같은 큰 길뿐이 아니다.

그들의 으쓱한 뒷골목. 찢차가 흙이 잦다간 뒷 걸음걸이를 쳐야만 겨우 돌아 나올수 있는 그러한 좁은 길도 「콩크리트」로 가
뜬히 포장되어 있는 사실에 나는 놀랐던 것이다.

그대 내가 안면 있는 사람에게

『어째서 길들이 이렇게 잘 손질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이

『우리는 우리집 앞 길바닥은 모두 우리네 집집에서, 세멘 과 모래를 인원수에 따라 한뼘박씩 내고, 세멘 과 모래가 없는 사
람은 돈으로 내고, 그래서 「콜탈」은 구장이 미군에게 가서 얻어오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게다」를 신으니까요. 길이
울퉁불퉁 해서는 발을 빼놓을수 없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내 머리속에는 곧 우리네 길바닥과 우리네 신발에대한 어떤 인연이 생각났다.

우리네 신발은 예전에는 짚신과 가죽신 이십년 이래 요사이는 고무신.

이러한 신발은 울퉁 불퉁한 길바닥에 곧잘 전될 수 있는가 하면 여간 구정물이 흥근한 곳도 무난히 지내갈수가 있다.

이러한 우리네 신발은 길에 포장이 없는 시설에는 가장 진보적이고 편리한 신발이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오늘. 우리들의 신발이 도로혀 뒷골목의 포장을 늦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않은가 생각을 해 본것이다.

길의 포장의 시작은 옛날 로마제국에서 부터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 로마사람의 신발과 길은 인연이 있을 것이다.

이태리 라는 나라

지금은 남여가 다 현대식 구두를 신지만 그때「로마」나라 사람들의 신발은 일본 사람의 먼길 갈때 신는 짚신이라 할가 아
니면 소의 발굽에 끼운 소신처럼 바닥만이 있고, 그 바닥을 발에 붙게하기 위해, 꼬나폴로 칭칭 감았던 것이다.

물론 열발가락이 다 노출한 채.

이러한 신발로 돌맹이들이 깔린 길을 걸다가는 발가락이 상하기가 일수고, 구경물이라도 고인 곳을 지나 노라면 열발가락이
다 더러워 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엿 보다도 먼저 길을 수리하고 정리해서 보행 하기에 편리하 게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의미로써 일본의 길이 잘 수복 된것도, 일본 사람의 신발이 그러한 원인을 지은것이 아닐까.

미국같은 나라에는 벌써 자동차나 추력이 사람의 발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길래 그들은 그 끝없이 길고긴 국도(國道)를 거의 완전 무결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자동차나, 추력이 통과 하기에 추호라도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 그들은 시(市)에서 혹은 주(洲)에서 내보내는 인부들이 「스리
코타」를 타고 다니며 으슬쁘게보인 길바닥은 매우고 매꾸고 언덕에서 번어나온 나뭇 가지가지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가지
를 잘라낸다.

호로루루에서 코코넛 열매가 떨어져(코코넛은 야자수열매) 마침 통행하던 사람의 머리를 마쳐 그사람은 곧 입원 치료를 했다.
그는 직업이 변호사로 앞으로 몇달 정양을 해야 되고, 그 동안에 드는 비용이며 또 변호사 업에서 들어올 예정액까지 모
두 삼만불로 정하고 「호노루루」시장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재판의 결과는 원고인 변호사에 승리가 돌아가고 「호노루루」시장은 물론, 시의 금고에서 삼만팔라를 내놓아야 했다.

미국 어느 극장 들어가는 문앞에, 보기 좋게 하느라고 울퉁 불퉁한 유리를 깔았다.

어느 귀부인의 날카로운 구두 뒷축이 이 유리판자에 걸려 넘어지자, 귀부인의 다리가 분절터 졌다.

부인을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해서 나왔으나 그는, 퇴원후 곧 극장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제기 했다.

물론 원고인 그 부인이 이겼다.

가끔 길바닥에 공사가 있을때, 수도공 사장은 깊이 파내는 일터 주위로 돌아가며, 불이 이렇 이렇타오르는 항아리들을 놓아 두고 「원형」이라 쓴 잔판과 붉은 기를 세워둔 것을 보았다.

만약에 위험 신호가 분명치 못해서 사람이 빠져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공사장은 재관장이 정하는대로 손 해배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동자동(東子洞)사는 사람이라 가끔 후암동 시장으로 가는 일이있다.

여가는 날치기나 「쓰리」보다도 까딱 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는 일이 있으니 두통이 아닐수 없다.

일전에 김꺼리를 사려고 나갔더니 사람들은 무 배추를 손구루마에 싣고 나가는가 하면, 일변 무 배추들은 또 산때미 같이들 어와서 쌓인다.

무를 진 지게. 배추를 실은 손구루마. 그리고 광우리에 잔뜩 이고 들어오는 아낙네들이 사고 팔고 한창 아우성을 치는 판 에 난데 없는 빠스가 달려 들지 않는가.

사람들은 모두 길잡으로 피하지만 잘못해서 배추위에 발을 얹어 놓는가 하면 무단위에 올라서고.

물건도 물건이려니와, 여인들의 치마며 발 모양은 여망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좁은 길바닥에 그처럼 거대한 빠스가 억척 같이 달터든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빠스가 지날때 마다 시 장에서 매매하는 시민들은 죽음의 위험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좀처럼 답안이 생겨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날치기는 있다 한다. 밤늦게 으쓱한 골목으로 혼자가면 흔히 당할수 있는 봉변이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으스스한 곳은 안가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네는 그와 반대로 복잡한곳이 더 위험성이 많으니 미국과는 반대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복잡한 곳엔 안가면 그만이라하고 버티어 볼수도 있겠는데 기차를 타자면 역으로 가야 하고 반찬꺼리를 사자면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곳일수록 날치기며 쓰리며 더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만원 빠스들이 달려드는 데는 어떻게 할도리도 없다.

남의 나라 살림살이 부러워 하다가 내살림 불평에 끝이 없는 이런 수월. 이쯤해두고 불을 놓기로 하자.

『創作』

離 緣

廉 想 涉

「자, 이것만 가지고, 어서 떠나요。」

누이가 신문지에 찢은 돈을 뭉치를 들고 건너 오더니, 앞에 놓으며 땀을 주듯이 짜증난 소리를 한다. 형식이는, 점심나절에 택수가 온 눈치를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었지만 해가 기울도록 놀다가 금방 막 가는 기척이던데, 의례 그럴 줄 알았지만 돈을 주고 간 모양이다. 택수란 말하자면 매부다. 그러나 들어내놓고 매부라 하기도 싫고 어찌다 마주치면 피차에 수인사할 뿐이지, 만나기가 그리 반가운 매부도 아니지만 실상은 이집 살림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이니 팔시도 못할 처지요, 며칠만 클씩 오면 아원것을 피게 해주고 가니 누이에게만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어머니나 아이들까지도 택수가 다녀가는 것이 고맙고, 요새는 형식이 역시 택수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얼만데?」

자릿속에 누어서 잡지를 보고 있던 형식이는 누이의 예수를지 않게 된둥이를 주는 말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누은채 책에서 눈을 떼어 방바닥에 놓은 돈 뭉치의 부피부터 보았다.

「다섯이야。」

오십만원(圓)이라는 말이다. 누이는 오래비가 그래도 달갑지 않아하는 눈치가 못마땅해서 또 쏘아주는 소리를 하였다. 「그까짓것, 그만 뒤. 쌀 팔아 가지구 가지。」

형식이의 말은 통명스러웠다. 일백오십만원을 말했는데, 삼문지일, 오십만원쯤 그까짓것으로 무얼하라는거냐고 되레 핀잔을 주며

배 불은 흥정을 하는 것이었다.

형식이 거 저번에 울제, 쌀 네가마니를 가져고 와서 두가마니는 팔아 그동안 용쓰고, 아직도 두가마니가 남았으니 그것만 관 대도 그만 돈야 될것이니 회피운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군민 방위군의 XX가지 사령부에 영관급(領官級)으로 있는 형식이는 한달에 한 두번씩 집에 올때마다 쌀 가마니씩이나 휴련전에 싣고 와서는, 처분하여 용돈에는 군색지 않게 한바탕 쓰고 가곤 하는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국민 방위군이란 그저 군대거니 생각할 뿐이요, 아들이나 오래비가 출세를 하였거니 싶어서 고맙고 좋았으며, 쌀 가마니라도 절어 들이는것만 반가웠었다. 그러나 이번에 와서는 반달짝이나 떠나지를 않고 멍충멍충하기에, 뉘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먹은 쌀 값을 무리꾸리를 해 봐야 할판애요. 그것을 다 토악질을 해 농자면야 일천 오백만원으루두 부족하지만, 당 장 급한대루 백오십만원은 들고 들어가야 하겠는데……」

하고 의외의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무슨 뵈죽한 수 있던? 쌀가마니쯤 가지고 왔대야 팔아서 너 다 쓰구, 집안 살림에 무슨 보탬이 됐기에 말야?」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뵈잔을 주었다. 누이는 또 무슨소리가 나오려나? 하고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눈살이 찌푸려졌다. 돈 쓸 일이라면 덮어놓고 자기더러만 해대라고 사람을 못살게 구니 말이다.

「그러나 손에 들고 들어 가서 데밀지 않으면 당장 영창야. 군법회의에 까지 걸려나가면 적어두 오년은 콩밥을 먹구 나와야 할테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오죽해야 잠 자는 약까지 사 가지구 다닐라구?」
형식이는 어머니나 누이를 놀래려고 일부러 임포로 시들렀다.

「흥! 죽을 재주만 있거던 죽어보렴. 그래야 너 언제 제집 자식 벌어먹이라구 그랬겠니 밤낮 마—짱에 미쳐 다니구, 제집년 들 옷치장해 주려구 그런거지 뭐야?」

어머니는 속으로는 접이 더러 나면서도 사위덕에 살아 가는 살림이니 딸의 비위를 맞추느라고도 이렇게 모친 소리가 나오 는 것이요, 은근히 어린 며누리 역성도 들어주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중에서도 가위로 치고 말수 없는 아내 금숙이는 남편의 말을 끝이 듣는 안듣는간에 컷가로 들어 들뿐이었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는 이씨집 문중에 중시조(中始祖)나 난듯이, 아들의 출

새를 자랑하고 태산같이 믿어 왔더니만 실망도 크고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자 결국 돈 나을 구멍은 택규 밖에 없었다.

택규도 풀리다 못해 오십만원을 마련해다가 주면서

「방위대지 원지, 인제 협과를 해서 문닫구 말텐데 무슨 소린지? 하루 급하다군 하구 어쨌든 사람 살구 봐야 하니깐 해다주긴 하지만 저, 해 번은것까지 날더려 무리꾸려 하라는거야! 인제 내게 돈 말 다시는 하지 말아요!」

하고 전에 없이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인제 다시는 돈 말을 하지말라는 그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아서 소항이는 가슴이 선뜻했다. 어머니도 그말을 들으니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그 어찌니?.....」

하고 놀란대기보다도 살 일이 걱정이 되어 먼산만 바라보며 혼잣생각에 팔려 앉았었다.

팔은 사위라 하지만은, 저희끼리 좋아서 삼년이나 사는 동안에 팔 새끼도 하나 낳고 덕도 많이 보았는데, 이리 피난 나려온 뒤로는 전수히 그사람의 신세만 지고 있는 처지고 보니, 멀쩡한 오래비까지 지다위를 하려 드는데는 짐증이 아니랄 수가 없을거라, 이거야 헤어지자는 귀름 같이만 들려서, 마나님은 살 길이 끊어진것 같이 나심이 되는 것이였다.

「애, 그돈 이리 내라!」

아들 저지경 되고 땀 마자 제남편이 내 대는 말 눈치라는데에 화가 버럭 난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그나마 형식이 그 돈이 어떤돈이라고, 액수가 부족하다고 주착없이 툭 튀기며 배불은 수작을 하더라는 말에 울화통이 터져서 눈자위가 틀려졌다.

소항(少香)이도 오래비 앞에서 분김에 돈보파리를 들고 나왔던티라, 마음대로 하라고 어머니 앞으로 밀어 놓았다. 어머니는 똥똥한 몸집에 씨근씨근 숨이 거칠어지면서, 돈똥치를 풀더니 그중에서 십만원 한똥치를 들고 나선다.

「할머니 나두 갈테야!」

마나님은 화김에 저녁 반찬거리도 살결 바람이나 쏘이려 나가자는 것이였다. 이번에는 아들이 와서 쌀 두가마니를 팔아서 쓰면서 용돈도 변변히 내놓지를 않아 한참 돈에 주린 끝이기도 하였었다.

「그래 가자. 에미두 나서라!」

만약 물을 짓고 난 금속이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러지기가 무섭게 냉큼 올라가서 저고리를 갈아 입고 내려와서는, 시장 가는 망태를 들고 따라 나섰다. 원종일 빨래를 하고 틈틈히 밥치닥거리를 하여가면서 저녁물까지 길어다 놓았으니 인제는 제방에 들어가 한숨 돌리고 싶은 판이나, 남편이 싫다는지 좋다는지 그저 말이 없이 데면 데면하니까, 그옆에 가서 앉았거나 눕기가 거부하고 싶은데, 마침 시어머니가 시장을 같이 가자니 행기삼아 좋구나 하고 따라나서는 길이다.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라도 남편의 말을 되려 묻기가 어색하였지마는, 금속이는 갑갑해서 말을 꺼내고 말았다.

「누가 아니! 하지만 꽤 급한 사정이라니 걱정이지.」

시어머니는 뒤를 흐려버렸다. 그러나 금속이는 동생에게 들은 말이 있는지라, 짐작이 갔다. 이집에서는 통, 신문, 안보니까, 세상일을 모르고 지내지마는, 금속이는 학교에 다니는 동생 은숙이에게 들어서 벌써, 국민방위군이 거덜이 난다는것은 알았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어찌되나 하고 가만히 노려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부부지마는 남편이 본체만체나 남 남끼리만도 못하였나.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나 시뉘나 그저 의리로 어울려 사는 것이요, 부려먹자고 달래고 불드니 사는 것이지 추을 터 놓지한집안 식구라는 눈치는 없다. 게다가 전취 소생으로 딸린것이 둘이나 된다. 일곱살짜리 아들놈과 다섯살이 되는 딸년이, 말로만은 어머니, 어머니 하지마는 할머니 그들에만 메달려 있고, 자기에게는 아랑곳도 없다. 무어 길론 정이라도 있다고 애투할것이 없고 할머니만 딸른다고 섭섭할것도 없지마는.....

(어찌다 네가 이런데를 걸려 들었누?)

하고 금속이는 혼자 제한탄을 하여보는 때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 말만하여 그대로 걸려 온거 아닌가 하고 그저 그런대로 지내는 수 밖에 없어 단념해 버리곤 하여 왔다.

오랫만에 돈 십만원을 켜 마나님은 화는 화요, 어쨌든 신바람이 나서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사고 싶은것은 다 사서 머누리에게 한일을 이뤄가지고 손주 아이에게도 카라멜잡을 들려가지고 시장을 빠져 나왔다.

「애, 아직 그리 늦진 않았으니, 여기 들어가 떡국이나 한그릇 편구 가자.」

부작대는 시장을 빠져 나오자 시어머니는 길 모퉁이, 판자집 우동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전 싫어요. 어서 잡숫구 오세요!」

금숙이는 고개가 부러지도록 머리에 인것을 내려놓고 좀 쉬어가고도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버릇을 아는지라 따라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여정이 나서 아무돈이나 털어가지고 시장에를 나올제야 의례 화 풀이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그러려니 하는 짐작이, 금숙이에도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녁때만 되면 술 한잔씩 받아다가 혼자라도 쪽키는 시어머니이기에 말이다.

마나님도 머느리의 성미를 잘 알거니와 저녁밥때니 어서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에, 더 붙들지는 않고 손주만 데리고 우동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머느리가 가없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역시 못마땅하고 제 애미 애비가 없으니 만만하여 부러먹기에는 좋지마는 좀 께 까다로운 성질이 이집 풍속과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늘 거북하달가 싫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교향이 아니요, 어딘지 모르게 가풍이 다르달지 서로 열째지 않는데가 있는 것 같아서 더구나 그러하였다. 이야기들 들으면 머느리집도 토반(土班)까지는 못가는 모양이니 별 수는 없겠거니 하면서도 왜 그런지 탁 어슬리지가 않는것 같은 것이었다.

(아이, 어머니두 딱하시지. 그돈이 무슨 돈이라구 그렇게 해피 쓰시는건구?)

금숙이는 혼자 오면서 이런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남편 생각을 하고, 급한것을 면해 주려던 절박한 돈이라해서 하는 생각은 아니었다. 남편도 딱하지만 시어머니도 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마는 당장 먹고 살아가는 하겠고, 셈 같이 나오는 구명은 있으니, 어머니들 돈을 보면 어찌 쓰고 싶지 않아하겠는가 싶기도 하다.

금숙이가 머리가 쪼 눌리고 고개가 부러지는듯 싶은 것을 참으면서 간신히 이만쯤 기어 올라오려니까, 군부 입은 웬 누나네가 산보를 가는 눈치인데, 외면을 하고 저쪽으로 간다. 요새는 군부 입은 여자도 흔하니, 금숙이는 무심히 지나치다가,

(그 이상하다!)

하고 유심히 바라다 보았다. 외투하고 걸음거리가 자기 남편 형식이 분명하다. 오랫동안 와서도 시들히 식은밥 치우듯이 하는 남편이니, 무슨 정성에 눈이 발작 뒤집힐까마는, 옆에서 나란히 걷는 여장교(女將校)의 날선한 뒷맵씨를 보고는 어쩐지 마음에서 선뜻한 생각이 들었다.

금속이는 아무리 바빠도 쫓아 가서 앞으로 췌 돌아 서서 두담녀에게 얼른을 마주 대하여주고 싶었으나, 남편이 아니므로 못하고 시들한 생각이 들어서

(흥! 저 그러려면 그러라지! 누가 눈 하나나 깜짝하겠기에!)

하고 모른척하고 집으로 들어와 숨이 턱에 다서 짐을 내려 놓았니.

「언니요?」

전년방에서 큰 시뉘의 목소리가 나며 문을 연다. 나이는 실상은 위이지만, 큰 오라범대이라 해서,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오빠가 나갔는데 못만났우? 부대에서 누가 왔는지 급하게 돈을 물테가 있다고 그 남은돈 사십만원 다 달래서 지금

막막 가지고 나갔는데?.....」

소향이는 그 오래비가, 그 애를 써 만들어 준 돈을 보고도, 액수가 적다고, 피 해 버리던 생각을하면 땀고 분하기가 짝이 없지마는, 그래도 부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일이 무사히 피게 되었다는것만 다행하여 신통 내주었던 것이다.

「응,.....그래요?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날씬한 군복입은 여장교하구 같이 가던데!」

금속이는 본대로 여사로히 대꾸를 하였다.

「그럼 됐구려.」

시뉘, 소향이는 돈을 가져러 온 사람이 여자라는 말에 좀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으나, 군복을 어엿이 입은 여장교라니, 둘이 어 안심이 되었다. 부대장이 아래에 대리고 있는 부하를 시켜서 심부름을 온것이겠지 하는 생각이다.

二

「오래비 어디 갔니?」

어머니가 손주를 절고——손주를 절고가 아니라, 술이 거나해서 좀 취청 취청하는 발씨가 손주에게 절러 오는것 같았지만는 들어서는 말에 딸에게 묻는다.

「부대에서 사람이 와서 돈 가지구 나갔어요. 인젠 잘 됐어요.」

딸은 한시를 잊었다는 듯이 좋은 낮으로 대꾸를 한다.

「잘 되긴 무에 잘 돼? 내 그저 그런듯 하더라니。」

어머니는 필적 편다. 지금 오다보니 군복입은 여자하고 택시를 집어 타는듯 모양이 형식이 같아서 잠깐 놀랐다는 것이다.

「아까 저두 들어올제 들이 가는걸 봤는데, 이때껏 어디서 뭘하다가 인제 간다는건가요?」

며누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 참견을 한다. 시어머니가 마냥 술 타령을하고, 어린애를 절고 어슬렁 어슬렁 기어오고 하는 동안에 저녁밥은 벌써 뜸을 들여 올려놓고 상을 보게까지 되었으니 말이다. 해는 저무러가고 방에는 불이 환히 들어왔다.

「그년, 청오리 집에서라두 저녁 맥여 가지구 구경이라두 가는것이겠지. 너는 그걸 보구두 어찌면 가만 내버려 뒀단 말이나?」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었다나.

「나중엔 별 탓을 다하십니다그려. 내벌여두지 않으면, 절터러 어떻게라시는 겁니까? 길에서 떡살을 붙들구 느러지랍니까? 물이 들으랴니까?」

그리 말이 없는 금숙이지마는, 말 대답이 나오고 말았다. 남편이 이번에 와서는 더구나 잇살도 어우르려 들지않아서 심사가 난 끝인데, 이젠 무정지책도 분수가 없으니 말이다.

「저는 걱정이 많고 화가 나서 뿌리통해 있었겠지만, 그래두 계집년이 오사바사 말두 절구, 위로를 해주는게 아니라, 이젠 마주 찌루통해 부어서 있으니 누가 종답구?」

늘 며누리를 가엾게 생각하는 마나님이전마는, 한잔 김이기도 하고 속이 뒤틀어진 끝이라, 주정인지 화 풀이인지 애매한 며누리만 나무랜다.

「그리개 싸싸하구 이쁜 메누님을 또 보세요. 전 물에미 밤에미 밖에미 됩니까. 아무리 팔은 안으루 곱조마는。」

술이 취한 정신에도, 통 말이 없던 며누리가 두번씩이나 퐁 퐁 말대답을 하는것을 보니, 또 새로운 화가 외락 나고 놀랍기도 해서 마루전에 절터 앉은 시어머니는 뜰에서 왔다갔다하는 며누리를 가만히 노려 보더니 갈아 앉은 목소리로

「너, 안살구 나가겠단 말이구나?」

하고 언제나 머리속에 있던 생각을 입밖에 내코야 말았다.

남편을 시들히 여기고, 너 그러면 나 그러지 하는 냉랭한 태도가 틀리다는 말이지만은 속마음으로는 이 머누리를 노렸다가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앞질러 한말이었다. 실상 말하면 색씨의 인물부터 앞세우는 생화를 하여 왔지마는 머누리도 인물이 남에 빠질까, 부중부중하니 부려 먹기 알맞고 두살, 네살 된 반지 빠른것들을 말아서 어느덧 다섯살, 일곱살씩 커다랗게 길러 놓아준것만도 고마워서 머누리를 대견히 생각하는 시어머니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금숙이도 남편 정 보라도 시어머니나 시댁들이 자기 공을 알아주고 아이들이 팔는 그것에 걸려서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그 치다거리를 혼자 말아서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시집 온지 삼년이 돼야 이때껏 자식을 못나서 그런지, 남편이 점점 내내는 눈치니 금숙이도 속셈으로는 (이집에 나만 없어져 봐라.)

하고 비꼬고 큰소리를 칠 뱃집이 차차 들어 가던 것이었다. 그러나 금숙이는 시어머니가 네 안살구 나가겠단 말이구나? 하고 막 가는 소리를 하는데는 절끔해서 입을 닫쳐 버렸다. 이집을 쫓겨 나가면 어떻게 살구? 하는 집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정을 어떻게 떼칠구? 서로 인연이 있어서 살다가 어떻게 남이 되어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헤어진다는 것은 감히 입두도 못내는 것이었다.

「글쎄, 너두 딱하지, 그돈은 왜 주어 내보냈단 말이냐。」

이번에는 딸에게 달려들며 말을 돌린다. 이것도 생각이 있어하는 말이다. 언젠가 형식이 가 절고 온 종병이 지나는 말결에, 같은 부대에 있는 여장교와 연애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말이다.

「에이, 그만 두세오. 그까짓것 줄것 뭘으니 그만이죠。」

방에서 딸의 대꾸다. 딸에게는 쉼쉼 기는 어머니라, 더 할말도 없고 멈춤했다며 잠잠하여 지터니 「어쩌면 널 새끼두 하나 못 낳니?」

하고 주기가 혼곤히 도는 시어머니는 또 다시 머누리에게 말을 건다. 저의끼리 의는 좋지않지만은 노치기는 아까운 머누리기에 말이다.

고기를 서근이나 사주는대로 가지고 와서 부리나케 쟁여 굵고 있던 금숙이는, 석취에서 나는 연기에 눈을 찌푸리면서 울화가

터져 또 입을 버리고 말았다.

「이래 저래 내 쫓גיע만 됐군요. 자식 못났는거두 쫓겨나는 한조건이라죠. 하지만 절루(嫉妬)가 심한것도 칠거지악의 하나라는 데, 어머니께선 난봉 아들 두신 걱정은 안하시구 시앗 샘 안넌다는 탓만 하시니 나가란 말씀인지 있으란 말씀인지 모겠르 구번요.」

며누리의 입에서 이렇게 또랑 또랑 말대답이 나올 줄은 몇해를 데리고 지내본 시어머니도 처음 당하는 노릇이라 놀랐다. 실상은 금숙이도 이렇게 대담하게 뽕뽕뽕 말대답을 할 마음은 먹어 본일이 없었지만, 동생 은숙이가 늘 킁킁이를 주며 추저대는 때문도 있었다.

「언넌, 이진 뭐요? 죽도록 드난살이나 하구, 대관절 누굴 위해 사는거요?」

하고 요새는 찾아 올때마다 분해 못견디겠다는 듯이 팩 팩 쓰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저 웃고만 넘겼으나 차차 마음이 달라져 가기도 하였다. 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해 사는것인지 모를 일이다. 남편이래야 그렇고, 아이들이 따르니까 그저 얄은 점에 걸리기는 하지만 저 자란 뒤에는 에미라고 알아 볼지 모를 것이요, 시어머니 설례에 걸려서 그날 그날을 보내는 것도 딱한 일이다. 역시 동생이 백화점에 나가서 치어 나니만치 똑똑하고 그말이 옳거니 싶었다. 남편에게 마구 대들지를 못하는 대신에 시어머니한테 폭백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 갔던 시뉘들이 차례 차례 물러 들더니

「어머니, 오늘두 또 취하셨구먼!」

하고 빈정대는 소리를 하는것도 못마땅 하였지만은 제일히 책 가방을 두고는 부리나케 뛰어 나와서 심술이 나서 뿌리통하니 고기를 굽고 있는 오라뱀때에게로 달려 든다.

큰 접시에 구어 놓은 고기 거름은 널름 널름 아이들 입으로 들어 갔다. 금숙이는 그북새에 화도 더 났지만은, 열기에 눈 을 찌푸리고 애를 써 구어 놓은 공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년들아 작작들 먹어. 언니 맥이고 오래비 조려 사왔지 너희들 폐이자는거야?」

마나님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일어나서 슬멧~ 빠져 나갔다. 큰딸은 돈을 대서 살려주니 위해야 하겠고, 아들은 아들이래서

떠 받아들여야 했다.

윗집, 밑주 파는 마나님께로 가서 또 몇잔 마시고 온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대문밖 관자 가게터에 들어가, 컴컴한속에 앉아서 혼자 훌쩍 훌쩍 우는 것이었다. 이 관자 가게 터는 주인집 아들이 하던 것인데, 요새는 그나마 시세가 없어서 덮어버린 것이다.

「어머니, 뭐 이터세요? 어서 들어 가세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일르는 말에, 금숙이가 뛰어나가 시어머니를 무척해 일으키려 하였으나 술이 취한 마나님은 얼굴도 못할 아불 캄캄한 속에 퍼터버리고 앉아서 께 께 울기만하고 일러 서라하지 아니하였다.

함께 엉감도 없이 외로운 신센데, 태산같이 밀던 아들은 저 지경이요, 살림을 대던 사위마저 박차고 떨어져 나갈 눈치라니 다 함께 무엇을 믿고 살겠느냐고, 설고 앞이 캄캄해진것 같아서 실컷 울어나 보자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니 날은 환히 밝고 아무의 얼굴에서도 수심은 스러졌다. 그러나 형식이는 아직도 아니 들어왔다. 아무도 입밖에 내서 말은 아니하면서도 제발 부대에 들어가서 일이 제대로 피우고, 거기에서 잘 자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뿐들이었다.

그러나 아침결이 지나 열시쯤 되어 그제서야 형식이는 풀이 빠진 기색으로 스르륵 들어왔다.

「어딜 갔었니? 부대에 들어간줄 알았지!……!」

어머니는 아들이 나가 잔것이 못마땅하고 돈이나 제대로 보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들어온것만 고맙것여졌다. 금숙이는 입을 봉하고 말이 없었다.

「밤 새도록 부대장하구 담판을 해봤지만 그결루는 안된대요. 적어두 육십만원을 더해서 백만원 부리랴두 맞추어 와야 한다는 데요……!」

형식이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떠려뜨린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만 가만히 보다가기가 막혀서

「이놈의 새끼, 난 다 모르는 줄 아니? 그년 때 버려. 내 몸을 팔라니? 또, 육십만원이 어디서 나올것 같느냐. 때 거지나겠다! 정신 좀 차려!」

늘은 어머니는 길길이 뛰었다.

「내가 뭐 어쨌단 말예요? 어머니 저 젊은것 앞에 창피스럽게 뭐 이러시는 거예요。」

형식은 돌이켜 어머니를 몰아대고는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리며 깔려 있던 자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튿날부터 아들은 또 죽여 줌쇼 하듯이 자리속에만 파 묻혀서 눈치만 보고 있고, 날은 바람 바람 가니, 어머니도 살이 내릴 지경이다. 사위택 귀는 그돈 오십만원을 데어 밀고 간뒤로는 닷새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센도 안하거니와, 무슨 염의로 또 졸라보라고 팔에겐들 충충여 불 용기가 아니 났다.

「애, 그 웬일이냐? 전화라두 줘 길어 보려므나。」

어머니는 아들 걱정도 걱정이지만, 사위가 떨어져 나갔다가는 당장 큰일이라고 눈이 커대졌으나,

「전화는 무슨 전화!」

하고 팔은 신통치 않은 대답이었다. 참다면 살았지 비릿비릿하게 쫓아 가면서 매 달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소향이의 심정이었다. 신세 전것을 생각한다는지 의리로서는 그럴수도 없지마는, 그럭 저럭 삼년이나 살았으니, 인제는 피차에 웬만치 물릴때도 되었다.

늘은 어머니는 팔의 눈치에 더 낙심이 되었다. 차기도 젊었을제는 그랬지만 모두 저 살기에 마르고 제취미, 제향락에 골들 해서 어머니같은 늘은이는 길치로 가만히 있으라는 눈치니, 이집에서 저의들 걱정은 누가 더 하는데……? 하는 고까운 생각만 들고 율화가 치밀어 더 못살 지경이다.

三

형식이 가 집을 떠난지 거진 한달만인데, 대구에 있더라 말을 알아 가지고 온 사람은 머누리의 동생 우숙이었다. 아들이 나간 뒤로 한달이나 간잠 무소식인데에 애절을 하던 마나님은, 눈이 번해 하였으나 대구에 가 있을줄은 몰랐다.

(망할자식! 에미죽두 작작 썩이라지.)

줄리다 못해서 난리통이라 급한때 돈으로 바꾸어 쓰려고 여투어 둔 금부치며, 머누리가 혼인때 금반지까지 내놓기에 휘몰으

팔아서 가까스로 육십만원을 해 주었더니 그날로 나가서 한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해 먹다가 붙들리는 판에 어디로 붙들려 돌아가서 떨고 있는것만 같아 애가 말라 하던 판이었다.

「뭐, 부른 배를 안은 양장 미인을 절구 구경만 다니더라는데요。」

동생에게 들은대로 알려 바치는 머누리의 말이다. 은숙이와 백화점에 같이 있던 아이가, 집이 대구로 이사를 가니까 그리따다 가서 영화관에 취직을 하여 표를 팔고 있는데, 일전에 구경은 것을 보았다고 당장 편지로 알려준 것이다. 그애는 형식이라도 잘 알고 금숙이의 사정을 동정하느니만치 금시로 알려준 것이다.

「뭐 어찌? 그럼, 부대의 그년두 아니구만。」

어머니는 눈이 더 커대졌다. 사십만원 가져간 여장교의 배가 엄뜻보기에 아무렇지도 않던데 한달동안에 남의 눈에 떠우도록 변안간 불러질 수는 없기에 말이다.

그러나 하여간에 잘 있다는 소식은 알았으니 마음이 놓이고, 그러느라면 무슨 기별이 있으려니하고 있으려니까, 또 얼마만에 형식이 거기서 D중학교 선생노릇을 하고 살림을 한다는 소식이 역시 은숙이를 거쳐서 들려왔다.

「인젠 제자국에 다시 들어섰구나!」

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인제야 마음을 놓겠다는듯이 한숨을 커당게 쉬었다.

난리가 터지기 전에는 그리 이름 난 학교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중학교의 체육선생으로 양전한 훈육주임(訓育主任)이었던 형식이 있었다. 그것도 방위대에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전대로 양전한 젊은 선생이었을 것이다. 벼락갑투를 쓰고 공돈을 많이 보게 되니, 생활이 일변해서 마! 필요 뎌스요 하고 휩쓸려 다니는 동안에 만 계집애 눈을 뜨게 된 것이었다.

「어쨌든 아무데나 가서 돈이나 달라는 소리 없이 살아 주었으면 그만이지 뭐요?」

시뉘는 울개가 가없어서 눈치를 보아 가며 위로를 하였다.

「어떤년인지 애가 들었다해두 판스판이나 술집에서 만났절테니 오랜 못갈거라. 맘만 잡으면 인제 곧 들어올거라。」

시아머니도 달랬다. 그러나 금숙이는 컷가로 들어 두었다. 이런 경우에 탄하고 나설 말도 없지마는 인제는 아주 길치로 밀려난 소박대기거니 생각하면 쟁피하고 분해서 이집 밥을 먹기가 몇덜지 않다는 생각만 든다. 그나마 제가 낳은 자식이 달렸

다면 또 모르지마는, 세끼 밥이나 얻어 먹자고 몇몇 친구 치닥거리를 해 가며 두 아이 길러주자고 매달려 있다면 어디를 가서 식모살이를 하기로 입 하나 칠 수가 없으랴 하는 전에 없던 배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터구나 시어머니 말대로, 하나는 들이는 간에 그네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자식은 찾아다가 또 길르라고 맡길 것이니, 은숙이가 특하면 비양거리며 놀러대듯이, 이것은 식모에 보모에... 낭보지도 못한 팔자에 없는 자식들은 왜 말아 길러 줄가?... 이런 어림 없고 어수룩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언년 왜 딱 결단을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구! 케 케 묵은 고래적 생각만 가지구... 어서 나이 한살이라 두더 젊었을적에 직업부인으로 나가서 혼자라도 살 마련을 해야지! 저러다 내 쫓기면 거리루 내 앓나?」

은숙이는 중학교만 잔실히 나왔건마는 어머니 없이 고생도 많이하고 나이 스무살이나 되니 오닥진 소리를 곧잘한다.

「말이 그렇지 나같은게 무슨 취직을 하니?」

「글쎄 밤낮 우구리구 들어앉았을 생각만 말아요. 무얼 바라구 그속에서 드난 살이를 하겠다는 거요? 나가라구 창피한 소리 가 나오기전에 우선 떼치구 나와요. 나와서 나하구 자취합니다. 동생 뒤 치닥거리는 못해 주겠우?」

은숙이는 취직이 될동안 제가 벌여 먹이겠다는 결심도 해 보았다. 고생하는 형이 가 없고, 단 형제나 서로 의지가 되겠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마는, 형을 애끼는 점으로만이 아니라, 정의감이나 의분 비정한 꼬장꼬장한 생각으로도 충동여대는 것이었다.

「애, 그 알량한 월급을 바라구 나까지 끼아치며 배밥을 얻어 먹구 앉았으라니!」

사실 그역시 말은 취우나 이러한 노릇이다.

「그것두 심전 내구루 가요. 턱살을 치바치구 앉아서 좀 성이 가지게 굴어 봐요. 어엿한 정실부인—큰마누라 아노. 떠 버티구 올라 앉아서 밥상 차려 올리라구 해서 안될게 뭐요? 학교 선생이면 체면두 있겠구, 큰집 살림을 허나—단 두식구가 생활두 넉넉할텐데 무슨 죄 졌읍디까? 이제집 종으루 팔려 갔읍디까? 뻔물이 빠지게 부려먹다가 현신작 같이 버려두 죽여 줘쇼, 살려 줘쇼 하고 말 한마디 시원히 못하구 물려 앉을것이 뭐요?」

「글쎄 네말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철두 두구 살구, 한때 난봉되는 수두 있는전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구다툼을 하라니?」

금속이는 그만한 이해정도 있지만 또 남하구 시비를 하는것이 심은 성질이기도 하다.

「난 모르겠우.」

은숙이는 꽤 토라진 소리를 하다가

「저러니까 여자란 더구나 우리나라 여자는 고생에 여매어서 팔자 한탄이나 하다가 죽으라는 거야.」

하고 한탄을 한다.

「그전 어쨌든간에 한번 만나서 따지긴 할테야. 살 살 속이구 돈이나 끌어 내다가 판살림을 차려 놓구 숨어 사는건 어머니가 무시워 그런다던. 내가 지쳐 자빠져서 소리없이 물러 나갈때만 기다리느라구 그러는거지 뭐냐. 이때껏 아이 나면 올린다는 핑계두, 호적두 안 올렸다는.」

동생이 부채질을 하는 바람에 금속이는 남편에 대한 반감에 다시 불이 붙어 오르기도 하고 더 의욕이 버쩍 들기 시작하였다.

「그거 봐요. 어서 가서 따질건 따지구 분명한 소리를 들어 봐야 어떻게 혈 방도를 차릴 수 있지 않수? 내 순영이한테 편지루 부탁두 해 봤지만, 어떻게 움직여 봐야 취직 자리두 나설거요, 그이 절에 가서 성이 가지게 해야 해지는 말은 좀 정신을 차리게 될거 아니겠우?」

형제가 이렇게 며칠을 두고 옥신 자신 하다가 결국 은숙이가 노자까지 해 주어서 형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 저 내일 대구 좀 갔다 오겠어요.」

저녁밥상에서 머누리가 불쑥 꺼내는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둥그레졌다.

「내가 거길 왜 가겠다는 거냐? 내가 갈때면 내가 보구 싶는데 가만 있거라, 내가 가보구 오마꾸나.」

아들이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머누리가 가서 새 풍파를 일으키고 올것이 겹이 나서도 마나님은 질색을 하였다.

또 하나 머누리를 내놓고는 하루라도 이집 살림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당장 치러 낼 수 없는 고생이 닥쳐오니 내보내기가 싫었다.

「어머넌 만 말씀두! 왜 제가 투기를 안하구 시새지를 앉아서 애 아범을 저렇게 벗 나가게 해봤다구 제청원을 하실젠 언

제대요? 인젠 내버려 두지 않구, 제가 쫓아 다니면서 참전을 해서 결어 틀린테애요。」

여기에 가서는 시어머니도 오금을 단단히 박혀서 말문이 막혀 버렸다.

『그래, 그래요. 어머니가——노인네가 혼자 어딜 가세요。』

큰시뉘도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마는 어떻게 해서 오래비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싶었다. 젊은 여자끼리의 무음이라 울개를 동정도 하거니와 자기 역시 남편이 떠려져 가려는 눈치니 무어 그리 쫓아 다니면서 불을고 싶은 정성은 없으먼시도 마음이 어수선했때라, 대구까지 가서 오래비를 데려 올 경황은 없기에 터구나 가 보겠다는 울개를 불을려고는 아니하였다.

이래 저래 오락범대를 위로 출장이나 시키듯이 떠나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머누리가 떠난지가 또 거진 한달이나 되어 오도록 함흥차사(咸興差使)인데에 마나님은 자나 깨나 성화가 났다. 식모를 구해 놓은것도 아니요, 날마다 학교가는 딸들이 밥을 지어 먹고 다니고, 아이들은 그럴 저력 자가가 거들드려 준다해도 빨래는 태산같이 밀려 쌓이고 거산을 할 지경이다.

그래야 은숙이와는 형제끼리 연신이 있을텐데 말을 똑 끊고 일체 들어 보지도 않으니 궁금해서 백화점으로 가서 물어 보고 싶으나, 아니꼽고 패섬하여 어쩌나 두고 보리라하고 내버려 두었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소식 없었다.

그래도 사위 태구가 마음이 짹짹해서 잔잔히 들어다 보고, 올때마다 돈 십만원씩이라도 갖다가 주는 덕에 당장 밥을 굶을 지경은 면하고 지내나 모든것이 아들 잘못이거니는 하더라도 그렇게 믿었던 머누리 마자 달아나고 말았고나 하는 생각을하면 당장 아천것은 고사하고, 무엇에 속아 넘어간듯만 싶어서 분하고 패섬하였다.

『아무래두 내일은 내 대구를 좀 갖다 와야 하겠다。』

어머니는 그 좋아하는 술도 안 자시고, 초초해 하는 양이 가없어서 큰 팔도 팔리고 나서지는 못하였다.

「대구에만 나려서면 D중학교를 내가 못찾아 가겠니. D극장으루 순영인가 하는 그애만 찾아가두 당장 알일이 아니냐. 염려 없어!」

싱싱한 마나님은 부산서 대구쯤 동릿집 나들이 가는 것쯤으로만 여기고 일은 아침에 나섰다. 딸들도 궁금하니 잔다는대로

내버려 두었다.

형식이 모친은 걱정했더니 보다는 대구에 내려서 손 쉽게 택시로 D중학교를 찾아 가서 아들을 만났고, 셋방살이나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사는데로 걸려가서 작은 머누리랄지(?) 처음 보는 젊은것의 절도 받았다. 아들이나, 처음 보는 새머누리(?)나 당황해하는듯 하고 열적어는 하면서도 『무어 그저 그런거 아니겠나요? 이런것쯤 예사지 뭐 잘못이고 말고가 있겠오』 하는듯한 낮으로 태연하기도 하였지만은 세계집의 외양이나 말씨로 보아서 젊은놈이 절릴법도 하다고, 마나님은 벌써 아들편을 들고 말았다. 자기나 딸이나 한남편만 섬기고 외딴으로 살아오지를 못했으니, 그런데는 이해성(理解性)이 너그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애 에미가 분명 여기까지 오기는 왔을텐데 그 어지 된일일구?」

어머니는 그래도 살년이나 데리고 살았고 정이 들었으니 만치 아들과 둘이 앉으면 넋짓 넋짓이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대구에 와서 한 사흘이나 되어서인지 모자는 의논하고 어쨌든 순영이가 있다는 영화관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고 나서기로 하였다. 어머니도 집안일이 걱정이 되어서 더 지체를 할수가 없으니 곧 떠나야 하겠고, 아들내외도 어머니와 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지내기가 거북하여 어서 떠나 보내려 하였다. 그것은 고사하고 요행 금숙이를 만나게 되면 잘 구슬려서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었고, 형식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모자가 나서려는데, 「새머누리」가 배는 불러가지고 썩썩하하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두 가겠어요.」

하고 따라 나서려는 것을 혼자 두고 가기도 안되었고 하여 데리고 나셨다.

「너 그렇게 몸이 가벼운것을 보니 아들이겠구나!」

어머니는 또 손주를 보리라는 것이 좋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었으나, 며칠 지내보는 동안에 마음에 들기도 하여 칭찬 삼아서 무심히 현 말이였다.

영화관에서는 마침 제이회가 시작될 문법이라 표 파는 구멍을 향하여 쪽을 열을 지어 섰다. 뒤로 드러가서 순영이를 찾아 보기도 싶었지만은, 한참 바깥배너 위선 표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자고 열에 끼어 섰었다. 차차 열이 풀려 나가서 형식이 일행의 차례가 가까워 오자, 전에 보아서 낯이 익은 순영이를 어서 찾아 보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 뜨며, 표 파는 구멍

손 끝들히 들여다 보던 마나님은 질겁을 하며

「아!」

하고 비켜섰다.

순영이가 아니다 바로 금숙이가 서 있지 않는가! 분주히 손을 놀리며 표를 떼어 내고, 돈을 받아 들고, ……저편에서는
밖을 내다 볼 새도 없이 고개를 돌려도 없다.

뒤 미처 형식에도 알아 보고 깜짝 놀라며 가슴이 선뜻하였으나, 앞에 선 작은집이 표를 사는 동안 실신한 사람처럼 멀거니
마라보고만 있었다.

금숙이는 대구에 떠러지자, 순영이를 찾아 가서, 위선 몸을 저의집에 의탁하고 있는 동안에 취적부터 이야기가 일사천리로 전
척이 되었던 것이요, 순영이는 손이 모자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어나지를 못하는 판에 잘 되었다고 불는 것이었다. 일이 그
렇게 되고 보니, 금숙이는 다행도하고 바쁜데, 무에 그리 급하고 긴하다고 남편을 서둘러 찾아가 보고 싶지도 않아서 차일
피일 이때껏 모른척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아, 세상에 이런 수도 있나! 저게 이때껏 내며누리루, 애 에미 애에미하구 불러왔구, 어머니라구 불르던 것이란 말인가?……)
형식이 모친은 왜 그런지 보지 못할것을 본것 같고, 세상이 금시로 거꾸로 뒤집힌것 처럼 망척하고 무서운 생각만 드는 것이
었다.

編輯後記

藝術院報 第二號는 豪華롭게 만들어 모려는計劃이 었다.

文學、美術、音樂、演藝、各分科에 걸쳐 研究論文 藝術作品等을 실

리려고 多彩로운編輯平판을 세우고 各分科別로 原稿을 請託 하였다.

그러나 執筆하여 주실 會員諸氏는 學校講義、作品製作、公演、映畫撮

影、演奏會 職場關係等으로 바루시어 못쓰겠다는 通知를 받았을때는 惜

惜하지 않을수 없었다.

本報는 國家財政으로 發刊하기 때문에 限定된 時日內에 原稿磨堪을 하

여 入札에 부쳐야되는 것이므로 짧은 時日에 東走西走하면서 몇번이나 汗額을

흘렸는지 모른다

이러한 隘路에서 허덕이면서 그래도 原稿를 넘기고 落札이되고 나

니 마음이 것은하다. 비록 機關誌라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보니 編輯

자의 努力이 不足했음을 느낀다 이것은 限定된 날자에다 責任을 들

리므로 自慰하고 실다. 바루신중에도 裝幀과 畫를 그리주신 분들과

드 長文의 論文을 執筆하여 주신 분들과 特히 짧은 時間에 九十

보에 達하는 創作을 써주신 廉尙懸先生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

이다.

(事務擔當)
編輯子

檀紀四二九一年十二月一日 印刷
檀紀四二九一年十二月二十日 發行
(非賣品)

藝術院報 第二號

編輯兼 朴 鍾 和
發行人

印刷人 玄 濟 明

發行處 大韓民國藝術院

우리의 맹서

一、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二、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시자.

三、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빈 면

